건축사

KIRA 2011 02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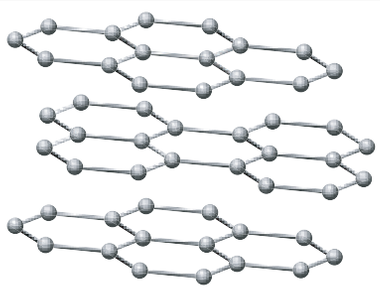
칼 럼 새 회장에게 바라는 희망
시 론 우리 협회 미래를 생각하며 -
2011 문화라는것 – 건축은 문화인가?
특 집 토론회 지상중계 _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KOREAN ARCHITECTS

18℃를 지켜라!

신개념 비드법 2종 단열재 – 에너포르

흑연의 판상형 구조



* 흑연의 특별한 구조가 외부의 열을 흡수합니다

흑연으로 실내온도를 지킨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쾌적한 실내온도 18℃를 유지합니다
흑연이 첨가된 비드법 2종 단열재 에너포르가
완벽하게 막아 단열재의 수준을 한단계 높입니다

세상의 열을 다스리는 흑색기술 – 에너포르

고효율 단열재 에너포르는 열을 흡수하는 흑연을 첨가하여 동일기준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단열 성능이 20% 향상된 고효율의 단열재입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는 높은 단열성능으로 공간적, 경제적 최소화로 보다 향상된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효과를 주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웰빙 단열재 에너포르는 독립된 미세한 기포구조로 이루어져 습기, 세균, 곰팡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강한 웰빙단열재입니다.

에너포르

www.kkp 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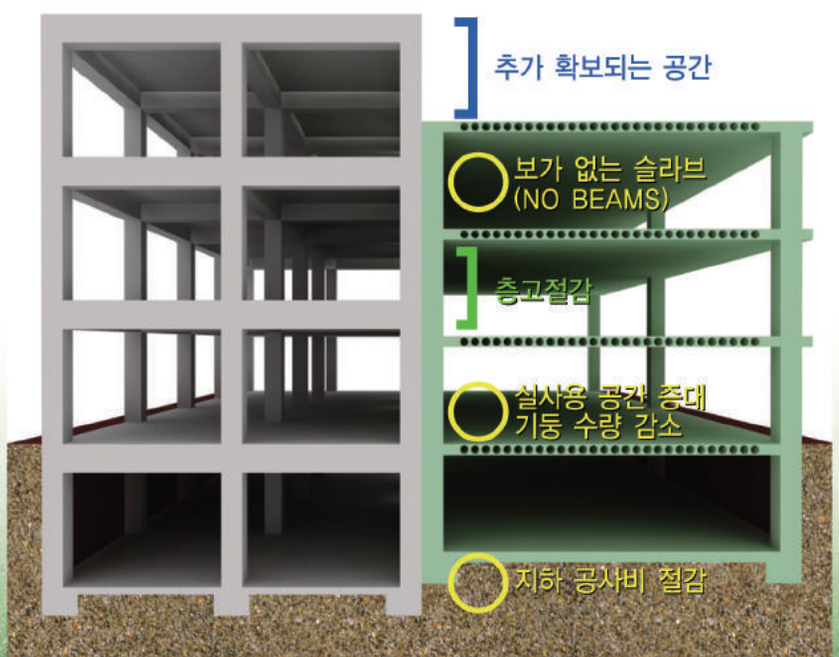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 는 종래의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하여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개념을 도입, 동일비중의 단열재에 비하여 열전도율이 10~20% 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바를
신공법 SLAF 가
간단히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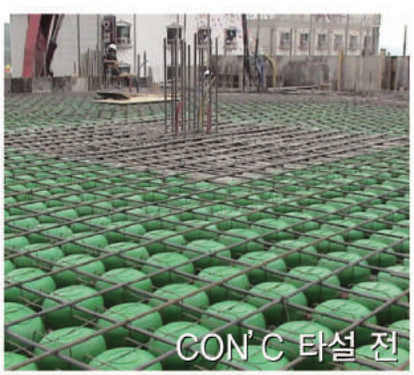
초경량 중공형 무량판 바닥구조

저탄소 녹색 성장 공법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기존건물] [SLAF건물]



[주]신화엔지니어링
구조기술사사무소/벤쳐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www.sh911.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번지
TEL. (02)3481-3885(代) FAX.(02)3476-3888

(주)제일테크노스
SLAF테크시공사/데크플레이트전문기업
www.jeil21c.co.kr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TEL. (054)278-2841(代) FAX.(054)287-2883
TEL. (02)555-2055(代) FAX.(02)554-1476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PL법 영업배상 책임보험 8억 창공주차산업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춤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 1층　A/S : 02)333-4448
■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E-mail : cgp210@kornet.net　■ FAX : 054)973-0067

건교부 신기술 제433호 · 국내특허 제0571102호 외 14건 · 미국특허 US7,144,200B2 · 일본특허 제3958319호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수상

IPS흙막이 가시설 공법

(Innovative Prestressed Sur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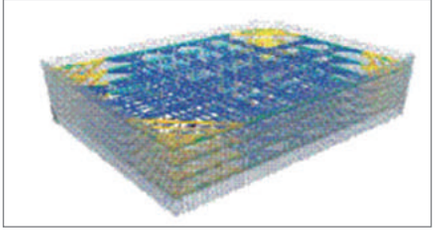
가산 디지털엠파이어 공사현장(규모 : 74.4X79.7X17m 토압 : 28.3 ton/m)

이렇게 넓은 굴착공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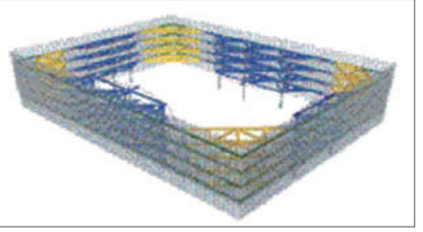
- 강재량 30% 절감
- 공사비 15% 절감
- 공사기간 20% 단축
-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증대

"타공법과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재래식 공법(강재량 1000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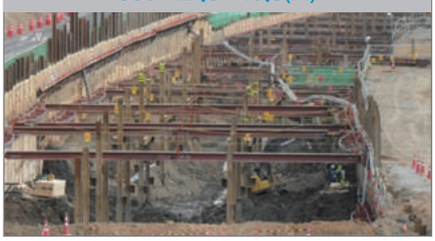
IPS 공법(강재량 635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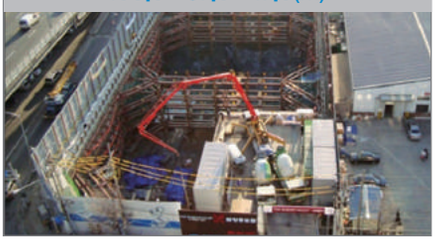
IPS공법 시공사례

IT컴플렉스 신축 공사현장
71.4×81.7×28(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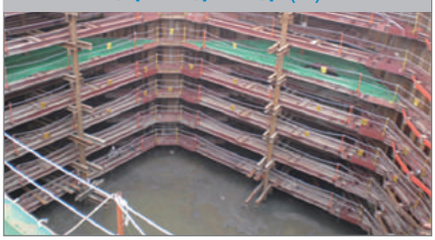
숙곡지하차도 개설공사현장
360×21.8×10.9(m)



가산동 다솔 스카이 공사현장
100.0×37.0×17.0(m)



김포한강로 전호대교 공사현장
31.0×26.0×25.0(m)



흙막이 가시설의 세계적인 표준인 IPS공법만이 가능합니다

- 미국, 중국, 일본과 기술수출 MOU체결
- IR52 장영실상 수상
- 2007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수상
- 2008 100대 우수특허제품 특허청장상 수상

IPS (주)써포텍 SUPPORTEC
TEL : 02-3463-0797
www.supportec.co.kr

DVM PLUS Ⅳ
고낙차 설계(110m)

DVM WATER
빌딩의 역풍을 고려한 설계

빌딩은 **똑똑하게,** 공간은 **쾌적하게**

똑똑한 빌딩을 위한 고효율 솔루션
삼성 시스템에어컨

DVM AHU
구획(Zoning) 공조설계
최적의 기류 설계

S-net
설비 통합 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감설계

삼성만의 첨단기술로 완성한 최적의 혼합공조 솔루션!

효율적 경제성
기존 중앙공조 시스템에 개별공조시스템을 대입,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 실현

편리한 관리
폭넓은 냉각수 온도로 안정적인 냉난방은 물론 통합제어장치를 통해 간편해진 관리

탁월한 안정성
수냉식 냉각탑을 통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DVM PLUS Ⅳ
초고층 빌딩을 위한 공조 시스템
- 공간활용도 높은 초고층 빌딩용 대용량 멀티
- 배정관, 고낙차가 가능한 자유로운 설치
- 한국지형에 강한 우수한 저온난방
- 손쉽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SMART CONTROL

S-net
에어, 조명, 전력 등
다양한 관리영역
통합제어시스템

DVM WATER
수열원을 이용한 안정적인 냉난방
- 냉각탑의 물을 수열로 하므로 외부환경에 영향받지 않음
-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않는 친환경 시스템
- 공냉식 대비 최대 46%의 에너지 절감효과
- 폭 넓은 냉각수 온도로 안정적인 냉난방운전이 가능

DVM AHU
고천정, 대공간 전용 솔루션
- DVM계열 실외기 + DVM AHU
- 차별화된 솔루션(절전, 청정, 유지)
- 대공간에서 더욱 높은 활용성
- 웰빙기술 SUPER NANO

365일 기분 좋은 바람 **삼성 시스템에어컨**

www.samsungb2b.co.kr
삼성전자 B2B(특판) 구매상담 : 1588-3536

삼성전자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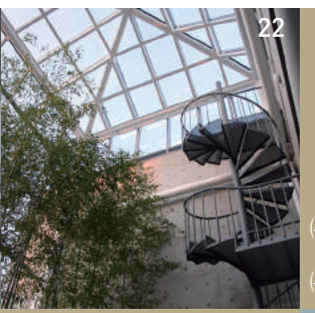
10
칼럼
새 회장에게 바라는 희망
최동규

11
시론
우리 협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_신춘규

2011문화라는 것 – 건축은 문화인가?_조인숙

13
만평
김낙중

16


22

14 **회원작품**
경상남도청사 별관
김정식 · 오호근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함인선
(주)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에이엔유

20 **회원작품**
개롱커뮤니티센터
우시용
건축사사무소 시공건축

26 **회원작품**
용연문
이병철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30 **회원작품**
판교세븐벤처밸리 I, II
안길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36 **회원작품**
옥동교육단지
김청영 · 구자선
희현 건축사사무소
+김원효
(주)원룡 건축사사무소

42 **특집**
토론회 지상중계_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60 **작품노트**
에코 갤러리
오섬훈

64 **작품리뷰**
오창 아임삭 공장과
청강대 창작마을 _신춘규
유정훈+박인수

28

32

74 **인터뷰**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_ 유 걸
최동규

78 **설계경기**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84 **연재 01**
프랑스 공공건축사업발주에
관한 법(Loi MOP)과 발주절차
이기용

연재 02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지상강좌
이윤하 · 김민철

98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알림

102 **태국건축사협회(ASA)**
2011년 컨벤션 참관보고서

105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해외건축 동향 [김은미]
통계

발 행 인 최영집
담 당 이 사 장양순, 신춘규
편찬위원장 최동규
편 찬 위 원 박인수 · 오섬훈 · 이용우 · 전진삼
취재 · 편집 최락청 팀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 – 55 건축사회관
우 편 번 호 137–877
전 화 대표 (02)3415–6800
팩 시 밀 리 (02)3415–6898~9
인 터 넷 http://www.kira.or.kr
인 쇄 (주)화신문화사 Tel : (02)2277–0624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Vol. 502 February 2011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1년 02월호 통권 5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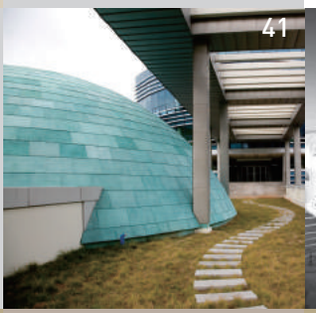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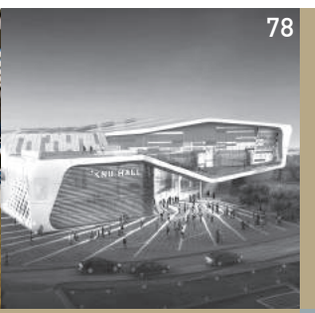
10
Column
Wish on the New President
Choi, Dong-kyu

11
Focus
Hoping for a New beginning for New President while thinking of our(KIRA) Future!
Shin, Chun-gyu

Architecture as Culture?
Cho, In -souk

13
Cartoon
Kim, Nak-jung


41


78

14 WORK
An Annex office of Government, Gyeongsangnam-do
Kim, Jeong-sik · Oh, Ho-geun +Ham, In-sun

20 WORK
Gaerong Community Center
Wooh, Si-yong

26 WORK
Yong-Yeon Gate
Lee, Byung-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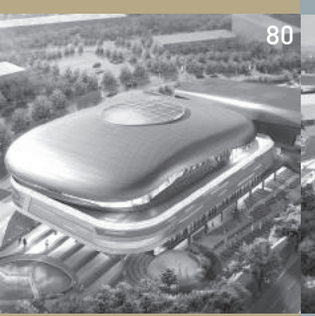
30 WORK
Pangyo 7 Venture Valley I, II
An, Kil-won

36 WORK
Ok-dong Education Complex
Kim, Chung-young · koo, Ja-sun +Kim, Won-hyo

42 SPECIAL ISSUE
Architecture, the Knowledge-industry

60 DESIGN NOTE
Ecogallery
Oh, Seom-hoon

64 WORK REVIEW
Aimsak Ochang Factory & Creation Village, Chungkang of Cultural Industries_Shin, Chun-gyu
Yoo, Jeong-hoon+Park, In-soo


80

82

74 INTERVIEW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_Yoo, Kerl
Choi, Dong-kyu

78 COMPETITION
Health & Sports Education Cent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84 SERIAL 01
French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Law (Loi MOP) and ordering procedure
Lee, Keeyong

90 SERIAL 02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Lee, Yun-ha
Kim, Min-cheol

102 REPORT FOR ASA(THAILAND ARCHITECT ASSOCIATION) CONVENTION 2011

105 ARCHITECTS' PLAZA
Kira News
Archi-Net
Overseas News Review
[Kim, Eunmee]
Statistics

Publisher	Choi, Young-jip
Director	Chang, Yang-soon & Shin, Chun-gyu
Committee Chairman	Choi, Dong-kyu
Committee	Park, In-soo & Oh, Seom-hoon & Lee, Yong-woo & Jahn, Jin-sam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98~9

새 회장에게 바라는 희망

Wish on the New President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임기 2년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체제가 2011년 3월이면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많은 건축사들은 솔직하게 회장이 누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필자도 편찬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출마후보 신상에는 다들 관심이 막중한데 막상 우리 건축사들에게 중요한 단체장 선거에는 왜 이리 무심할까? 아마도 전국에 있는 대의원 446명에 의해서만 선출되는 독특한 선거방식 때문에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있는 개업건축사가 8,181명이라니 5.5%의 대의원이 8,000여 건축사의 의중을 대표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40여 년 간 연속된 이러한 선출방법도 차 차기 회장선거 때부터는 전국에 있는 건축사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회장이 임기 중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희미해진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과 오랜 숙원이던 건축사협회 공제조합의 발족이라고 들었다.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로 되어 미가입 건축사들도 많은데 명실공히 건축사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이번 공제조합의 신설로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들었다.

또 현 협회 이사에게 신임회장이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들어보았다.

역시 공제조합의 활성화로 생기는 이익발생이 많은 건축사들에게 약간의 혜택이라도 가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건축물유지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멸실 과정까지 건축사가 간여하여 국민의 생명을 의료보험에서 관리하듯이 건물의 건강도 건축사가 관여하는 제도설립의 희망을 들었다. 이것을 통하여 17,000명이나 되는 건축사가 업무영역의 확대로 설계 이외의 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제도의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다.

또 여태껏 건축사협회가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 건설 산업의 일부로 인식되어온 설계업무가 문화 또 나아가 지식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건설 산업은 해외수주로 인해 국민들의 박수도 받고 국가의 지원도 받는데, 설계업무야말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정받아 당당하게 지식산업에 속한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일본만 해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인정하는 프리츠커 상 수상자 리스트에 벌써 몇 명의 일본건축가가 올라있지 않은가?

가장 강력한 해결이 필요한 주제들은 이미 「건축사」지 500호 특집에 게재된 주제로서 협회창립 후 40여 년간 괄목할만하게 변하지 않은 설계경기제도 개선(발주제도개선)으로, 실력 있는 건축사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야말로 건축계의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신임회장이 끈질기게 해결하고 나아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같은 중요성으로 공동기획주제인 공공건물의 감리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사후설계관리 제도도 올해에는 안착시키고 활성화 하여 설계자가 정당하게 현장에 나가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겠다. 결국 위에 언급된 몇 가지 주제들은 이미 희망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발주제도개선 및 감리제도개선 등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이라 회장뿐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다루어야만 승산이 있는 것으로 언제 성취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신임회장의 임기동안 또 다른 변화로 조금이나마 살만한 건축계가 되었으면 하고 그 선두에 서게 될 신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역주를 기대해본다.

우리 협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Hoping for a New beginning for New President while thinking of our(KIRA) Future!

신춘규 | Shin, Chun-gyu, KIRA/AIA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약력
-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 미 오하이오주립대 건축, 도시계획 석사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분과 이사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우리의 자화상을 보면 결코 간단하지 않다. 건축사협회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고 또 새건축사협의회가 있다. 건축사가 있고 건축가가 있다. 가협회보다 5년을 늦게 시작한 덕분에 빼앗긴 것도 많다. 또 제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았고 그래서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도 많다. 지금도 상처투성이 뿐이고 쉽게 풀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건설에 중점을 둔 국토해양부에 등록이 된 우리는 문화계에서 찬밥이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없다. 또한 외부로는 정책적으로 그동안 건설과 개발에 초점을 두어 총력을 다해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은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할 만큼의 자부심이 가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국민총소득 등으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자부심 속에서도 문화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 협회가 가야할 방향은 진정 어떤 것일까? 참 쉽지만은 않다. 오래전 도를 닦은 약사친구가 한 말이 항상 가슴에 남는다. **"약은 정말 아파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복용하는 것이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파온 기간만큼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야 하는 기간 동안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또한 빠른 치유를 원하기 때문에 약을 써서 무리를 하지. 돌아가는 동안의 고통을 참고 넘기고 나면 몸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우리도 불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목표를 위해서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아프더라도 길게 돌아가며 아픔을 참을 수 있는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면 고통스럽게 돌아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건설 중심의 하드웨어적인 개발 논리에서 떠나 지식문화로서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시대로의 패러다임이 마련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가 건축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건축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존경이 궁극적으로 보상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건축은 진정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다. 그 자산을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존도구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제도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눈앞에 보이는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서 더 큰 것들을 잃어왔다. 사회적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우리 협회가 진정 사회를 위한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자연적으로 목소리가 커져갈 것이라고 본다. 반복되어온 파행적인 주택정책에 대해, 신도시정책에 대해 한 번도 우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 본적이 없다.

이제 협회는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사회적 리더들을 모아 사회에 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한 회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강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기르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통해 고갈된 국내시장을 넘어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선진국을 닮으려고 하는 모습보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회원들이 쉽게 진출이 가능하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내적으로는 회원들의 피부에 닿는 일들을 했으면 한다. 강한 협회가 제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비회원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냄으로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계속교육의 제공과 출판사업의 다양화, 협회회관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등 회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발전시켰으면 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한 명의 회장이 협회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참된 리더들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성숙하고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협회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건축이 지식문화로서 재인식되고 우리가 존경받는 날을 그려본다.

2011문화라는 것– 건축은 문화인가?

Architecture as Culture?

조인숙 | Cho, In-Souk, KIRA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수료 (석 · 박사)
- 독일 뮌헨대 및 뮌헨공대 수학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대통령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제3기, 제4기)
-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

"건축이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결정체"라고 모두가 공감한다. 또한 "건축을 짓는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그것을 다루는 건축사나 기술자, 기능자들의 문화적인 솜씨와 안목으로 만들어져서 고유의 역사문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인류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문화로서의 건축이다."라고 재천명 (再闡明) 한다. 이러한 건축이 현실에서 문화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 통념을 바꾸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은 뮤지컬제작사 대표, 시인, 미술연구소장,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및 발레단이 수상했다. 문화예술상이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가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나서서 건축사를 적극 추천해서 심사했으나 건축분야는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건축분야 심사위원은 네 사람의 미술계 인사와 한 사람의 건축가였다.

이렇듯 사회가 인식하는 문화 관련분야란 아직까지는 공연예술과 미술 · 설치관련 및 문학창작 등만이 해당된다. 소리를 내고 율동을 해야 문화지 건물을 환경과 어울리게 지어서 도시를 가꾸는 것은 문화로 미처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기존의 건축유산을 찾아내어 조사연구하고 수리하여 복구하며 보존하는 일에서 어려운 과정은 간 곳 없고 그 열매인 결과만이 오로지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 유산이 누가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로 남았는지에 대한 배려란 전혀 없다.

문화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인적구성인 청와대 비서관, 문광부 장 · 차관 및 그 후보들과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가 언론인, 예능인 또는 전문정치인 출신이다. 그러니 이들이 문화로서의 건축을 위한 법안 수립이나 예산수립 및 예산집행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각종 문화회관 등의 운영도 지휘자 또는 언론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며 게다가 문광부 해외 문화원장들이란 대개 정권 쟁취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 및 행정공무원들뿐이다. 국제조직인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유네스코문화예술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정치바라기나 공연예술계 인사다. 그런 자리에 건축계가 기용되려면 아직 한참 가야한다고 본다.

한편 문광부는 건축을 문화로 인식한다는 표현의 하나로 참여정부 이래 공간문화과를 신설하여 주로 근 · 현대 건축물의 재활용 및 창작공간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건축에 문화라는 옷을 입히려 나름 애를 쓰고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해양부도 건축문화과를 두어 한옥의 보급에 대해 각종 연구를 한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에는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뭘 하는 조직인지 위원 당사자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광부 등록단체인 건축가협회도 건축을 문화로 인식시키기 위해 사회와의 다리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깝게도 역대 회장들 그 어느 누구도 임기 종료 후 정부훈장 수여 받은 이외에 사회나 건축계를 위한 공로를 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의 문화 활동이란 대개는 어쩔 수 없는 용역의 먹이사슬관계 속에서의 활동뿐이었다.

어쩌다 건축사가 문화예술관련 기관장 후보나 정부표창 후보가 되어 동료건축사가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심사위원과 학맥이나 친분관계가 없으니 만들어 놓은 상이나 다된 자리마저 다른 분야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 가우디, 라이트, 웃존, 피사돈, 휀실베르가 공동제작한 건축토끼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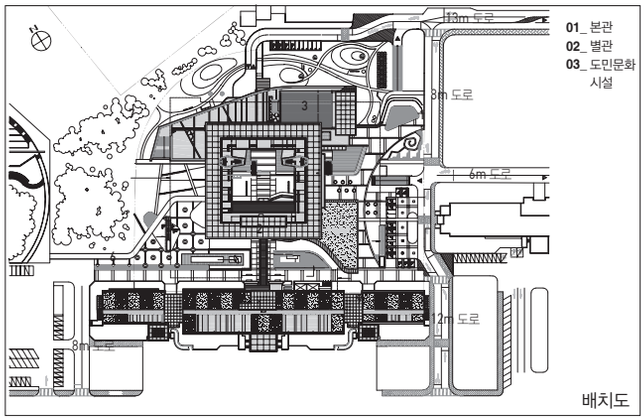
김낙중 | **Kim, Nak-jung**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약력
- 홍익대, 미 Pratt 건축대
- 서울대 건축학과 박사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가 협회 작품상 수상

경상남도청사 별관

An Annex office of Government, Gyeongsangnam-do

Project team | moonpark dmp_Park, Jong-in·Yang, Hui-seok ·Won, Heung-jae·Lee, Byeong-uk/SUNJIN_Kang, Jeon-ung ·Choe, Seong-hwan· Lee, Dong-ho·Kim, Seung-hui/A&U Design Group
Client | Gyeongsangnam-do Office
Location | Gyeongsangnam-do Changwon-si Uichang-gu Sarim-dong
Site Area | 19,987.8m^2 Building Area | 6,156.36m^2
Gross Floor Area | 32,706.56m^2 Floor Area Ratio | 163.63%
Building Coverage Ratio | 30.8% (Only an Annex)
Structure | R.C
Electrical Engineer | Sukwoo Eng. Inc.
General Contractor |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3, 5F
Finishing Materials | T24 Low-E Pair Glass, T30 Granite stone, T3 AL. Sheet, Exposed Concrete
Photographer |E, Jae-seong Cost | not disclo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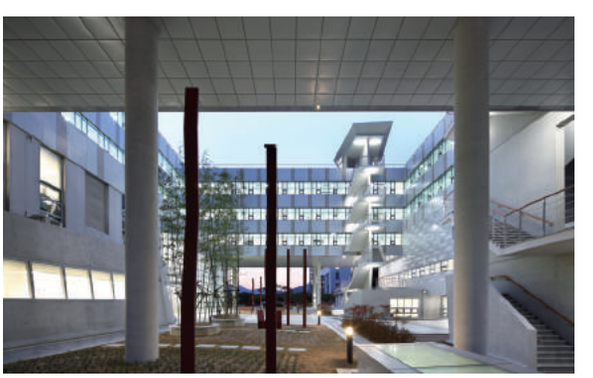
배치도

Architects — **Kim, Jeong-sik, KIRA·Oh, Ho-geun+Ham, In-sun, KIRA**
김정식 정회원 · **오호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 **함인선** 정회원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이엔유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새롭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업무환경이 바뀌고 사용자들의 시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청사가 한계에 다다른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지자체의 청사가 호화청사 논란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슈를 생산해내기도 했다. 그런 이슈는 대게 건축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 왜곡된 경쟁 속에서 건물의 바깥모습을 보다 자극적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던 건축인들의 변명이 한 몫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3년 전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됐던 경상남도청사는 다른 대부분의 신축청사와 달리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짓지 않고 필요한 면적만 증축하면서 기존의 청사는 내부 설비만 개보수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알뜰한' 방법으로 입찰의 요구사항이 정리되었다. 그래서 건물도 외관의 화려함보다는 필요한 기능과 주변에 편안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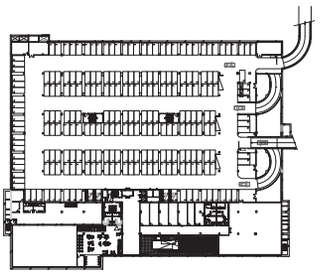
새로운 도청사가 들어서는 자리는 너무도 분명한 도시의 논리가 있었다. 위성에서 본 사진도, 시가지 지도도, 그냥 땅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도 모두 하나의 선명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근대적 계획도시라고 자랑하는 창원의 곧고 반듯한 도시체계가 그것이고, 더욱이 청사의 위치는 그 도시체계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가로축이 시작되는 자리에 있었다.

개보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기존의 청사는 그러한 도시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PC 콘크리트패널의 모듈이 반복되는 좌우대칭형의 선형 건물이다. 이번에 새로 계획되는 건물은 그 뒤에 들어서는 별관으로서, 이 건물 또한 정방형의 기본도형이 도시축의 결절점으로 정의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정방형의 형상은 중정을 가운데 두고 편복도로 순환되는 사무시설의 매스가 되어 업무기능에 충실한 평면구성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도시적 스케일의 맥락을 연결하는 이 정방형 매스는 상부로 들어 올려져 땅과 면한 저층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새로 지어진 건물이 주변의 미술관과 도청의 여러 도민시설을 자연스럽고 유연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장소가 되기를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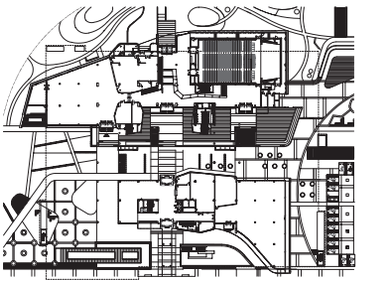


There have been quite many new constructions of local government buildings during past few years. It seems the reason is that the work environment has changed and the level of expectation from the citizens went up. Also, the existing government buildings met limitations being quite old and too small. Meanwhile, there was a socially negative issue on some extravagant local government buildings. Even the motivation of such criticisms were more political rather than architectural, it is true that the architects are also partially responsible in having decorated the external with more stimulating approach to win the hot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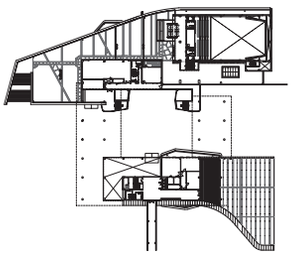
'An Annex Office of Government, Gyeongsangnam-do' had been ordered on a design & build Turn Key basis three years ago. Different from other new government buildings , Gyeongsangnam-do government building project was cost-saving type project. Gyeongsangnam-do government wanted the scope to be limited to the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 and the extension of only necessary area. Therefore, the external look of the building could more concentrate on required functions and harmony with surrounding than glamorous look. The location of the new Gyeongsangnam-do government buildings clearly had the logic of the city. The photograph taken from the satellite, the street map and the city landscape all had single clear impression. The straight street system with good alignment is that impression. Changwon City is the first city in Korea built by modern urban planning. Furthermore, the location of project site was on the beginning point of street axis, which is the most vital street in the city system. The existing building to be renovated is a symmetrical linear type building. The building consists of repeating precast concrete panels accepting the order of the city. The new building to be added is the annex behind the existing building. This new building is also planned to become a node of city axis by its basic square shape. The mass of the administration space is square with a courtyard in the center and the balcony type corridor will circle the courtyard. Accordingly, the unit-plan meets the work function requirement in an efficient way. The rectangular mass is lifted upward so that the lower floor facing ground will be free. We hope the new building will become an open space to many people by linking the surrounding Art Gallery and other facilities as the natural and flexible spaces for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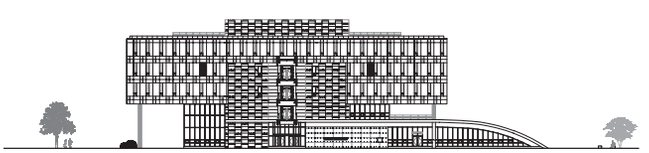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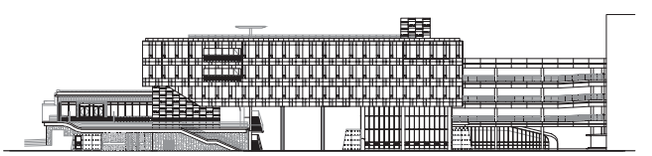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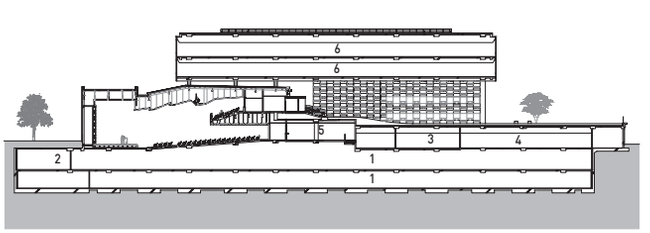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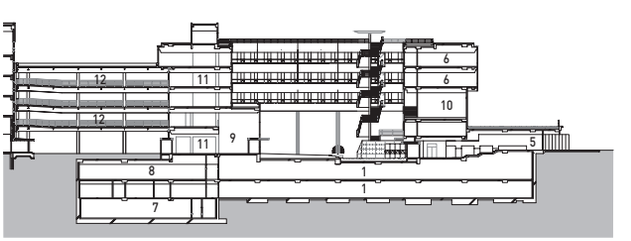


좌측면도

01_ 지하주차장
02_ 공조실
03_ 주방
04_ 식당
05_ 전시홀
06_ 업무시설
07_ 저수조
08_ 홀
09_ 로비
10_ 정보센터
11_ ELEV. 홀
12_ 연결 브릿지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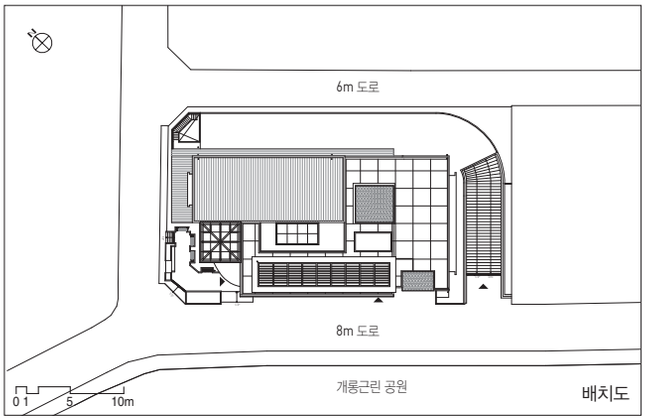


단면도

개롱커뮤니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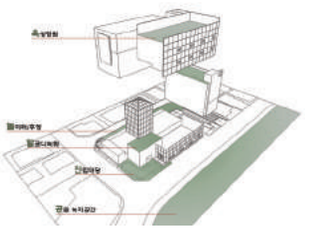
Gaerong Communit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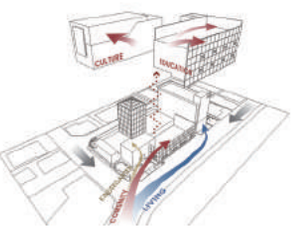
Project team | Wooh, Jin-woo · Jin, Seong-il · Song, Su-yeon · Hong, Seock-kyung · Chae, So-jin · Chae, Hyun-woo
Client | Chamshil Presbyterian Church
Location | Seoul Songpa-gu Garak-dong 194-16
Site Area | 1,996.00m^2 Building Area | 1,078.54m^2
Gross Floor Area | 7,067.33m^2 Building to Land Ratio | 54.04%
Floor Area Ratio | 197.33%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eoul Architects & Structural Eng's Ass'n
HVAC Engineer | Samwoo MEC
Electrical Engineer | Shinwoo E&C
General Contractor | ELITE co.
Building Scope | B2, 4F
Finishing Materials | Exposed Concrete, Metal panel
Photographer | Jeong,Jeong-wong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우시용 — 정회원 건축사사사무소 시공건축
Architects—Wooh, Si-yong, KIRA





전경

잠실교회는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 교회는 대지가 협소하여 교육관의 증축이 불가능하여 교회의 동측 길 건너 개롱공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대지를 구입하여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교회에 필요한 교육관시설은 어린이집, 북카페, 커피숍, 교육예배실, 세미나실, 소공연장, 선교관, 지하주차장 등으로 복합시설이다. 일반적인 교회의 교육관은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용이 빈번하나 평일에는 이용도가 떨어진다. 잠실교회는 교회의 교육관이 평일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역문화센터로 이용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갖도록 계획되기를 원하였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닌 열린 공간이 들어서므로 교회와 지역 간의 관계 회복과 새로운 질서 체계에 유의하였다. 계획되는 커뮤니티센타를 매개로 한 주변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모색하여 건축물이 지역의 공생과 화합의 필연적인 존재가치를 갖도록 하였다.

주택의 마루처럼 모든 동선을 끌어안는 1층의 메인 홀은 북카페로 교육관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1층의 북카페는 2층의 커피숍과 막히지 않은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시각적인 개방감을 주고 남측의 투명한 유리창은 건물 전면의 개롱공원의 녹지와 시각적 연계를 이끌어낸다. 낮에는 공원의 풍광을 담고 밤에는 빛을 안는 투명한 매스가 주민들의 시각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1층에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어린이집이 있고, 3층, 4층은 교육실로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용하지만 평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예술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 제공된다. 1층에서 4층까지 연결되는 중앙계단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동 축이다. 상부에는 천창을 두어 개방감을 주고 빛이 가득 차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3층의 대나무 실내정원은 건물 내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원형계단으로 지붕의 테라스까지 연결된다. 지붕에는 파고라를 설치한 휴게장소를 마련되어 하늘의 빛과 개롱공원의 전망을 받아들인다. 지하주차장은 평일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Jamshil Church is located in Garak-dong, Songpa-gu, Seoul. The church had decided to purchase new site for its learning center across the main street to the east near Gaerong park, because it has comparatively small land to accommodate its new facility. This learning center houses a complex of facilities, such as children's home, book cafe, Coffee shop, chapel, seminar room, small performance room, missionary office and basement parking garage. This church facility is used heavily in Sunday but less in weekdays. Therefore, Jamshil Church wanted this learning center to be designed as a community center for surrounding neighbors on weekdays, thus can give an image of a church which serves neighboring community.

So, careful considerations were given in the selection of facilities from the beginning which can restor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neighboring community and reflects its various needs. As a result, this learning center becomes a symbol of the harmonious coexistence between the church and the neighb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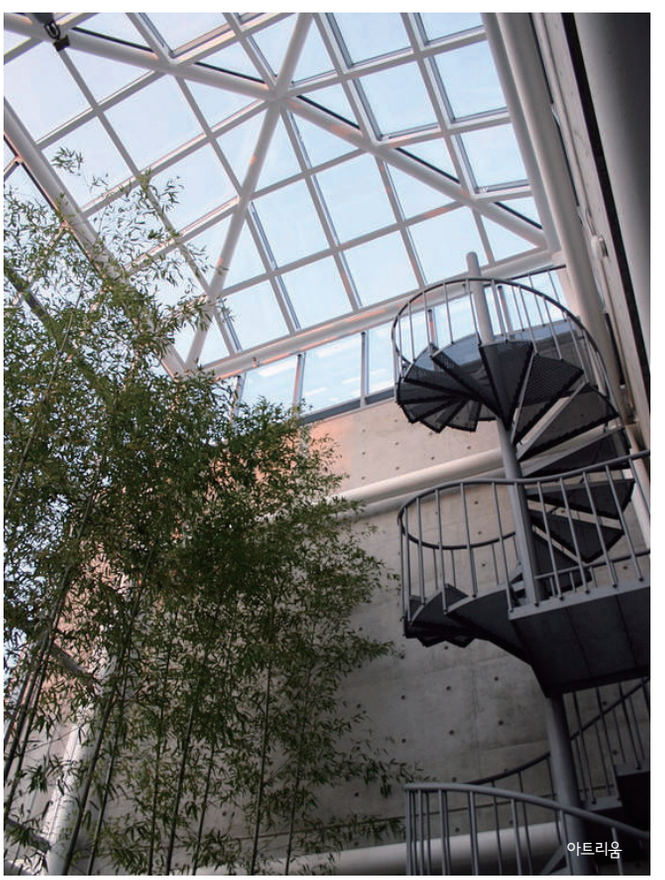
The main hall in the 1st level, somewhat similar to that of "Maru" in traditional Korean residence which takes all traffics at the heart of the house, is a book café and works as a salon at the learning center. A big open space connects this book café with the coffee shop at 2nd floor, and that gives as pacious feeling to the visitors. Furthermore, clearglass windows in the south visually connect greens in the Gaerong Park located in front of the building. This visual setting provides a splendid daytime scenery of the park and a glittering nightscape of the lighted building to the user and the nei ghbor.

At 1st floor there is a children's home which has separate entrance and there are classrooms at 3rd and 4th floor. This building is opened to the neighbor on daytime as a lifetime education center for cultural, artistic activities and is used by the church on weekends. Central stair which connects 1st with 4th floors inside the building is an important axis of movement for the user. At the top of this stairway a skylight is designed to give open feelings to the user and to fill this space with abundant sunlight. At 3rd floor, there is a bamboo planted inne court which is used as a rest area and a small spiral stair leads user to the roof terrace from here. At the roof terrace, user can enjoy the open sky and full view of the Gaerong Park. There is also a rest area at the roof covered with pergola. Basement parking space is opened to the neighbor on week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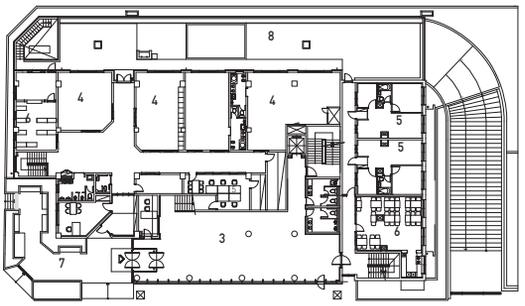
어린이집 야외학습장

북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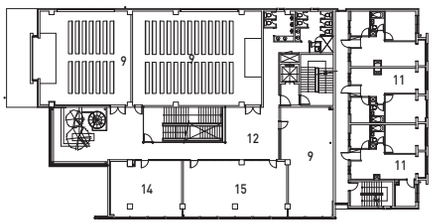
동측 전경


아트리움

옥상 하늘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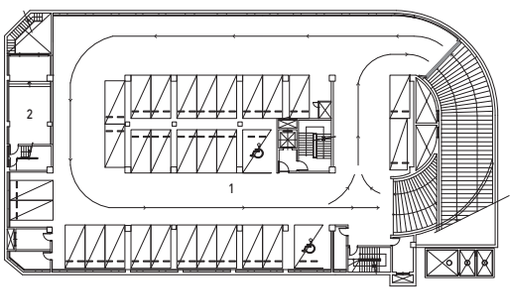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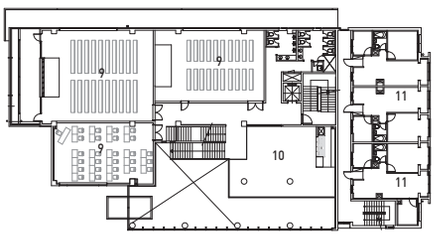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01_ 주차장
02_ 다목적실
03_ 로비
04_ 보육실
05_ 선교관
06_ 식당
07_ 공개공지
08_ 어린이집
야외학습장
09_ 예배실
10_ 휴게실
11_ 선교관
12_ 홀
13_ 다목적 강당
14_ 교사실
15_ 사무실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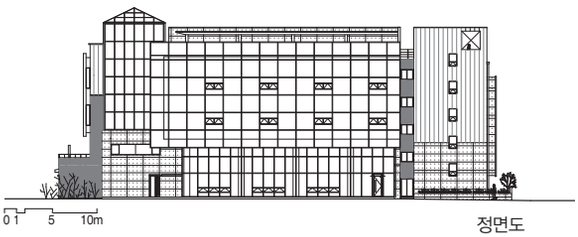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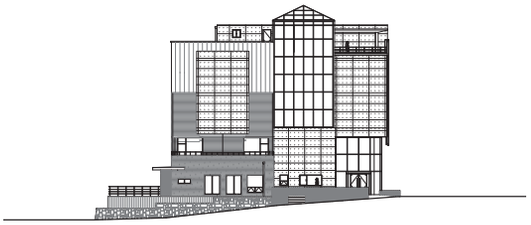
커피숍

중앙 계단

다목적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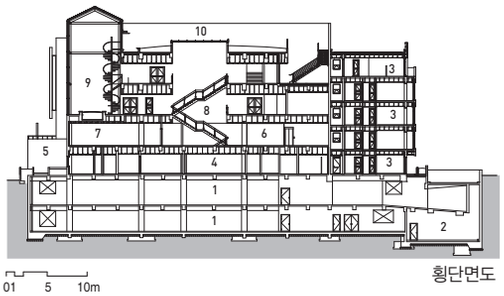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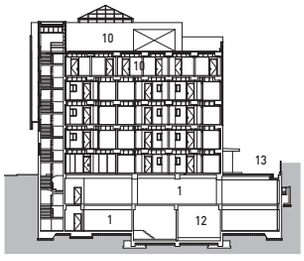


좌측면도

중앙 계단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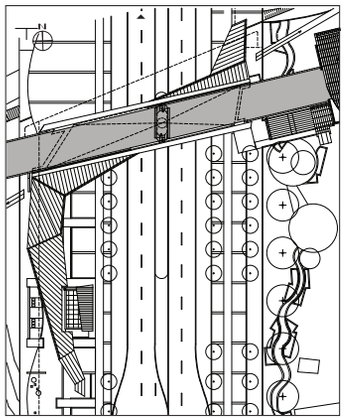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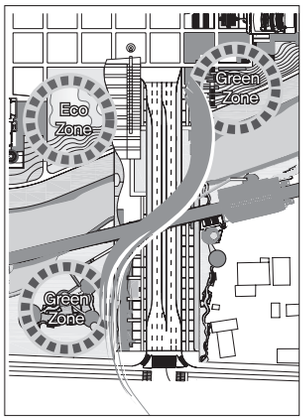
01_ 주차장
02_ 물탱크실
03_ 선교관
04_ 교사실
05_ 공개공지
06_ 휴게실
07_ 예배실
08_ 홀
09_ 아트리움
10_ 옥상하늘마당
11_ 기계실
12_ 전기실
13_ 어린이집
야외학습장

용연문 Yong-Yeon Gate

Project team | Lee, Young-soo · Yang, Min-suk · Hong, Seung-woo
Moon, Sun-ah · Jeon, Soo-jeong
Clinent | Yongin City
Location | Gyeonggi-do Yongin-si Cheoin-gu Jung-budaero 735
Site Area | not disclosed Building Area | not disclosed
Gross Floor Area | not disclosed
Building to Land Ratio | not disclosed
Floor Area Ratio | not disclosed Structure | Steel, R.C
Structural Engineer | QS Consulting Structural Engineers Co.,Ltd.
Lighting Consultant | View Lighting International Co., Ltd
General Contractor | QS Engineering Construction Co,. Ltd.
Building Scope | not disclosed
Finishing Materials | Aluminium Sheet, Aluminium Zinc Board
Photographer | Lee, Won-eun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및 평면도



Concept

이병철 — 정희원 (주)이가플랜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Lee, Byung-chul, KIRA

이 프로젝트는 용인시청이 위치한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진입로에 정문을 계획하는 것이다. 진입로를 가로지르는 경전철 교량의 형태적 · 시각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정문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거시적 도시계획 관점에서의 개념으로는 녹지 개념의 연속성을 위해 형태 컨셉을 도출하고, 미시적 관점으로는 기존 안내소의 정체성(identity) 유지와 기존 페이빙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능적 측면에서의 주 진출입 동선과 경전철 역사와의 동선 연결의 매개체로서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외장재료는 메탈릭 단일소재로 강조하여, 주변과 차별화함으로써 조화를 꾀하는 역발상적 개념을 반영하였다.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계획을 형태계획 시점부터 개입시켜, 보다 실효적인 야간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적, 건축적 검토 없이 도심에 세워지는 고가교량들을 지나치면서 무심히 불평했을 자신을 뒤돌아보며, 1년 6개월여에 걸쳐 결코 쉽지 않게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가 도시경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ur project is to plan a design of the main gate of Cultural Welfare Administration Town located in Yongin City Hall.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alleviate the visual and structural obstacles of the LRT track that cuts across the main path into the City Hall. Another objective of ours is to allocate the symbolic meaning of the main gate.
Looking from a macroscopic urban planning perspective, the form of the main gate had been extracted for consistency of landscape. The identity of the existing information centre and the correspondence of the original path pavement are both considered looking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From a functional aspect, the convenience as well as the capacity of flow of human traffic are established by connecting the Yong In City Hall Station and other facilities together in the form of harmonious design. The external side of the main gate is emphasized by a simple implementation of metallic material. The method differentiates the design of the gate from surrounding facilities displaying adequate mixture among constructions with innovative design. Also, the lights are implemented sufficiently in order to display sophisticated and urbane night view.
As I look back, I have always neglected the constructions that had been initiated without architectural and landscape considerations. Over the painstaking process of a year and six months, I personally wish that the project would become the starting point that truly improves the overall scenic view of the urb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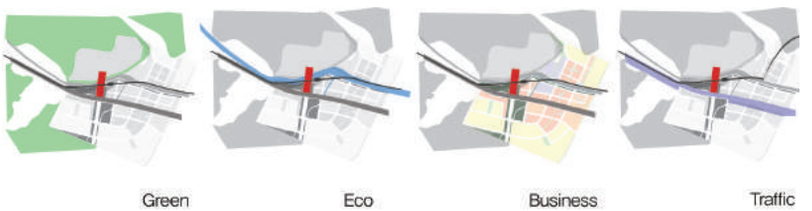
전경

진입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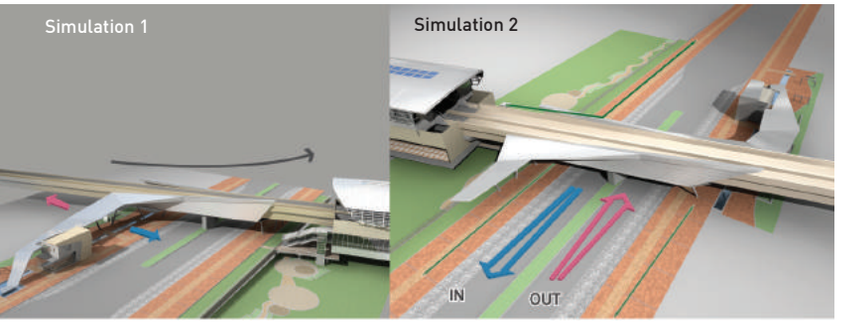
측면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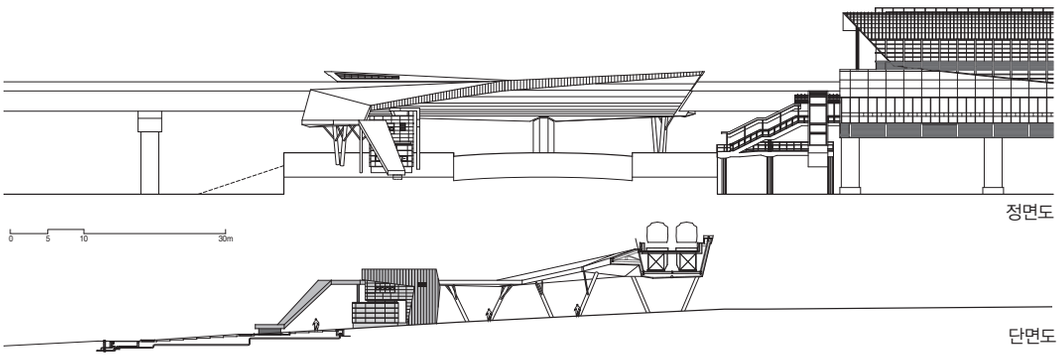
교량하부

안내소 cascade



안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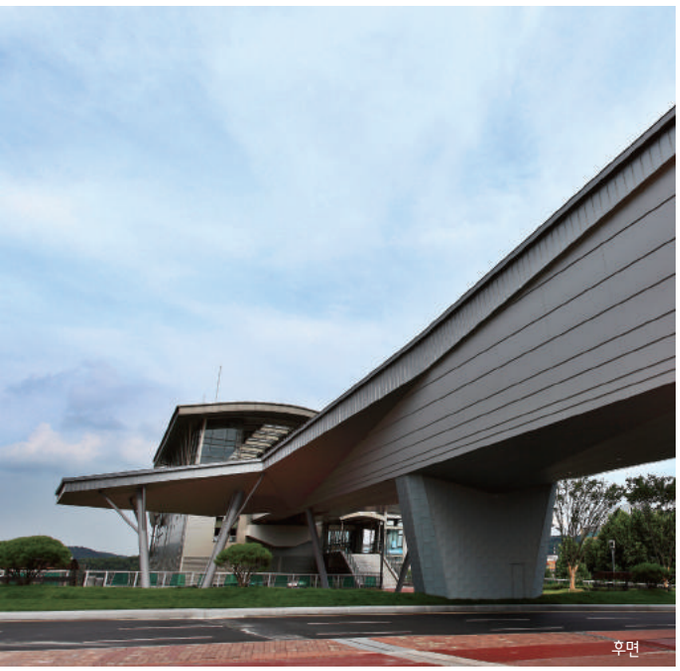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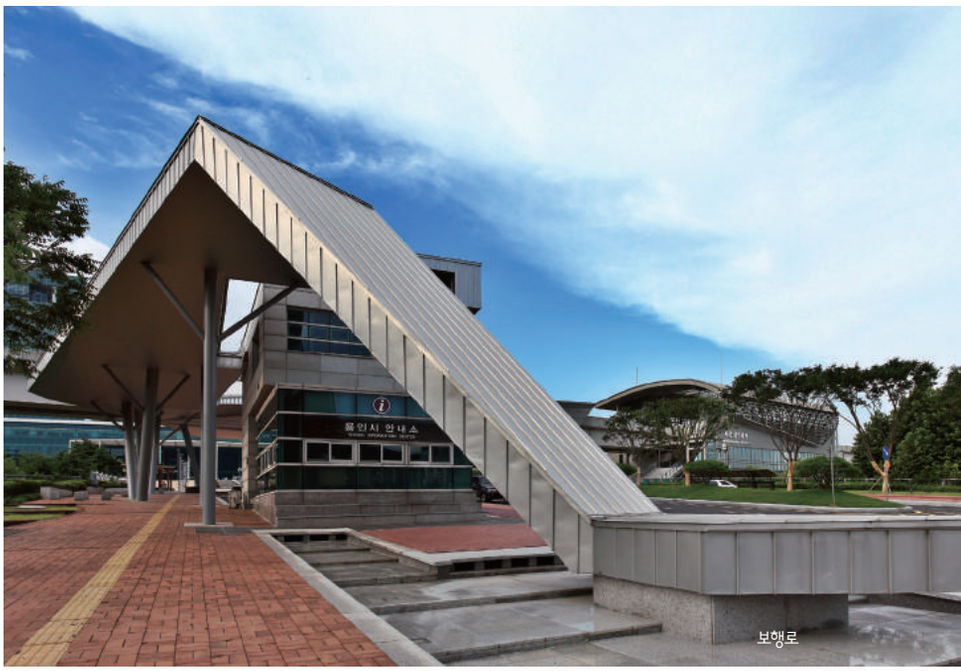
정면도

단면도

시청에서 본 전경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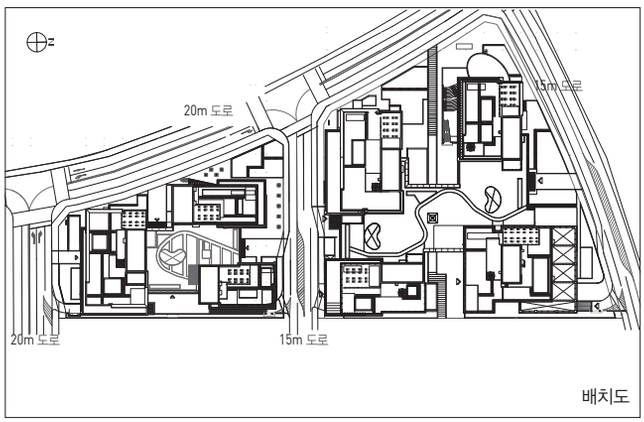
보행로

판교세브벤처밸리 Ⅰ, Ⅱ

Pangyo 7 Venture Valley Ⅰ, Ⅱ

안길원 — 정회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An, Kil-won, KIRA

Project team | Choi, Chang-seop·Park, Myung-hyup·Chung, Ji-yung·Cho, Gyu-jung·Yun, Mi-gyung
Client | Pangyo Venture Valley Co.,Ltd
Location | Gyeonggi-do Seongnam-si Sampyeong-dong 625,633
Site Area | 19,749.6m^2 Building Area | 11,517.89m^2
Gross Floor Area | 103,162.17m^2 Building to Land Ratio | 58.32%
Floor Area Ratio | 339.74%
Structure | R.C, S.R.C
Structural Engineer | I'ST Structural Solution
HVAC Engineer | Mokwon Engineering Co., Ltd
Electrical Engineer | Cheileng Co.,Ltd
General Contractor |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3, 10F
Finishing Materials | THK24 colored double glazing+THK18 inorganic ceramic tile
Photographer | Kim, Jae-yoon Cost | 130 billion KRW



배치도

2006년 6월 판교테크노밸리 PF사업중의 일환으로 판교테크노밸리 C-2블럭에 대하여 경기벤처협회를 대주주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인 판교벤처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성검토보고서, 계획설계안을 제출하여 사업권을 획득하였다.

당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임대목적의 업무시설이 아닌 기본설계 초기단계부터 37개의 입주사가 확정된 37개사의 사옥개념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각 회사의 업무특징 및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을 창출하는데 노력하였다.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총 7동으로 구성된 판교세븐벤처밸리는 4개의 사옥사동과 각 층별로 사옥의 개념을 가지는 3개의 집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 1층의 직원식당, 체력단련실, 수면실, 각종편의시설 및 지상 1층의 약 10여개의 대 · 중 · 소 회의실을 구성하여, 중,소규모의 벤처회사들이 보유하기 힘든 실들을 공유하고, 2층 이상의 층에는 각 기업의 전용업무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하선큰 / 필로티 공간 / 각동을 연결시키는 1층로비 상부에 대규모의 휴게데크 / 각동 옥상의 옥상정원 등을 구성하여 입체적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업무환경을 구성하였다.
전체적으로 7동의 디자인을 유사하게 통일시킴으로서, 개별건물로 보이기보다는 7동이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되어 판교테크노밸리 내 랜드마크 건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였다.

For C-2 Block of Pangyo Techno Valley as a part of the Pangyo Techno Valley PF, Pangyo Venture Valley Co.,Ltd whose major share holder was Gyeonggi Venture Business Association, was formed in June, 2006, and obtained a franchise after submission of a feasibility study and schematic design.
Notably, this project was not intended for leasing, but as headquarters of 37 different companies confirmed to move in the complex; therefore, special design strategies were conducted from the early design stage to provide optimum working environment to accommodate each company's needs and working philosophy.
Pangyo 7Venture Valley Ⅰ, Ⅱ with 10 stories above ground and 3 underground levels is composed of 4 headquarter towers for 4 companies and 3 towers which other companies takes one floor each as a headquarter.
It features a variety of amenities including a staff cafeteria, a gym, and a nap room at the first basement level, over 10 variously-sized meeting rooms to share with other companies at level 1 that are normally difficult for the small-medium sized venture companies to have their own, and office spaces of each company from level 2 and above.
Also, resting spaces are provided at multiple levels to create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throughout the complex featuring a roof garden at each tower and a large-scaled lounge located at the mezzanine level connecting the basement sunken plaza, piloti space, and each tower altogether.
Each of the 7 towers has similarity in terms of design for them to be perceived as one group aiming to become a landmark building of Pangyo Techno Valley.

벤처밸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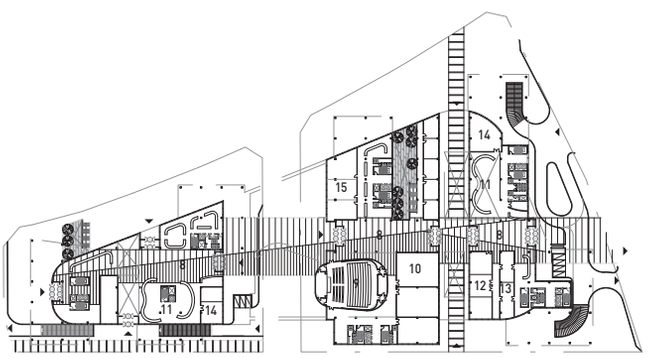
벤처밸리 전경

벤처밸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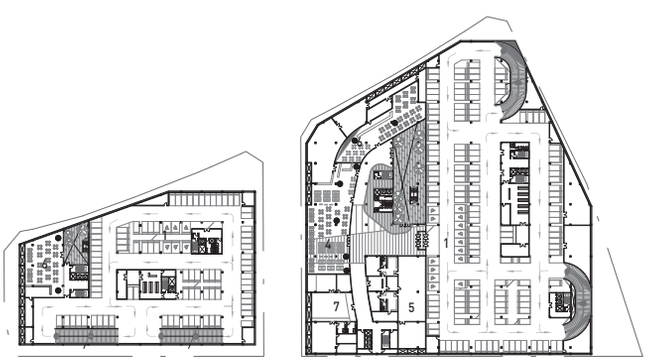
벤처벨리 주 출입구

벤쳐밸리 전경

01_ 주차장
02_ 기계실
03_ 전기실
04_ 식당
05_ 휘트니스센터
06_ 카페테리아
07_ 유아보육시설
08_ 로비
09_ 대회의실
10_ 벤처컨설팅
11_ 전시홍보실
12_ 금융기관
13_ Storage 서비스
14_ 접견실
15_ 신기술 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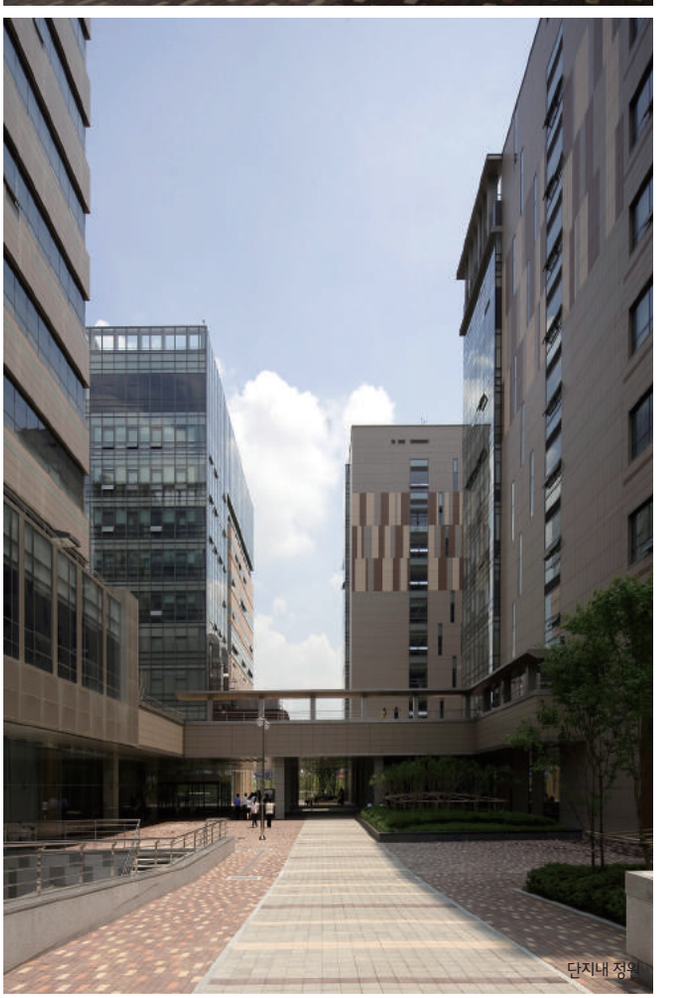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3층 평면도

단지내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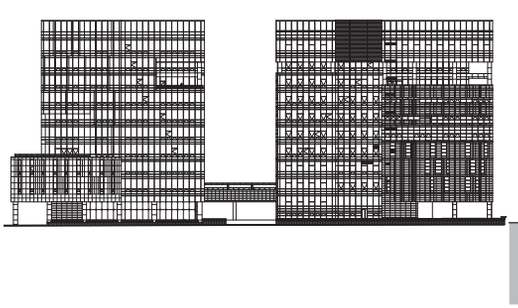
단지내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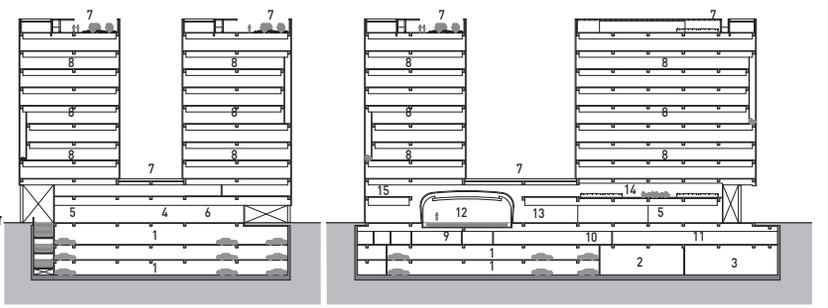
단지내 선큰

단지 내부 전경

단지 내부 전경

01_ 주차장
02_ 전기실
03_ 저수조
04_ 홀
05_ 신기술영광실
06_ 휴게라운지
07_ 옥상정원
08_ 연구 / 업무시설
09_ 유아보육실
10_ 카페테리아
11_ 식당
12_ 강당
13_ 벤처스트릿
14_ 정원
15_ 휴게 라운지


입면도


단면도

밴처밸리 중앙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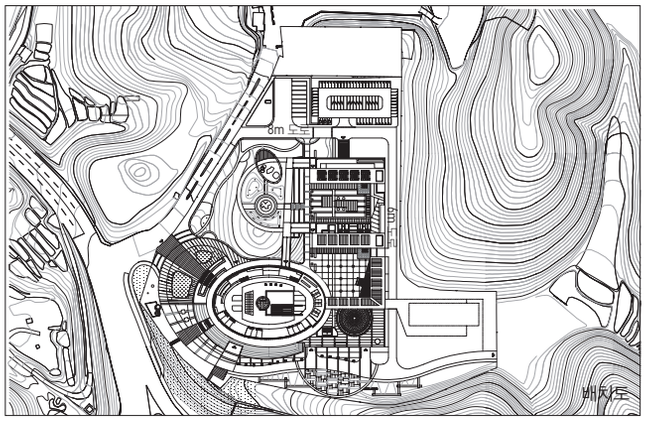
밴처밸리 중앙 로비

옥봉교육단지

Ok-dong Education Complex

김청영 정회원 · 구자선 – 희헌 건축사사무소 + 김원효 – 정회원 (주)한림종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Kim, Chung-young, KIRA-koo, Ja-sun+Kim, Won-hyo, KIRA

Project Team | Heehyun_Koo,Tae-hyeong · Yang, Mi-sun · Lee, Ji-hye · Oh, Moon-jung / Wonryeong_Hong, Seung-tae·Oh, Yong-du
Client |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Location | Korea Ulsan Nam-gu Ok-dong
Site Area | 44,182.00m² Building Area | 6,971.95m²
Gross Floor Area | 34,394.90m² Building to Land Ratio | 15.78%
Floor Area Ratio | 45.64% Structure | R.C, S.C
Structural Engineer | Moa Consulting Engineers
HVAC Engineer | Doosungmef Building Scope | B2, 6F
Electrical Engineer | SM Engineering & consultant Co.Ltd
General Contractor | Lotte Engineering & construction
Finishing Materials | Pair Glass, Titanium Zinc Plate, Oxidized Copper Plate
Photographer | Yoon, Chun-su Cost | not disclosed



에코밸리(eco-valley)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자연을 끌어들이고…', 즉 사람이 활동하는 각각의 건물(과학관과 울산교육발전연구원)에 생태길(eco-road)과 옥상정원(햇빛마당,달빛마당)을 도입함으로 개별적 생태축을 형성하는 것이며, '자연과 호흡하며…' 생태연결통로(eco-bridge)는 각각의 건물과 대지내의 자연(바람의 언덕)과 대지외의 자연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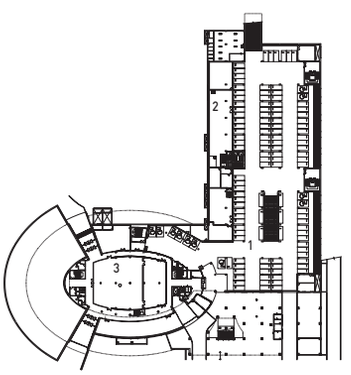
사이언스 밸리(science-valley)는 자연과 과학의 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과학을 탐구하며…'는 탐구의 시작인 호기심 유발을 위한 형태적 표현으로 과학관의 여러 겹(소요실로 구성된 외부 겹과 복도와 홀로 구성된 겹, 내부실 소요실 또는 아트리움으로 구성된 겹)은 양파를 까면 계속된 양파의 겹이 나오듯이 과학 탐구에 대한 호기심 유발의 장치이다. 밤시간대도 개방하는 달빛마당과 천체관측돔, 천체관측실을 통해 사람과 우주와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여 과학의 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외부공간 계획 (Exterior Space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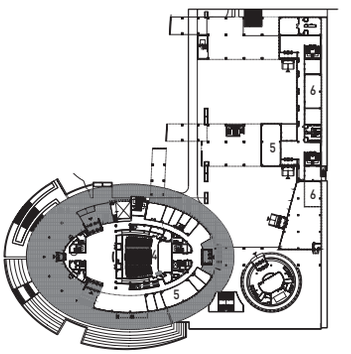
기존의 지형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한층 더 나아가 활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수목보존지구와 연결된 능선 그리고 삼호산 사이의 골에 건물을 자연스럽게 담고 기존자연과의 연결로를 설치하여 소통하며 과학관과 울산교육발전연구원 사이에 바람의 길을 형성하여 자연을 받아들이고 건물저습지를 막아서 생태연못을 형성하여 학습의 장소로 이용함으로 자연의 요소(녹지, 바람, 물)와 건물, 사람이 자연스러운 어우러짐을 형성하는 것이다.

With a theme of the Eco-Shadow, an elevating expression and an eco-friendly recycling energy to closely connect nature, man and science are actively introduced as an elevated factors and used as an educational purpose. A close connection introduces various elevating factors of a vertical and horizontal sphere and a progressive dynamics is expressed through a slant factor(an ecological way). Through a shade, a memory into an ecofriendly ecological space is recreated on the elevation and for the part of eco-friendly recycling energy, 4 factors are reflected into an elevation and they are used as an educational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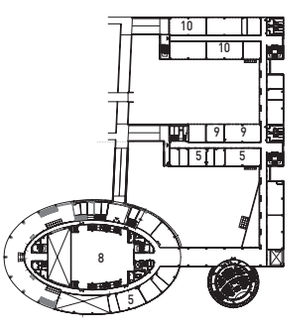
-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System: installing solar panel on the elevation, generating an electricity and using for heating.
- Photo-duct system to use a light: A natural light is accepted with a prism, transmitted into a toilet or an underground by the photo-duct and plays a role for a sterilization through an ultraviolet as well as a light.
- System to use reusing liquid and rain water: the water and the rain water of an artificial low swampy place(ecological learning place) are collected and used as water for rinsing and water for cleaning.
- Heating & cooling system to use geothermy: by means of a difference of the ground temperature, it is used as a cooling in the summer and a heating in the winter.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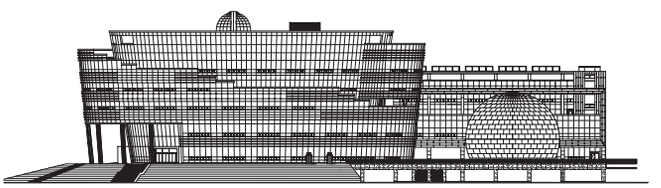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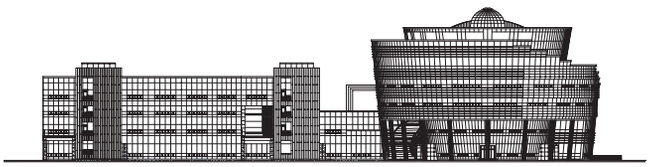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지하주차장
02_ 기계실
03_ 방재실
04_ 시청각실
05_ 사무실
06_ 회의실
07_ 주방
08_ 과학체험실
09_ 지로제안센터
10_ 어린이 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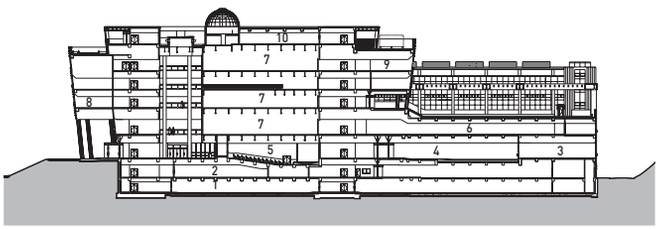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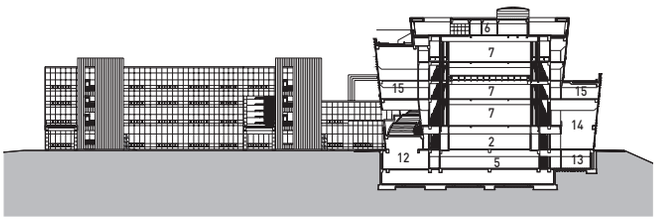


좌측면도

01_ 지하주차장
02_ 시청각실
03_ 식당
04_ 연계테크
05_ 과학종합행사장
06_ 홀
07_ 과학체험실
08_전자현미경실
09_ 라운지
10_ 대강의실
11_ 천체관측돔
12_ 공조실
13_ 수장고
14_ 홍보관
15_ 실험실



횡단면도



종단면도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
토론회 지상중계

개최일시 | 2010년 12월 7일

개최장소 | 국회위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조정식 국회의원

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주제발표
1.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
김진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2.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건축
심우일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3. 건축계가 요구하는 지식산업의 지원책
전영철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토론자
좌 장 | 전영일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 장금영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 과장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
박찬정
대한건축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상길
대한건축사협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사회자
박인수
대한건축사협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특집을 기획하며

지난 2010년 12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토론회를 지상 중계하도록 한다.

그간 건축설계가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에 의해 정의되고, 진행 되어왔던 것으로 본다면, 금번의 토론회는 건축설계를 지식경제부의 관할로 그 범위가 연장될 수 있음을 알리는 토론회였다고 하겠다. 금번 토론회는 그 중요도와 가능성을 확인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조정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 행사였다.

본 토론회는 그간 건축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기술이냐 예술이냐의 범주가 아닌 지식산업으로 그 범주를 넓히는 것이며,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FTA 등 각종 국제적 경제 블록에서 건축의 정의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향후 이를 근거로 건축설계에 관한 지원과 투자가 기대되며, 관련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획 되었다. 특히 이는 국내의 건축설계산업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건축설계를 지식산업으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난맥상이던 관련법들이 상호 정합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축설계를 정의 하게 되어, 자격법에 의한 건축설계에서 산업관련 법률적 근거를 갖는 건축설계로 변경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정부는 2009년 2월 8일 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책의 실현과 세계의 새로운 경제성장패턴에 대응하고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에 본 토론회는 건축설계가 그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하겠다.

건축설계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고, 문화적 가치 창출능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설계대가 문제, 건축설계발주 물량이 대형건축사사무소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면서, 정부로부터 건축이 지식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해묵은 건축설계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선진적인 제도와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시도라 하겠다.

이런 주요한 변동의 시작은 사실 용감한 한 연구자의 3년 여간의 노력의 결실로, 건축도시연구소의 김진욱 박사의 꾸준한 연구 성과가 그 근간이 되었다. 본 토론회는 그의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근간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하겠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부터라도 제대로 시작되어 협회원들 간의 논의에 포함되고, 올바른 방향과 정책이 수립되어, 건축설계가 관련 산업에서 제자리를 찾고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국내의 건축, 도시,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기원한다.

박인수 | 본지 편찬위원

주제발표 I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

김진욱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건축의 산업적 정의

2009년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을 전부 개정하였고,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분야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포함되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생성하거나 이를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업을 지칭하고,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1] 통신, 금융 · 보험, 교육, 의료, 문화 · 오락, 컴퓨터 서비스, 기술서비스 · 엔지니어링, 회계 · 법률 서비스 등과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이 속한 지식서비스산업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13.4배의 성장을 하였고, 경제성장 기여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 3.8배와 부가가치 2.1배 높으며, 고용비중에 있어서도 고학력 고용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서비스산업 중점 육성산업인 11대 신성장 동력산업 군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동종 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은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방안'을 통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외에 33개(2010.8 기준 5개 법률 국회 계류중)의 특정 산업 관련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 육성이 진행 중에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4) 중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431)에 해당하며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및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 · 산업 · 거주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지식,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용, 조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하며 조경과 관련된 환경디자인도 포함된다.

2001년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중 고용효과, 부가가치율 1위를 기록한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동종 산업에 비해 산업의 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의 자산 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격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을 단일 산업으로 분류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중심'의 입찰제도를 벗어나 '가치중심'의 입찰제도를 시행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이 타산업 분야에 '서비스를 의뢰받는 개념'으로 사회전반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세계시장의 잠재 규모가 130조원, 추정규모 390~520조원인 건축서비스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은 IT기반 행정(세움터), 건설기술력 확보(세계 최고층 '버즈두바이' 등) 등 관련 산업이 세계최고의 수준에 이미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27개국 중 건축서비스산업 매출규모 21위로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INSEAD의 2009년 건축서비스산업 세계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이 전 세계 2,077개 도시 중 13번째 규모로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로, 미국 22%, 일본 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개별 독립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총 매출은 약 4조원(2005년 기준)으

1) 정종인 · 박장호 · 김영민(2007), 「사업서비스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은행

로 조사되었으며, 총매출의 30.5%에 해당하는 1.2조원을 100인 이상 대형사무소(전체의 사업체수의 1.3%)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업체 수의 1.3%에 매출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7,463개의 사업체중 87%에 해당하는 6,493개의 사업체가 종사자 10미만의 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임금은 2,300만원으로 관련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여성 종사비 비율 5% 이하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분포에 있어서는 수도권 지역에 매출액의 73.2%가 집중되는 등 사업체, 종사자가 모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의 안정적 구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된다.

미국 건축설계산업과 비교하면 매출액 규모는 약 12.8배, 사업체수는 6.4배로 조사되었고, 일본 건축설계산업과는 매출액 규모 약 4.3배, 사업체수 2.3배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의 평균매출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구도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기치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징과 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으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큰 변화 없이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이 44.6%와 비교하면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집약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높은 고용창출능력을 가진 산업이다. 고도의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인적자본이 서비스 생산의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은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노동투입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질적 · 양적 투입이 높은 업종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창출하는 전문 업종으로 노동집약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타 산업의 원료로 투입되는 중간재와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재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은 중간재로서의 역할을 하여 타 산업분야 발전의 촉매 역할이 가능한 산업이다. 2006년 기준으로, 15조 4,961억의 총 수요 중 중간수요는 14조 6644억원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중간수요율[2]은 94.6%를 기록했다.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총수요액에서 중간재로 판매되는 비중이 94.6%로 높으며, 중간재로서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000억 투자시 생산 및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분석 결과(2007년 기준),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우 1,500억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으며, 부가가치 효과는 약 900억으로 제조업의 1.4배에 이르고, 1,705명의 취업유발효과는 1,705명으로 제조업의 약 1.8배가 창출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고용효과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타 분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주요 활동 및 정부지원 정책 현황

'엔지니어링산업', '디자인산업'은 1970년대부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법령제정을 통해 40년간 눈부신 성장을 지속하였고, 세계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고 있다.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산업적 구조개편 및 정책지원은 법·제도정비, 진흥정책 수립, 재단설립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디자인 분야는 1990년대 이미 진흥법 체계의 법 정비를 토대로 산업디자인분야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문인력 및 기업 양성, 디자인 연구개발 강화, 국제화 교류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한국의 디자인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음을 확인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 ·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건축분야와 유사한 엔지니어링 분야는 2010년 4월 2010년부터 5개년 간 1조8천억 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역시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산업적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건축분야의 진흥을 위해 법 · 제도 정비를 통한 산업적 개념 도입 및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산업 및 전문인력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체계에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구조 개편을 위해 건축 관련 법제도 상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예규』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가치보다는 공급과 가격 중심의 정책기조로 "건설용역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정의되는 건축은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종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의미하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으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명확한 개념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건축산업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체계의 이해 및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총수요액 중에서 중간재로 판매된 비중

건축관련 공사에 관한 모든 원칙과 규정을 정하는『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에 대하여 현재 법률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에서는 제외되는 반면, 같은 법률 안에서 단서조항으로 책임을 묻는 조항에서는 건축설계가 포함되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공부문에 건축설계관련 계약을 규정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회계예규』검토 결과 기획발주와 관계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3조의 2 지식기반산업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이 제외되어 있으며 입찰계약인 회계예규 상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상 특별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용역계약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 조항이 별도 마련되어 있고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별도조항이 마련된 것과 비교하면 단서조항에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설계는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에 해당되는데 건설공사 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 계약 시 평가되는 설계안에 대한 계약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회계예규에서는 건축설계를 공사위주의 계약방식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계약관련 법규에 건축설계기준에 대한 계약지침 명시와 회계예규에 있어 용역계약 부분에 건축설계 계약방식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서비스산업 개념 도입의 필요성

건축서비스산업의 법률적 개념 명시에 따른 정부 차원의 산업적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은 고용증대 및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증대하고 선진화된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 체계정비는 고용유발 및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경제 성장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되며.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확립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콘텐츠 개발 및 R&D 지원을 통한 신규사업 및 수익구조 발전 모델 발굴로 건축서비스산업 구조개편이 가속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서비스분야의 권한 확대 및 법적 보호를 통해 Design Management, SOC 디자인, 에너지 모니터링, 실내환경 및 조도환경 컨설팅, 시설물 전략설계 등 신분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IT기술, 시공기술 등 국내 비교우위 분야의 기술력을 토대로 핵심 원천 기술 자립 지원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함으로써,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발표 II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

심우일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는 말

건축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지식서비스산업에 비하여 발전이 더딘 부문이다. 고도성장기에 주거지 보급을 위한 아파트 건설 위주의 건축 정책, 이로 인한 건축서비스의 문화 · 관광적 가치의 중요성 미인식, '빨리 빨리' 문화로 인한 부실, 또 이로 인한 적정단가의 불인정 등으로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건축서비스업의 중요성을 하나의 예로서 설명해 본다.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라는 쇠락해가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관광명소로 등장하게 하였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스페인의 빌바오는 전통적으로 조선업으로 부흥했던 도시로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 바스크 지방에서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지만 조선사업의 쇠락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가 되었다. 쇠락해가는 도시를 살리고자 1980년대 이후 빌바오의 문화 재건을 위한 계획이 바스크 정부에 의해 수립되었고 그 목표는 옛 조선소와 중공업지역에 도시경제 부활을 위한 재개발사업추진이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구겐하임재단의 유럽 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1997년에 개관한 프랑크 게리의 구겐하임 빌바오는 전 세계 미술애호가 및 관광객의 순례지가 되었다.

구겐하임 미술관의 건립을 중심으로 도시재건계획을 수립한 빌바오시는 해마다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도시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물론이고 빌바오라는 도시가 문화도시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단 하나의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어 놓은 대표적인 예이다. 미술관 하나만으

로 인구 40만 명의 작은 도시가 뉴욕, 파리 못잖은 브랜드파워를 갖게 되었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띠고 시민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것이 건축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빌바오 효과'로서, 현대 건축물이 지역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이 문화적 · 관광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건축서비스업은 지식서비스산업[1]군에 속하는데, 본 절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 건축서비스업의 지식서비스로서의 특징 등에 대하여 우선 설명한다. 그리고 건축서비스산업과 우리나라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는데, 주요 내용은 국민경제 내에서 건축서비스산업과 타산업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능력 등이다. 그 다음 결론으로 건축서비스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한다.

지식기반산업[2]이란 무엇인가?

〈지식기반산업의 정의〉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에 대한 개념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경제에서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Machlup(1962)이 지식산업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면서 부터이다. "지식 그 자체와 지식, 정보서비스 또는 관련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및 가계도 포함하는 집합체"라는 정의 하에 그는 지식산업을 교육, 연구개발, 커뮤니케이션 매체, 정보통신 관련기기 및 서비스 등의 5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정보와 지식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 두 개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보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논리를 갖춘 것을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지식산업은 정보를 지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체계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사람들의 필요에 맞도록 가공하는 일련의 모든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3]

지식기반산업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나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지식기반산업은 인간의 지식과 지적 능력을 생산과정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 신기술산업을 창출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그 자체를 제공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4]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산업이 지식기반산업이 되는 것이다.[5] OECD는 R&D 활동을 통한 기술 창출과 함께 정보 및 지식의 확산, 활용 등과 같은 '기술의 내용' 측면을 중시하여, 해당 산업발전에 있어서 정보와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정의한다. 또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R&D를 통한 기술과 지식의 창출' 기준에 더하여 기술, 정보, 지식의 활용 여부를 중시하는 '기술 및 지식의 내용'을 지식산업의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건축서비스업: 지식서비스로서의 경제적 특징〉

건축 · 건설산업의 필수적인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건축서비스 산업은 표준산업분류 상 정의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건물 또는 구축물이라는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산업활동이다. 건설과 건축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규격, 용량 등이 표준화될 수 없어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이 있고, 건축서비스업은 건설 · 건축업의 이러한 특성을 표현 ·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문생산형 서비스 산업이다. 건축물은 한정된 토지 공간 내에 주문에 의해 생산되는 수요 중심의 재화로 수요자의 요구가 생산물에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건축설계업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노동집약적으로 서비스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문 업종으로 무형자산을 창출(저작권 등)한다. 컴퓨팅의 기술의 발달로 과거보다 노동투입시간이 감소하고 있으나, 표준화하기 어려운 업종의 특성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인적자본의 질적 · 양적 투입이 높은 업종이다.

건설은 주로 주문에 의한 제작이지만, 일반제품 생산과 같이 고정된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작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산업이고, 건축서비스는 현장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타 제품의 생산요소와 달리 토지와 공장, 설비자본의 비중이 낮고 노동과 인적자본에 투하되어 있는 기술, 문화, 예술적 감각 등 비가시적 지적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건축서비스업의 최종재화인 건축물은 장기소비형 자본재로서 감가상각의 특징과 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감가상각 속도의 저하와 문화적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건축서비스의 완성도에 크게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다. 건축물은 완공 전의 생산활동에 의한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완공 후에는 자본재로서 임대의 가치를 지니게 되며, 완성된 건축물은 역사성이나 시대 및 지역에 따른 문화적 부가가치를 지닌다. 예컨대 독특한 지역색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관광과 같은 외부 수입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한편 건축물의 유지 ·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건축물의 미관이 훼손되는 경우 도시와 지역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건축서비스의 최종생산물인 건축물들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도시공간은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도시의 기반시설(상 · 하수도, 전력, 정보망 등) 등과 함께 생활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건설경기가 국가의 주택건설 계획, 신도시 계획 등에 민감한

1) '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건축서비스업은 지식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음.
2) 지식기반산업과 지식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3) 박명수 · 정인수,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구조 변화분석」, 노동연구원, 2004.
4) 오상봉 · 김인중 외,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1999.
5) 허재완, 「경기도 지식기반산업의 현황과 잠재력」, 경기논단, 2000(봄호).

것과 같이 그 파생수요인 건축서비스업도 이러한 국가의 건설계획에 민감한 성격을 지니며, 타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증폭가치(augmented value)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다. 따라서 산업 생산의 중간재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 및 기술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화를 위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와 같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구비가 산업발전의 기본 조건이다. 재산권 설정의 어려움과 관계 특수성은 경제주체 간 기회주의적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기회주의적 행동이란,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에 당초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약속하였던 사항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경제와 건축서비스업

건축서비스업의 최종생산물인 건축물, 도시공간 창조 등은 생산과정에서 그 자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완공 후 소비단계에서 타산업의 생산요소로서 작용하고 부가적으로 문화 · 관광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건축서비스업이 창출하는 직접적 생산관계만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직접적 생산관계 외에 건축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 · 문화적 가치를 포함해서 평가해야 동업종의 산업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산출할 수 있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직접 영향만을 평가한다. 즉, 건축물의 구축 후의 효과를 포함해서 건축서비스의 최종산출물인 건축물, 도시공간 등의 문화 · 관광적 가치를 추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건축서비스업이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을 보기 위해 우선 타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타산업과의 관계는 중간투입률, 전후방연관관계 등을 볼 수 있는데 우선 중간투입률의 변화를 살펴본다. 중간투입률이란 어떤 업종의 최종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타산업에서의 생산물의 비중을 의미한다. 즉 제조업과 같이 원료, 부품 등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의 중간투입률은 높은 반면 지식서비스업과 같이 물리적인 원재료는 많이 필요하지 않으나 고도의 기술, 인적자원 등이 필요한 업종의 중간투입률은 낮은 편이다. 중간투입률의 반대 개념은 부가가치율인데 이는 어떤 업종의 최종생산물 1단위를 생산할 때 원료, 부품 등을 제외한 임금, 이익 등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로 측정된다.

전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서비스업의 중간투입율[6]은 증가하는 추세(부가가치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나, 타산업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건축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즉, 건축서비스업의 서비스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중간재(원료, 기계 등)의 양이 타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의미하며, 이는 건축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타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78.3('08), 건설업 59.7, 서비스업 전체 43.5에 비하여 건축서비스업은 40.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건축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7]은 큰 변화 없이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이 17.7%('08)임에 비하여 건축서비스업은 59.7%로 제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은 업종이다.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8]의 중간투입율과 부가가치율 변화 추이〉

(단위: %)

	'06	'07	'08
부가가치율	60.1	60.2	59.7
중간투입율	39.9	39.8	40.3

〈산업별 중간투입률 추이〉

(단위: %)

'06	'07	'08	
제조업	75.4	75.7	78.3
건설	55.4	56.5	59.7
지식기반서비스업	40.3	41.1	42.5
건축공학관련서비스	33.2	39.8	40.3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타 산업의 원료로 투입되는 중간재와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최종재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출물은 거의 대부분 타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된다. '06년 기준 15조 4,961억의 총 수요 중 중간수요는 14조 6,644억원으로 건축서비스업의 중간수요율[9]은 94.6%를 기록하였으며,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발전, 건축보수, 도로, 항만건설 등이 주요 수요처이다.

다음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관계 효과를 살펴 본다.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0] 취업자수는 '00년 11만 2천명에서 '07년 20만 4천여명으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측정한다. 취업유발효과란 어떤 산업에서 10억의 생산이 발생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를

6) 중간투입률: 한 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원재료인 중간투입을 총투입으로 나눈 비율. 즉, 총산출액 단위당 필요한 중간투입
7) 부가가치율: 총산출액에서 중간투입을 차감한 나머지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를 총투입액으로 나눈 비율
8) 산업연관표에서 건축서비스업은 건축공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9) 중간수요율: 총수요액 중에서 중간재로 판매된 비중
10) 산업연관표에서 세세분류의 고용표가 제공되지 않아 168개 부문의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고용표를 활용. 산업연관표에서 건축관련서비스업은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업의 하위 분류에 위치

의미한다. 인적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효과가 큰 반면, 제조업 같은 경우 자동화 · 기계화 등의 영향으로 취업유발효과는 낮은 편이고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산업의 취업자수 추세〉

단위: 명

	'00	'05	'06	'07
취업자수	112,000	149,176	184,911	204,368

자료: 산업연관표 각년도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업에서 10억의 생산이 발생할 때 필요한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17.1명으로 제조업의 9.2명에 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나타난다. 건축서비스산업에서 10억의 생산이 발생할 때 유발되는 취업자를 직접유발효과와 간접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건축서비스부문에서 12.4명이 직접적으로 유발되고, 타부문에서 4.7명 취업이 유발되어 총 17.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

2007 기준	제조업	건축서비스
취업유발계수(168기준)	9.2	17.1

다음으로 건축서비스산업 고용의 특성을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찾아본다. 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는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건축서비스업은 창출된 부가가치 중 피용자보수(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1.8%로 타산업에 비하여 인건비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타산업에 비하여 고용규모가 크지 않으나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일인당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전문인력의 투입이 많고 지식집약적 ·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숙박업,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각각 40.2, 44.6으로 건축서비스업의 60.1보다 매우 낮다. 인건비 비중도 건축서비스업에 비해 음식숙박업은 18.6, 건설업 27.0으로 낮은 편으로 그만큼 건축서비스업에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서비스업의 인건비 및 부가가치율〉

	건축서비스업	음식 · 숙박업	건설
인건비 비중	41.8	18.6	27.0
부가가치율	60.1	40.2	44.6

다음으로 건축서비스업의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창출효과를 분석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모든 정부의 정책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건축서비스업의 부가가치창출능력과 고용창출능력을 아래의 각업종에 일정액의 투자가 발생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건축서비스업에 1,000억원이 투자될 경우에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취업자를 제조업과 비교하면 제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는 약 1.5배, 고용은 약 1.9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조업에서는 626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반면 건축서비스업에서는 900억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취업은 제조업에서 920명 발생하는 반면 건축서비스업에서는 1,705명이 발생한다. 고용창출이 모든 나라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창출능력과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건축서비스업의 성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000억 투자 시 생산 및 취업 유발효과〉

단위: 억, 명

2007 기준	제조업	건축서비스(404)
생산유발효과	2,073억	1,500억
부가가치유발효과	626억	900억
취업유발효과	920명	1,705명

결론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건축서비스업의 생산물은 중간투입이 매우 적고 부가가치율이 매우 높다. 셋째, 건축서비스업의 생산물은 최종수요재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타산업의 중간재로서 활용되는, 즉 중간수요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전방연쇄효과가 평균보다 높은 산업이다. 다섯째, 고용창출 능력이 매우 높다. 다섯째, 지식집약적이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산업적 중요성은 문화관광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용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고용창출이라는 현대 정부의 정책 제일 목표와 부합하는 산업임은 이미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증명한 바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9.2명인데 반해 건축서비스업은 17.1명으로 약 2배의 고용창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지식집약적 ·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부가가치율도 타 서비스산업이나 제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 즉 무형의 지적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물적 투입은 적어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현재의 법 · 제도하에서는 지원을 통한 진흥 · 육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공공부문에서조차 건축서비스에 대한 단가나 처우가 후진적이고, 이러한 관행이 건축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 · 관광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지금이라도 인식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정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제발표 III

건축계가 요구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지원책

전영철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1. 서론

:: 건축설계와 건설산업

– 앞서서 발제한 두 분의 원고에도 나타났듯이 건축설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부족한 건축물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건설산업에 포함하여 다루어져 왔음
– 정부나 일반인의 인식에서 건축설계는 시공과 함께하는 건설산업이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음

:: 건축창조산업과 건축디자인교육

– 최근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어 건축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창조산업으로서의 설계의 이념과 정의가 새롭게 설정되어 건축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함
– 대학에서는 건축공학과에서 분리되어 5년제 건축학과가 운용되고 있으며, 건축디자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인정기준에 따라 건축실무수련,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관리, 자격갱신 등의 제도개선을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음

::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설계 지원 방안

– 최근 지식산업에서는 학문간, 각 기술분야간에 융합하고 통합하는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식경제부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소기술은 건축설계에서 통합되고 종합하여 건축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지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건축설계의 산업적 특성 맞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2-1 지식서비스의 정의

• 지식서비스란 기존 산업사회의 노동, 자본, 토지라는 중요 생산요소에 대비하여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식을 그 주요 생산요소로 삼는 서비스로서 기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상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지식경제부)
• 「Knowledge-Intensive Business Services : Users, Carriers and Sources of Innovation」(UN의 1995년 리포트)에서 정의한 지식기반서비스(KIBS)의 특징은
① 전문적(professional) 지식에 의존하며
② 주요 정보나 지식을 창출하여 제공하거나(리포트, 교육, 컨설팅 등)
③ 최종 생산자에 대한 중간단계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을 사용하며
④ 주로 비즈니스 서비스에 이용되는 서비스로 기술.

2-2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고 있음
• OECD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오락, 문화산업으로 정의

2-3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분류

2-3-1 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제1항)

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 도매 및 상품중개업
3. 전자상거래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업
7.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11. 연구개발업
12. 법무관련 서비스업
13. 회계 및 서무관련 서비스업
14. 광고업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6. 경영컨설팅업
1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8. 전문디자인업
19.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20.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21.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7.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신용정보를 수집 · 제공하는 사업)
28. 포장 및 충전업
29.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 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0.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31. 병원
32. 의원
33.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2-3-2 지식경제부 유망 지식서비스업종(2007년 기준)

1. 디자인	5. 패션	9. 시험분석	13. 헬스케어
2. 컨설팅	6. 프랜차이즈	10. 이러닝	
3. 연구개발전무업	7. 전시산업	11. 에너지절약전문점	
4. 패키징	8. 유통	12. 소프트웨어	

(출처:2010 지식서비스산업 백서, 지식경제부)

2-3-3 표준산업분류 상의 건설설계업(KSIC9차 개정)

- M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 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따라서 이미 건축설계서비스업은 산업발전법에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법률적으로도 지식서비스산업으로 포함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건축설계"라는 표현이 없어 아쉬움이 있음.

3.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

- 건축설계는 법률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가 정한 유망지식서비스업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3-1 지식경제부의 역할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IT관련 조직을 통합한 '지식경제부'를 설치(정부조직법 제32조)

- 지경부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에 지식기반 경제,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신호탄이었으며, 정부의 정책기능이 산업과 정보로 나뉘었던 것을 '지식정보'로 일원화한다거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시스템의 혁신을 꾀한다는 등 지식의 생산과 전파, 교육에 정책의 역점을 둠.

3-2 지식경제부, 지원사업

::2007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전략' 발표

::2008년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발표

3-2-1 유망업종의 선정과 특성화 전략

1) 유망업종의 전략적 선택
   - 제조업과의 연관성 또는 고용유발 효과 등을 기준으로 최적인 발전단계와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13개의 유망서비스 업종 선정

2) 업종별 특성화 지원 :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
   ① 전문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이미 독자적인 산업으로 확립되어 있는 분야(디자인, 컨설팅, 유통, 패션, 이러닝, 패키지)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② 전문기업이 출현하여 이제 산업적 기반을 형성 중이거나, 아직 법적 혹은 제도적인 기반이 미비한 분야(전시사업, 프랜차이즈)
   ⇨ 법적 ·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
   ③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아직은 전문기업군과 산업적인 기반형성이 미흡한 분야(연구개발 전문업, 시험 분석, 기타 신산업 분야)
   ⇨ 실태파악과 현상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산업 육성방안을 수립

3-2-2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지식시반사업의 서비스전략 ·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식서비스 기업의 전문화와 과학화 추진

1)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 2008년, 절감예산 30억원 지식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
   - 2012년까지 지식서비스 R&D 지원비중의 현재의 2배(6.2%, 3,665억원으로 확대)
     - 지식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프로세스 설계
     -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식서비스 R&D 분류체계를 마련

[지식경제부 서비스 부문 R&D 현황]

분류	2007년	2008년	사업내용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기술개발	176.5	288.1	RFID/USN 기반 유통, 물류 효율화, 디지털 설계
디자인	215.0	270.0	미래유망상품, 세계일류상품 부문의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488.5	552.0	인터넷서비스, 임베디드 S/W(차량, 항공기 등이 내장형 SW), 음성인식 등S/W분야의 기술 개발
서비스 연구개발사업	50.0	50.0	개별 중소기업의 서비스 신상품 및 서비스 전단체계 등 개발지원 (중기청)
기타	116.3	123.8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유통 이러닝 분야)및 전자상거래 (구매 · 생산 · 공급 · 전자결제 지원 솔루션 등) 기술개발
합계	1,046.3	1,283.9	

자료 : 지식경제부(2008. 5.)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

2) 지식서비스산업 IT 지원센터를 통한 업무지원
   - 중소규모의 지식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IT컨설팅, 정보화 교육, IT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업무를 지원

3-2-3 시장 확산을 통한 지식서비스 수요창출

1) 지식서비스 수요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
   -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 '디자인개발사업', '에너지시설 융자사업' 등
   - '지식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 : 지역기업의 디자인이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입비 보조
   - 아웃소싱 우수 사례집 발간과 성공사례 세미나 개최 · 홍보

2) 서비스 업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대출, 보증, 보험 지원 등 확대
   - 해외 현지 시장정보 및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제공(「Global Korea」의 해외진출 종합 지원시스템)

– 해외 주요지역에 서비스 거점 무역관 확대
– 국내외 박람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원, 해외시장조사단,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3-2-4 지식서비스산업의 인프라 확충

1)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 대학의 산학협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지원
– 업종별 주요 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 디자인, 포장, 엔지니어링 등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 전략개발과 서비스 기술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석박사급의 고급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 · 추진
– 첨단 이러닝을 활용한 현장인력 실무역량 강화

2) 통계, 정보, 연구 기반 등의 인프라 확충
–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관련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적기에 분석하여 제공
–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 : 지식서비스 정책, 사업, 산업 등의 정보를 축적하여 관계자가 공유
– 2011년까지 서비스산업 인프라 관련 국가표준 90여종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
– 서비스 KS 인증제도 도입 추진 : 양질의 서비스 유통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와 서비스의 아웃소싱 활성화
– KIET, 대학, 주요 연구 집단을 서비스혁신센터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 연구기반, 실태조사 등의 인프라 구축
※ 서비스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화에의 장애요인, 규제사항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지원방안 마련

3-2-5 산업 환경의 개선

1) 세제지원
–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세제지원 차별 개선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10.1월)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리마케팅 서비스업 등
• 지식서비스 분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범위 확대 등 추진

2) 금융지원
– 중소기업 대상 R&D사업의 서비스업 지원 확대
• 제조업 중심의 R&D 사업 ⇨ 서비스업 지원범위 확대
–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기술신용보증 규모, 보증한도 · 보증요율우대적용 등 확대

3) 중소기업 지원범위 확대
–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범위 확대
•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기준 완화('09. 3월)

예) 금융 · 보험 : 종전 50명, 50억원 ⇨ 개정 200명, 200억원

4. 중소기업 지원정책

– 건축설계는 전문직 서비스 산업으로서 인력과 지식이 집적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음. 따라서 전체 건축사사무소의 95%이상이 건축사 1인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형태를 갖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신청요건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 건축사사무소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지원신청대상에 건축사사무소를 명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4-1 중소기업의 정의

4-1-1 중소기업의 법률적인 정의

–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중기업은 건축인 경우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의 기업
• 소기업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또는 10명 미만) 기업

4-1-2 관계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 산업기술연구조합

4-2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절, 제5장)
①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②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③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④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⑤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⑦ 산업 · 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⑧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⑨ 산 · 학 · 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⑩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
⑪ 중소기업의 경영안전 지원
⑫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2-1 융자 지원

① 2010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통사항)
② 창업기업지원자금
③ 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④ 신성장기반자금
⑤ 긴급경영안정자금
⑥ 사업전환자금
⑦ 소상공인 지원자금
⑧ 매출채권보험제도 안내

⑨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⑩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⑪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⑫ 서민지원 햇살론 사업안내

4-2-2 판로/수출 지원

①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운영
②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사업
③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④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⑤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⑥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개최
⑦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⑧ 성능인증 · 보험제도
⑨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⑩ 수출지원사업안내
⑪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⑫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⑬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사업 포함)
⑭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⑮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⑯ 수출금융 지원사업
⑰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⑱ 온라인 수출지원
⑲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⑳ 10년도 수출 중소기업 500프로그램 , 소기업 · 소상공인(노란우산) 공제제도

4-2-3 인력지원

① 북한 이탈주민 취업지원
② 소기업 CEO 교육
③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④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⑤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의 적용대상 업종 안내
⑥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 사업
⑦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⑧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사업
⑨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학습
⑩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⑪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⑫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⑬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 사업
⑭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⑮ 타 부처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안내
⑯ 기능인력 사내멘토링 지원사업

4-2-4 창업/ 벤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지원
② 창업투자회사등록 관리
③ 창업투자조합결성승인 및 관리
④ 가업승계지원
⑤ 기업회생 컨설팅 지원
⑥ 유휴설비 · 공장거래 알선사업
⑦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⑧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⑨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⑩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⑪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원
⑫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⑬ 벤처기업확인제도
⑭ 협동화사업지원제도
⑮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⑯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 지원제도
⑰ 개인투자조합결성 및 투자확인서발급
⑱ 모태펀드투자관리
⑲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손처리 승인
⑳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변경
㉑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㉒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㉓ 기술창업학교
㉔ 창업대학원
㉕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㉖ 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
㉗ 창업보육센터 지원
㉘ 창업동아리 지원
㉙ 사업전환 촉진사업
㉚ 2009 대한민국창업대전
㉛ 제조업 창업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㉜ 대학생 창업지원단 지원사업
㉝ 2010년 대학 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지원사업 안내
㉞ 2010년도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운용계획

4-2-5 컨설팅/ 정보화 지원

①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
②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③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
④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⑤ 경영혁신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⑥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클리닉 사업

4-2-6 여성/ 장애인기업 지원

① 여성기업확인 절차 안내
② 여성기업 육성
③ 장애인기업 육성

4-2-7 전통시장/소상공인에 대한 사업

① 2010 소상공인 융자 계획

②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③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
④ 소매점 조직화지원
⑤ 자영업컨설팅 지원
⑥ 상권정보시스템
⑦ 소상공인 공제제도
⑧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⑨ 소상공인 e-러닝교육
⑩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⑪ 성공창업패키지 교육
⑫ 재해중소기업지원
⑬ 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⑭ 201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
⑮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⑯ [전통시장]시장경영혁신사업
⑰ 2009 성공 창업 패키지 교육
⑱ 2009년 자영업컨설팅지원

4-2-8 지식서비스에 대한 사업

① 2010년도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지원사업
② 중소기업간 협업자금지원
③ 컨설팅 대학원
④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⑤ 모바일기반 오픈마켓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⑥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⑦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
⑧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⑨ 자기계발 골드카드 지원사업
⑩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
⑪ 찾아가는「1인 창조기업 드림버스」운영
⑫ 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⑭ 앱(App) 창작터

5. 해외건설 지원정책

– 해외건설촉진법을 통한 지원방안은 건설위주의 지원으로 지식기반, 디자인 산업으로서의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없음. 도시설계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하며 건축설계는 국내건축자재의 해외시장 개척의 선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사업의 하나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1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음.(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2)

①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②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③ 해외건설 교육훈련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원받고 있음.(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19조)

①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②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③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5-2 건설분야, 정부의 지원현황

① 정보서비스 제공
– 프로젝트, 국가별 진출환경, 자재공사단가, 공사단가, 공사관리 정보 등 21개 분야 DB제공
② 전문인력 확보 지원
– 해외건설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 해외건설 인재정보 홈페이지 운영
③ 수주활동 · 시공지원
– 해외사절단 및 조사단 파견
– 해외 시장조사를 통한 수주지원
– 시공활동 지원
• 프로젝트 사업평가를 통한 보증발급 지원
• 워크아웃 기업 보증관련 현황파악 및 지원
• 해외건설 기자재 DB 홈페이지 개설
• 리스크 매니지먼트 홈페이지 운영
④ 고부가가치 공종 해외건설 수요조사와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연구용역
⑤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 및 전문위원 책임전담제 운영

6. 건축설계 지식산업의 지원정책 건의

6-1 지원정책

① 지식경제부의 "유망지식서비스업"에 건축을 포함하여 지원
– 건축설계산업 진흥계획(발전전략) 등 수립
• 지식경제부의 유망 지식서비스업으로 건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건축설계 대한 각종 통계정보, 연구 등에 소외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건축설계산업 발전 전략 수립
②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전문가 육성 및 지원센터 설립
• 건축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로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전문가의 정확하고 명확한 상담체제 구축이 필요함.
• 해외시장 진출의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해외시장에 도전하는 자에게 가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③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방법에서 지식기반사업에 건축설계를 포함
– 건축이 국가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이 육성되는 기반마련

• 현재, 건설공사는 기획발주, 입찰계약, 건설생산, 유지관리 4단계로 적용되어 계약되고 있음
  – 기획발주 : 국가계약법령 제43조의2 지식기반산업에서 제외되어 있음
  – 입찰계약 : 회계예규, 물품+용역+공사 : 특별조항 없음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엔지니어링을 통합하여 조정 설계하는 건축설계에도 세제 및 금융지원
  – 엔지니어링에 지원되고 있는 세제 및 금융에 대한 지원을 건축설계도 포함되도록 하여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의 협업 및 협력체계 지원
  – 요소기술로서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축설계 적용을 위한 협력이 필수적임
  –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등 관련 기술 분야가 기술발전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⑤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에 건축사사무소 지원 (지원신청 요건에 건축사사무소 명시)
  – 건축관련기술(전기, 통신, 토목, 설비 등)분야와 협력설계시 "중소기업간 협업자금 지원"
  –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의 학업 및 전문지식습득을 위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골드카드 지원"
  – 지식서비스업 육성자금 지원
  – 벤처센터 및 아파트형공장 등에 건축사사무소 입주 지원
  – 건축사사무소에 고급인력(전문지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⑥ 건설자재 및 소재산업 전시 및 활용에 대한 지원
  –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 등에서 건설자재의 및 소재의 표준과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
  – 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산업대전에 건설자재전시 지원

6-2 인프라 구축 – 건축자재정보 DB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

::3차원 건축자재를 데이터로 만들고, 각종 자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설계자가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산 자재가 세계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자재 라이브러리 구축
  – 건축자재 데이터 및 3D 자재 도면 구축
  –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참조〉 관계법령

• 산업발전법

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8.18〉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3.12.1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8.2.29〉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2007.10.10〉

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5.25〉

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9.8.18, 2009.8.21〉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소기업)과 중기업(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 · 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시행령 별표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해당업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 해외건설촉진법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업자를 대외무역법, 신용보증기금법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7.8.28, 1999.1.29, 1999.2.8, 2007.5.17, 2009.6.9, 2009.12.29, 2010.4.12〉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5.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소음 · 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9. 무역업자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⑦ 생략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등

제15조의2(해외중소건설업자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1.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2. 해외수주 상담 및 지도
3. 해외건설 교육훈련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③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5〉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본조신설 2008.3.28]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6.28〉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기회 제공
4. 그 밖에 중소건설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본조신설 2009.6.25]

〈지식산업으로서의 건축〉토론자 토론 내용 요약

• 개회사 | 조정식 국회의원

· 건축은 고도의 지식집약적 창조산업으로서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현 건축계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중심으로 옮겨가는 시기이며, 디자인과 건축은 도시 · 국격 향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선진국형 가치창출산업임.
· 건축이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산업적 틀을 갖추고자 하는 것이 본 토론회의 취지이므로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며, 지식경제부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함.

• 환영사 |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올해초 조정식 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에 본 토론회가 개최되었음.
· 멕시코에서는 건축물 하나하나에 대하여 설계자를 소개하는 등 작가를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음과 달리 우리나라는 얼마 전 안중근의사기념관 건립식에 설계한 건축사가 초대받지 못하고 거명조차 되지 않는 안타까운 일처럼 설계 및 설계자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이는 아파트 중심의 공급으로 건설회사와 건축주 위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대형건축물에 대한 턴키제도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원인임.

토론내용 및 발언

• 전영일 | 좌장

· 발표내용은 건축산업의 현황 등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유익한 자료이며 타산업 및 외국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실 건축이 지식산업이 아니었다는 것에 더 놀랄 만한 일이었고,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지식산업으로 건축이 시작되길 바람.
· 기존 건축산업의 의미를 되짚는 계기가 될 것이며 건축이 지식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해야 할 것임.

• 장금영

·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과거 제조업은 산업자원부, 서비스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였으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은 지원이 미미하였으나 지식경제부로 개편되면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중임.
·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과의 역할
  –2007년 이후 부서명칭에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산업발전법에서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작업을 하였음.
  –11개 지식서비스산업 주요업종 선정:제조업과 연관된 업종을 선별하였으며 각 업종은 타 부처 및 부서가 각각 담당하고 있음.
  –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으로서 서비스 R&D지원, 비즈니스모델 개발,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에 대한 선택 및 집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 최재필

· 건축의 용어와 포지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 건축은 과학, 기술, 예술 등 다방면에 해당되는 분야로서 포지션을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에서 건축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건축설계, 건축디자인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획, 감리, 유지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이라는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건축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2002년 건축학과 5년제가 도입되면서 교육부분이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건축사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회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회의나 자료는 학계에도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부처간 조율에 대한 문제 우려
  – 건축은 다방면에 관계된 분야로서 협의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부처간의 갈등이 우려됨.
  – 현재는 한 주무부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는 아니며, 건축분야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므로 부처간의 원만한 협의와 논의를 바람.

• 박찬정

· 건축은 다방면의 융합사업이므로 한 가지 분야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산업이라기보다는 인프라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 가치에 대하여 인식을 새로해야 함.
· 건설의 일부, 재산적 가치로서의 건축이 아닌 환경과 삶의 질 측면으로서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건축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는 건축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취급하고 발전시켜야 할 시기임.

• 김상길

·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원책 마련, DB정리 등 발표내용은 부분적인 내용으로서 정부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
· 미국은 건축사사무소가 50명 이상만 되어도 해외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출하고 있으며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등 건축분야 진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건축산업 진흥은 특정부서가 아닌 사회전반적으로 모두가 힘써야 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적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건축이 정부 녹색성장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건축설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필원 | 초고층빌딩사업단 단장 – 좌장 요청에 의한 객석발언

· 건축을 한 분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과학, 기술, 예

술, 지식산업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균형 있게 자리잡고 있어야 함.
· 지식경제부도 담당분야가 아니라는 인식을 버리고 해당 각 부처에서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함.
· 주체로서 건축인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음.

• 김진욱

· 1990년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진흥정책 추진시 우리 스스로 건축은 기술이 아닌 것으로 표명하였으나, 현상황은 대형업체조차도 실시설계는 하청을 주고, 기술력이 모자라 해외진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기술로서의 건축 또한 부각시켜야 함.
· 발표자료는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 우리는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부부처간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건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

• 김상길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에 건축분야는 우리 스스로 기술분야에서 빠졌으나, 현재는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임.
·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때임.

• 전영일 | 좌장

· "Architecture"는 "으뜸기술"이 그 어원으로서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고 스스로 표명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무관심에 따라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축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 Input과 Output자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심우일

· 건축은 문화예술, 기술, 과학 등이 접목된 분야로서 포지션이 애매하고 관련 정부부처가 산재해 있으며 국토부의 건축기획과는 국토부 내 위상이 높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
· 기술의 융복합화 시대에서 어떤 분야든 한 포지션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정부부처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하며, 건축이 복합적 성격을 가진 분야이며 국격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임을 선언해야 함.

• 최재필

· 국토해양부의 건설 관련 과제 10개 중 1개가 초고층 관련 분야로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설계분야는 전체 연구비의 10%도 안됨.
· 건축학 교수들도 스스로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고 하며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나 이런 배타적인 관습은 버려야함.

• 박찬정

· 건축이 어느 한 분야에 소속되도록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함.
· 문화의 발전은 대중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건축을 위한 "기획"이 건축물 사용자에게 끼치는 엄청난 영향 및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이미지 및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함.

• 전영일 | 좌장

· 기술이 극한까지 발달하면 예술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될 수 있으므로 예술과 기술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여야 함.
· 미래에는 정부가 지원방안을 찾아다니면서 지원해주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장금영

·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는 많은 것이 당연하나 주무담당부서는 필요함.
· 직접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결정권한이 있는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임.

• 신춘규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객석발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모든 관계부처를 초청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결과물은 도시와 문화로서 매우 중요하고 건축산업의 영역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음.
· 우리 스스로가 대우받으려면 주체로서 자정 및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상기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요약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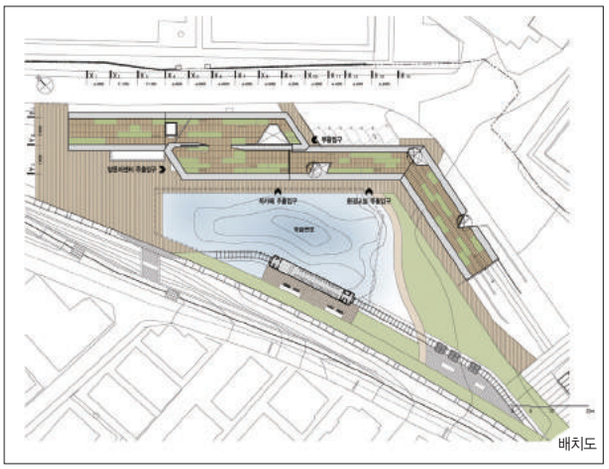
에코갤러리

Eco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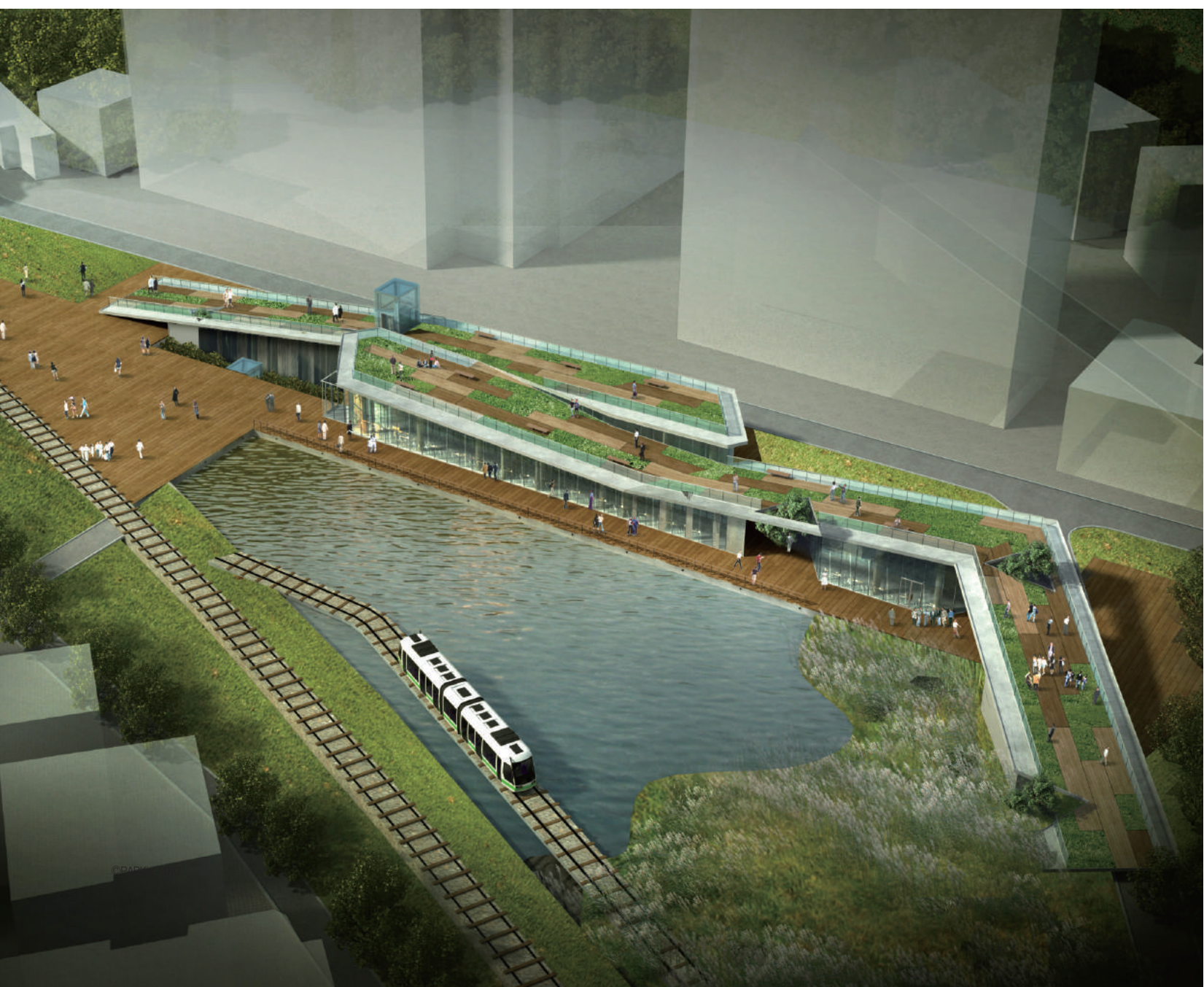
오섬훈 | Oh, Seom-hoon, KIRA
(주)건축사사무소 어반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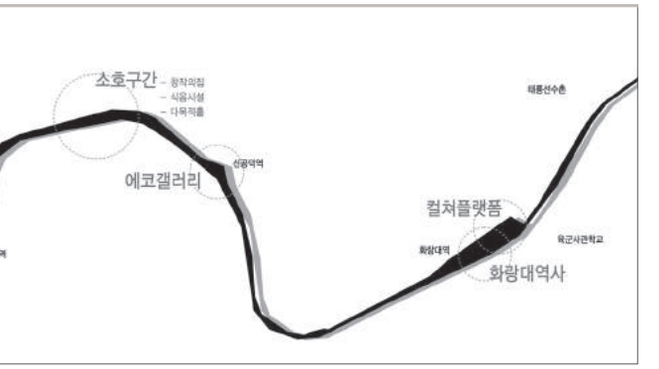
약력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및 동대학 대학원 졸업
- AA School 수학
-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
- 국민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Location | Seoul Nowon-gu Gongheung-dong
Site area | about 3,000m^2
Biulding area | 942.0m^2
Gross floor area | 1,525.8m^2
Structure | R.C struture
Biulding to land ratio | about 30%
Floor area ratio | about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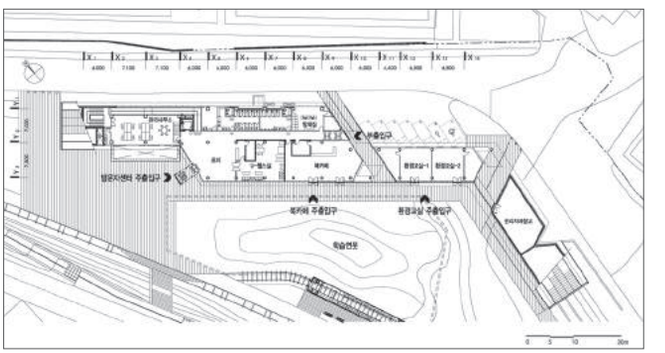


배치도





전체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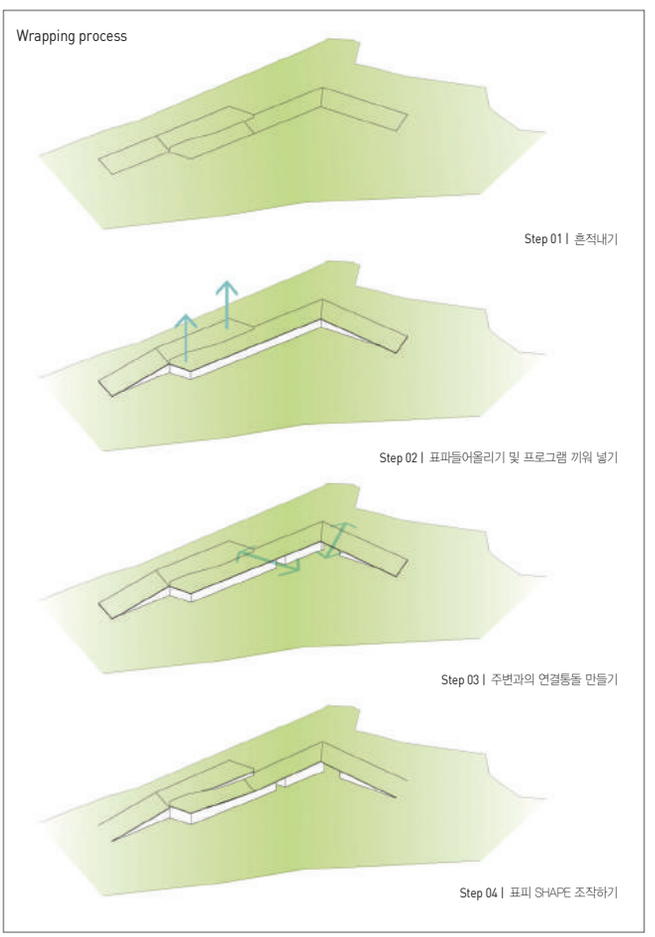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Tilted Surface

"너무 긴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은 없는지요?"
"다목적 공간이란게 뭐요?"
"정확한 용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자가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지…"
작년 상반기에 경춘선 공원 프로젝트의 본 건물인 에코갤러리를 두고 일어났던 한 장면이다.
소위 추억의 춘천가는 기차의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현상을 했다. 폐선철도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성공리에 끝낸 뉴욕의 high line 등이 거론되면서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성북역에서 갈매역까지 60여 Km에 이르는 테마형 선형공원으로써 그 속에 '문화'의 성격을 지니는 거점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공원의 성격을 좀 더 또렷이 하고자 했다. 현상단계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이 문화적 성격을 만들어 내는데는 좋으나 운영이나 수익적인 측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북서울꿈의숲' 에서 운영의 수지적 측면에서의 문제 즉, 적자운영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현상초기에 본 프로젝트 장소에 설정된 생태적인 성격의 공간에 대한 개략적인 프로그램이 튼튼한 객관적 자료 뒷받침 부족으로 다시 조정되고 정리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엄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자문 등이 뒤따라야 했다. 결국 순수 문화프로그램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관리본부의 성격이 부가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확정되기까지 안 만들기를 미룰 수 없어서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지역의 성격 설정을 '생태' or '자연친화적 장소'로 한 것을 바탕으로 안의 큰틀을 먼저 짰다. 습지의 성격을 지니는 학습연못과 이곳에 들어갈 건물을 땅의 표피를 들어 올려서 그 속에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고, 땅의 표피를 3차적 입체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건물의 길이가 길어지고,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이 생긴것이다. 땅의 표피에 칼 자국 같은 것이 생겨 그속에 프로그램이 들어 앉은 것이다. 건물표피가 땅표피의 연속된 제스쳐를 가지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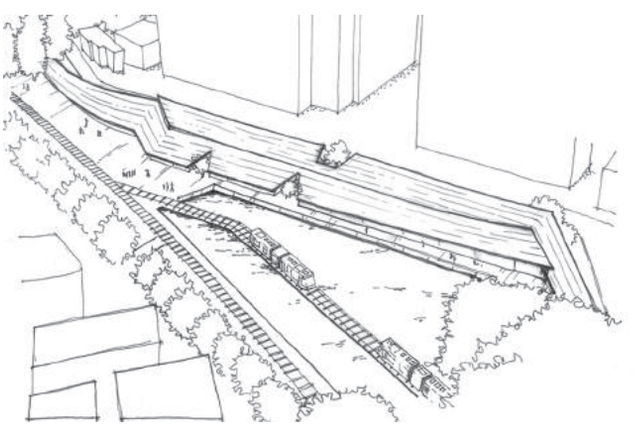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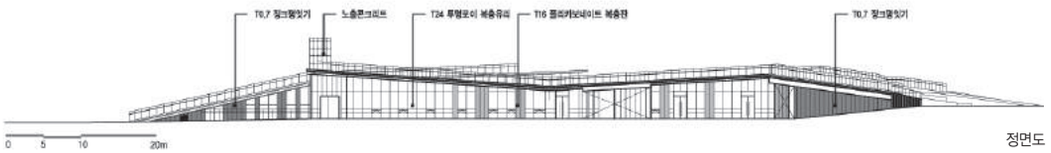
container 속성 – wrapping program

건축물이 본질적으로 container적인 속성을 갖지만 그 container를 어떤 방법으로 만드느냐가 초점이 된다. 담는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싸는 방법을 찾아서 만들고 싶다. 담기는 프로그램이 한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일 경우는 더욱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싸여서 전체를 싸는 그런 방법.

동선체계

또 하나, 공간의 경험이 다양해지고 깊어지는 체계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된다. 각각 싸여진 (여기선 분절된) 각각의 프로그램을 향해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urban context를 좀 더 풍성히 하고 그 결과들이 이 장소에 기존의 철도로 인한 장소 이미지 위에 또다른 장소성을 하나 추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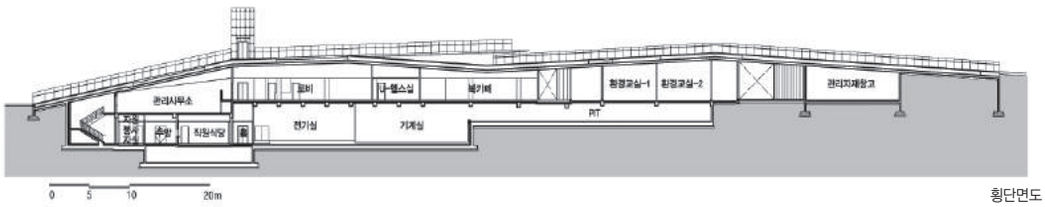



T0.7 장크평잇기
노출콘크리트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
T16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T0.7 장크평잇기
0 5 10 2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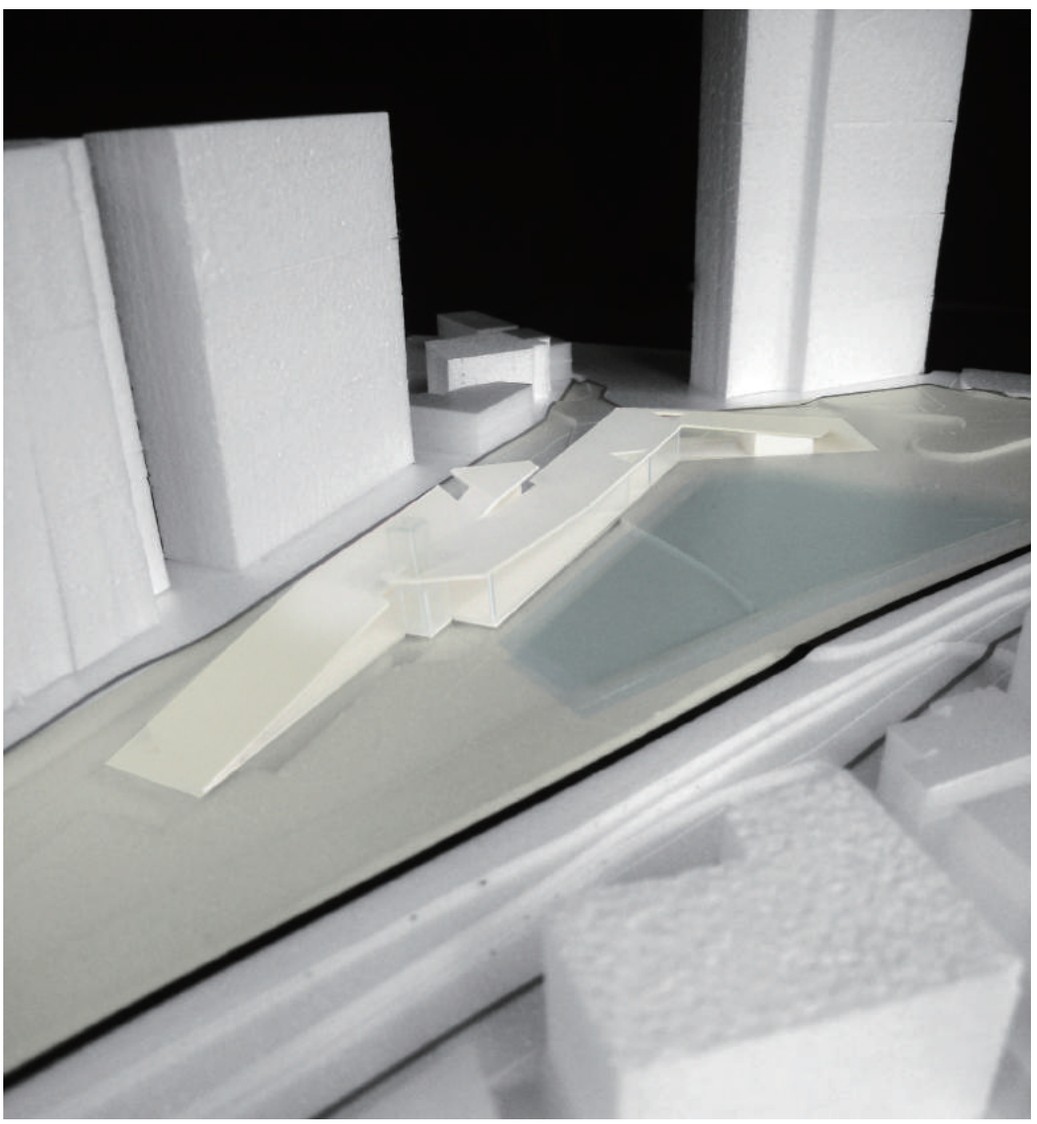
정면도

T0.7 장크평잇기
T24 투명로이 복층유리
T16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노출콘크리트
T0.7 장크평잇기

배면도


관리사무소
로비
나-헬스실
복기배
환경교실-1
환경교실-2
관리자재창고
PIT
전기실
기계실
직원식당
0 5 10 20m

횡단면도



campaign

*.dwg 납품! 하지 맙시다!

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과물을 주로 *.dwg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간 인허가, 심의 등 대관업무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dwg파일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스(source)파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 또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주나,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만일 현장에서 도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공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 업로드 하실 때는 *.dwg파일 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국민신문고 질의 1AA-1010-009348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창 아임삭 공장과 청강대 창작마을

신춘규 건축사 |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일자 2011년 1월 24일
장 소 씨지에스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 석 자 신춘규 건축사, 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신춘규 건축사는 축구를 사랑한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가능한 모든 약속에 우선하여 축구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한다. 건축사들의 A매치도 주선하였다고 한다. 젊은 시절부터의 열정을 간직하고 꾸준히 실천해 나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체력과 정신력이 근원이 되었을 터이다. 건강이 매우 나빴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다. 생각도, 생활도 그리고 작품도 다 건강하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회 이사를 맡아 역시나 이러한 모습대로 온화와 품격으로 한국의 건축을 국제무대에 알리고 있다. 앞으로 어디까지 그의 역할을 기대하면 좋을지?

Aimsak Ochang Factory & Creation Village, Chungkang of Cultural Industries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유정훈 :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신춘규 : 반갑습니다. 이 시리즈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대전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협회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유 : 협회 국제위원회 이사라면 해외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일 텐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공부 마치고 남아서 컬럼버스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무렵이라면 아이젠만이 있을 때일 텐데요?

신 :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실무를 하다 건축을 좀 더 알고 싶어 미국에 갔고, 마침 그 대학의 아트센터인 웩스너센터를 아이젠만이 설계하게 되어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지요. 제가 그의 수업을 들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RTPA라는 로컬 회사가 그 일을 아이젠만과 함께 한 곳이었고, 다시 연달아 컬럼버스 컨벤션센터로 일이 이어져서 제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위 실무진이긴 해도 **제가 아이젠만의 설계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현상설계 시 참여가 가능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 : 저도 1982년에 미국으로 가서 85년부터 6년간 시카고 SOM에 있었는데, **당시의 미국 중서부는 포스트모던이 한창 유행이었지요.** 역사적인 선례(先例, precedent)를 숨 막히게 따져나가는 분위기에서 저는 좀 실망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잡지에 나오는 아이젠만과 하버드 출신의 동료들에게서 듣는 이야기들로 동경(憧憬)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박인수 : 제가 알기론 이필훈 선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젠만도.

신 : 예. 같은 시기에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이필훈 선생은 공부만 하고 돌아왔지요. 아이젠만이 그 친구를 무척 좋아하긴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목적이 매우 정확하거든요.

유 : 신 선생님은 언제 떠나셔서 언제 돌아오셨나요?

신 : 84년에 가서 91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박 : 그럼 84년에 유학을 떠나셨군요. 그리고 일도 하시고….

신 :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늘 돈이 부족하여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도 일하고 그랬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보기에 딱했던지 RTPA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도교수님은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했고요.

유 : 사실, 아이젠만은 웩스너센터 당선되고서 오하이오에서 티칭을 한 것이죠?

신 : 그래요. 계속 오하이오에 오게 되니 아예 강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보니 후속 컨벤션센터의 현상설계에도 연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 : 그 무렵 제가 읽었던 기사 중에 "아이젠만이 드디어 집을 지었다! (Eisenman Builds!)" 뭐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 : 그렇습니다. 이때가 아이젠만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한 시기일 겁니다. 그 전에는 뉴욕 파이브(New York Five)의 한 명으로 주택 몇 개가 소개되었을 뿐이었는데 그에게 웩스너센터는 공공건축으로는 처음으로 짓게 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유 : 아이젠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얼마다 더 일하셨나요?

신 : 지금은 모 대학의 교수인 제 후배와 우연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미국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돌아가려니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 조지아텍에서 박사취득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저도 좀 찜찜한 거예요. 고민 끝에 박사학위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당시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 다른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있는 도시계획 쪽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결국 1년 만에 지루함을 느껴 다시 석사만 얻고 포기했습니다. 저는 건축이 훨씬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면허도 받았는데 면허받는 과정에서 미국사람들이 융통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RTPA에서 1년 정도 일하고 건축사시험을 치르는 부서(Architect Board Examiner)에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한 데(한국에서 학교 졸업하고, 실무도 하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석사학위 마치고 1년의 실무를 채운 후 연락해라." 라고 해서 그대로 하고 연락 했더니 "다 인정해줄 테니, 시험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운이 참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공부 하나도 안한 구조의 장스판과 단스판 문제를 한 번에 통과하게 된 것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때 첫 시험에서 이 과목들을 실패했다면 못 땄을 겁니다. 반대로 디자인과 설계실무는 떨어져서 다시 시험을 보았어요. 사실 설계실무는 문제가 길어서 반 정도 밖에 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다시 해서 되었죠.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기 까지 3년 걸렸습니다.

Columbus Convention Center

박 :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되었나요?

신 : 사실 제가 천재도 아니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는 PM(project Manager)를 하던 미국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당시 생각으로는 **그곳에서 건축사로 지속성 있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지요.**

유 : 그때가 아버지 부시 말기였어요. 제가 일했던 시카고의 SOM에서 90년 할로윈 날, 하루만에 거의 100명 정도를 레이오프(LAY-OFF)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할로윈 학살(Massacre)이라고 했을 정도이니까요. 제가 입사할 땐 600명 사무실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명도 안 남았지요. 그런데 일찍 레이오프된 친구들은 다른 준비를 해서 또 입사하거나 살길을 찾아가는데 비해 나중에 된 친구들은 참 어렵더군요. 그러니 레이오프가 안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을 것도 아니더라고요.

신 : 맞아요. **미국은 레이오프 시스템이 참 잘 되어있어요. 제가 있던 RTPA도 한 70명 정도 되는 사무실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면 분위기가 '싸~'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당일 레이오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15명 정도가 잘려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브라운 박스에 짐을 싸요.** 리만 브러더스 망할 때 TV에서 광경 보니까 옛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사무실이 다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레이오프 되어 나갔던 친구들을 먼저 채용합니다. 물론 월급도 더 줍니다. 사무실을 더 이해하는 친구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잘 없지요. 참 실리적인 사회입니다.

유 : 그렇죠. 레이오프와 해고는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요.

신 : 어제 기사를 보니(인터뷰를 1월 24일에 함), 오브 아룹(Ove Arup)이 영국에서만 600명을 잘랐고, 영국회사의 대부분을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 귀국하시면 가실 곳이 있으셨나요?

신 : 전부터 더 좋은 실무를 배우기 위해 전 시카고나 뉴욕 쪽에 있는 좋은 대형회사로 가고 싶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고, 친구의 추천으로 마침 한국의 금호건설에서 설계실을 만드니까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새로 만든다는 점이 좋았고, 삼우처럼 나중에 독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박 : 모셔온 것이군요.

신 : 조건이 좋았어요. 부장 3년차로 가게 된 것인데, 당시 저보다 5년 정도의

Wexner Center

위의 연배가 같은 회사에서 과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거죠.

박 : 금호건설 설계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신 : 그룹의 설계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연구소를 제가 주도해서 했고, 또 아시아나 항공의 아시아나 기내식 공장 등 공항관련 시설들을 했고, 또 금호 연수원 등을 했어요.

박 : 괜찮은 일들이었던 것 같은데 왜 나오시게 되셨나요?

신 : 설계실이 신생이라 견제가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워낙 그룹의 마인드라는 것이 저하고 맞지 않았어요. 한 3년 정도 하니 나오고 싶더군요. **건축이라는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건설의 부가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룹**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내의 회장이 바뀌면서 회사의 분위기가 많이 변경되었어요. 전 회장의 경우는 건축 설계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신 임회장은 건설 중심으로 생각하셨던 거지요. 저는 **기업 및 그룹 회장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성숙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호에서 나와서 이제는 건축사사무소에 가려고 대형 회사를 알아보는 중에 그러한 사무소에 있던 지인이 말리는 것이에요. 대형사무소와 저는 맞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우건축이란 곳에서 후배와 한 3년 함께 일했는데, 동시에 다섯 개 또는 여섯 개의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고 관리를 하다 보니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내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딱 한 개의 프로젝트를 갖고 혼자 해보고 싶었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후에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에겐 딱 1년만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고서… 그리고 제 이름을 걸고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이름을 신춘규 건축사사무소로 하려니 제 이름이 징그럽(?)더라고요. 변호사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우리 건축사사무소는 당시 자기 이름을 건 회사는 당시 거의 허가방(?)이었습니다. 그래 CGS로 하니 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2005년도에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하게 되었어요. 수술을 하고 몸이 회복되는 시기에… 늘 축구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건축 상황이 힘들고 하니 비용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 좋은 사무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해왔죠. **사실 학교 동문들이 모이면 범위가 오히려 좁아져요. 그런데 축구하는 친구들이 모이면 학교에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가능성도 넓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연고에 의미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사무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 축구하는 날에는 사무실이 비나요?

신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이나 A매치를 위해 해외 원정을 가는 경우, 건축사들은 거의 사무실을 비웁니다.

유 : 각각의 업무 방식이 다 다르겠고… 아까 들어올 때 사무실 첫인상이 무슨 법무법인회사 같다고 느꼈거든요. **모인 건축사들이 각각의 업무를 하고 어쩌다 같이 하기도 하며 분야가 다르니 서로 이야기 하다보면 문제가 풀리겠네요.** 어떤 사람은 시공사를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인허가를 잘 하고…….

박 : 여기에는 몇 명의 건축사가 모여 있나요?

신 : 시작할 때 6명이 있었고 최근에 이사하면서 젊은 건축사가 2명이 합류하여 지금 8명이 함께 합니다.

박 : 여덟 분이 모두 각각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시는 것이겠군요.

신 :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의 명칭이 '시그에이'였고, 법인을 중심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하며 시작하였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혼자 '씨지에스'를 운영 하다가 몸이 아픈 후에 10명의 건축사가 약정된 금액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었어요. 3명의 대표이사와 20여명의 직원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 역할을 하는 대표이사가 되고, 누구는 자기 사무실을 하다가 모두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중규모 사무소를 만들고 공동주택처럼 비교적 규모가 큰 현상설계 등에 중점을 두어 일을 하자고 했었는데…** 막상 저는 공동주택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따라서 개인적인 목표에 초점을 더 두기 위해 제가 나오게 되어서 다시 '씨지에스'를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 그럼 '시그에이'는 없어졌나요?

신 :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현상설계를 주로 하던 시그에이가 독립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그에이'는 큰 사무실을 두 개 층 썼는데, 아래층은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위층은 지금처럼 여러 건축사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이층의 팀이 같이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의 명함에 '시그에이'를 같이 쓰고 각자의 사무실 명칭이 있었는데 지금도 같은 시스템으로 가려고 새로운 그룹의 이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 :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각 사무실마다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있나요?

신 : 저는 4명을 두고 있고, 한두 명씩 직원을 두고 있거나 아예 건축사 혼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 : 직원들 간의 처우가 비교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신 : 그런 문제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일하거든요. 다른 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토요일에는 저희 직원들만 출근하지요. 다른 팀도 일이 있으면 개의치 않고 나오게 됩니다. 누군가 사무실에 항상 있으니까요. 저의 소신은 **건축은 배우며 얻어가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건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에 일하는 것도 자기 수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건축의 일과 생활이 분리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흥미도 줄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직원들이 '마지막 토요일만은 쉬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단, 일이 없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박 : 재미있습니다. 이제 이 사무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 : 대학 졸업을 언제 하셨고, 첫 직장은 어디였나요?

신 : 1978년에 졸업하였습니다. ROTC로 군 복무를 마친 후에 개인사정으로 코오롱건설에 입사했다가 6개월 만에 시공은 제 길이 아니란 것을 알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들어가려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예조건축(당시 한건)이라고, 김영덕 건축사님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유학가기 전 까지 파트타임, 풀타임으로 번갈아가며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시공사를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공채를 통해 삼

성건설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았고, 코오롱 건설에서 한 6개월 일하다가 잘 안 맞아서 나오고서 예조건축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3년차였는데요. 김수근 선생이 당선되었던 서울지방법원의 현상설계를 우리(예조)도 하게 되었어요. 3년차인 저에게 주무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법원에 대해 무얼 알았겠어요? 3개월 동안 집에 한번 가고 열심히 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한계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의 제 어린 생각으로 국내에는 김수근 선생 외에 건축사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분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2,000만원이었던 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유학을 떠난 것이지요. 갔다 오니 그 집의 가격이 2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한 격이었죠.

풍진 아이디 전경

풍진 아이디 동측 전경

박 : 그 당시 결혼을 하신 상황이었나요?

신 : 네. 거의 2년 되었던 때였어요. 예조건축(당시는 한건) 다닐 때 결혼 했습니다.

박 : 신 건축사님께서는 국내에선 메이저급 설계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전혀 없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큰 회사들은 조직상 매우 어려운 일도 많잖아요.

신 : 하지만 반대로 제가 다닌 회사는 직원들 간에 학력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 제가 시샘을 많이 받았죠. 4년제 대학 나온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은데, 게다가 또 대학원 다닌다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니 동료 직원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건방지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장님(강태석 건축사님)은 많이 배려해주셨어요. 한번은 회식 때 이름을 불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쫓아 갔습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따귀를 때리시며 건방지다고 소리치시고 벌주로 맥주잔 큰 것 두 잔을 내밀고 소주를 채우시더니 마시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사실은 직원들과 잘 지내라고 그 분 나름대로 이벤트를 벌이신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그날 설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김영덕 소장님 댁에서 밤새워서 울고 소장님은 달래느라 고생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참 저에게는 오래 기억이 나는 좋은 추억 중 하나입니다.

박 : 이런 모양의 사무실, 즉 '시그에이'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생각해 내셨나요?

신 : 사실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축구를 같이 하던 후배 들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함께 축구를 하면서 한 30여명이 7~8년 다니다보니, 서로를 잘 알게 되고 잠도 같이 자보고,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후배들이 이야기를 끝낸 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제게 제의하였어요. 그 무렵 저의 일도 좋지는 않았어요. 아파서 수술을 한 직후였습니다. 직원을 다 내보내고 한 명만 남아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일을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미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뒷골목에서 혼자 사무실을 할 때도 일이 없고, 비오는 날엔, 괜히 창밖을 보고 뛰쳐나가고 싶고… 제가 96년부터 한 5년 성균관대에서 가르쳤고, 그 후에는 연대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일이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죠. 일이 있을 땐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니까 괜찮아도 일이 없으면 아주 우울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이 많아지죠.

유 :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죠?

신 : 제가 씨지에스를 96년 말에 시작하고 한 삼년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뱅뱅 사거리 뒷골목이었고 40평을 혼자 쓰고 있었어요. 일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청담동에 동료가 함께 하자고 해서 합류를 했는데 3개월 정도 있으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쫓겨 나오기도 했어요.

박 : 그러니까 '시그에이' 이전에 씨지에스를 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편찮으셨던 2005년까지 씨지에스를 계속 하신 것이고, 그때 과정은 어려우셨지만, 운영이 잘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죠?

신 : 운이 좋았어요. 제일 처음 한 것이 풍진 아이디 사옥이었습니다. 신수동에 있는 것이었는데, 7층이고 600평정도 되었는데, 처음으로 제 설계다 싶어 열심히 했고 완공 후 건물이 좋다고 '공간'지에서 와서 싣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 하나로 소개 되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 작품이 더 생기면 그때 내겠다고 고사했어요. 계속 아이젠만을 팔수도 없잖아요. 아! 그런데 그 무렵 제가 아이젠만을 문예총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강의를 들으려 당시의 금호 설계실 직원들과 다시 갔어요. 그런데 강연하시는 분이 "지난주에 여러분은 화려한 슬라이드와 그림을 보셨을 텐데 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건축가들이 이야기 하는 건 전부 나중에 만들어 낸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마디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화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분은 아이젠만이 자기 건물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얼마나 고민하고 철학적인 사고의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너무 쉽게 매도해 버리니 화가 나는 거지요. 그런저런 이유로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 저널에 대해서도 약간 기분이 상해있던 때였어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한다고 생각했지요. 잡지에 글 쓰는 것도 고사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유 : 풍진 아이디도 하시고, 또 무엇을 하셨나요?

신 : 전부 작품성이 좋다고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때 현상설계 두 개가 되었어요. 장위 1동 동사무소와 동선1동 사무소였는데, 당시 어려운 사무실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곤지암에 소재한 전문대학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사장께서 외국의 우수 대학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참 난감했었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원하는 데로 가게 되었죠, 뭐. 크게 많은 일도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혼자 재미있게 이것저것 하면서 꾸려나갔습니다.

박 : 들어보니 **2005년의 수술이 참 큰 변곡점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신 : 그렇습니다. 그냥 고집스럽게 계속 가면 건축주에게 스트레스 받고, 또 남들 잘하는 것 보면, 난 왜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보면 폭음하고 담배도 많이 피고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전에는 제 방에 들어가면 담배를 손에서 놓질 않았어요. 구역질이 나면 아! 내가 너무 많이 피웠구나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거죠.

유 : 지금은 다 끊으셨고요?

신 : 네. 수술 후 딱 끊었습니다. 아, 술은 합니다. 술은 못 말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폭음은 하지 않아요. 사실은 2003년부터 아팠는데, 축구하면서 견뎌낸 거죠. 지금은 건강해요. 수술한지 5년이 지나서 중증 환자에서도 벗어났지요. 당시 수술 후 한 17kg의 몸무게가 빠졌었는데 지금도 사진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주 건강한 몸무게예요. 제 키와 비교해보면 말이죠.

박 : 사실 건축사들의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잖아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연속되는 인생인데요.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면 무엇이 가장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신 : 즐겁게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주의 조건을 다 수용하자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마음에 안 들면 저 혼자 막 씩씩거리고, 직원이나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수용하려 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것은 현장을 더 자주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하니 건물의 품질이 점점 좋아지죠. 대략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 : 긍정적으로 바뀌셨다는 게, 현장을 자주 가시게 되었고 또 건축주들과 관계가 좋아지셨고….

장위 1동청사

장위 1동청사

신 : 결국 일을 계속 하기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요.** 제가 설계한 이 공장(아임삭 공장)도 설계를 처음 완료한 후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주에게 2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추가로 작업을 해서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건축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쉽게 동의를 해주셨고요. 아마 자기 건물 더 잘 설계해주겠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 시간동안 기능은 동일하지만, 단면과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 : 병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시그에이로 변신을 하셨군요. 그런데 이때도 축구는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신 : 네. 축구하다가 생긴 일이 많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머리 찢기고, 4학년 때는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ROTC도 임관이 되네, 안 되네 말도 많았습니다. 깁스하고 있는 중에도 "이것 풀면 바로 축구하러 가야지."하는 생각을 했고, 사실 깁스하면서 야구는 가끔 했습니다. 암수술 후 첫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자마자 의사선생님에게 속이고 일본에 축구 원정을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축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 : 수술하실 때, 씨지에스는 문을 닫으셨나요?

신 : 아닙니다. 그냥 있었죠. 그 이후에 시그에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1]

박 :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신 : 젊은 후배들이 대부분인데요.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 중 비교적 마음이 맞고 함께 하는 것에 동의를 한 건축사들입니다.

유 : 건축사라는 것과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 또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공통점의 전부이군요.

신 : 그렇죠. 축구하는 팀 멤버 중 저희끼리 모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마음이 통하고 양보할 수 있고, 상호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유 :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이신가요?

신 : 그렇습니다. 축구 동호회 후배들 중 몇 명이 먼저 이야기하다가 제게 대표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한 것이죠.

유 : 혹시 신 건축사님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소위 보스(BOSS)기질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 : 전 없어요. 제가 큰 소리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정의롭지 못한 것은 싸우기도 하지만 정작 싸움이 나면, "서로 화해하고 사과해."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니까요. 축구모임에서도 회장한 적 없고 그런 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시그에이는 처음 2006년 1월 김지호, 박종렬, 신춘규 3인이 공동대표로 설립함.
투자건축사는 공동대표이외에 김용배, 구본창, 박정기, 고재형 건축사 등이 있으며, 참여건축사에는 손수근, 장덕기, 이종우 건축사와 추후 손창수 건축사가 합류함.
현재는 시그에이와 분리하여 이전하고 신춘규, 손수근, 손창수, 박종렬, 이종우, 장덕기 건축사와 젊은 새 멤버인 강미송, 송태성 건축사 두 명이 합류한 상태임.

아임삭 공장 전경

박 :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시그에이의 모습이지만 다시 씨지에스로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그에이가 외형도 키우고, 클라이언트를 다양하게 만들고, 일도 협력적으로 하고… 등 많은 건축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서 알게 되신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 : 장점이 훨씬 많죠. 우선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외로울 시간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시그에이는 투자 건축사, 참여 건축사로 나뉘게 되고, 투자 건축사는 투자를 하고, 법인 이사로서 활동을 하죠. 대표이사는 또 별도로 있고, 참여 건축사는 투자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박 : 그러니까, 참여 건축사는 투자는 하지 않았어도, 임대료와 비용은 지불하고 있겠네요.

신 : 그렇죠. 자신이 사용하는 면적과 시설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박 : 그러니 공유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겠습니다.

신 : 네. 사무실에서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나누는 것이고, 투자 건축사는 투자를 통해 법인의 이익추구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최초 2년 동안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그에이가 공동주택 마켓에 처음 들어가서 수업료를 톡톡히 내었죠. 7개의 현상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류하고, 일부 멤버를 새로 영입했어요. 그리고서 2기 때에는 성공을 하였습니다. 한 12개 정도 현상설계에 당선을 하였는데, 안타까운 것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여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공공의 주택정책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내뱉는 발들이 후배들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안에서 씨지에스를 부활하기로 결심을 했지요.

유 : 투자 건축사는 사무실에서 나갈 때 투자한 금액을 다시 받아가게 되나요?

신 :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박 : 혹시 시그에이에 함께 했었던 건축사 중에 나가셔서 잘 풀린 건축사가 계신가요?

신 : 글쎄요. 아직 3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사람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 사실 좋은 제도인데, 유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 : 실적도 공유가 되나요?

신 : 네. 시그에이 그룹으로 해서 실적은 공유했습니다.

박 : 저는 이런 방식에 대하여 흥미 없는 건축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 : 저희 사무실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지역에서 합동사무소 형태로 그룹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 그러니 결국 시그에이를 나오셨지만,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런 조직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네요.

유 : 뭐, 싫어서 나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비지니스상 나오신 것이니…….

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산이 될 수 있는 다시 우리 그룹의 이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 : 조금 더 질문을 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 중에도 인정하셨지만, 같이 한다고 해서 서로 잘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약간은 선택적 연합, 혹은 전략적 연합이 더 유효하진 않을까요? 지금 신 건축사님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비즈니스를 위했다기보다는 축구를 하다가 만나시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르다고는 하셨지만, 정합된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질문입니다만, 혹시 셀렉티브 콜레보레이션(selective collaboration)에 대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요?

신 : 안 해보았습니다. 저는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사실 모이고 나서 보니 학력도 학벌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소속 건축사들은 각기 다른 학력과 학벌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두 열심히 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주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좋고 매너도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들을 후배들에

아임삭 로비

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배울 것도 많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 : 이제 작품 이야기로 가서, 저 '아임삭공장'이 최근에 하신 것 중 뿌듯해 하시는 작품인가 봅니다.

신 : 그렇습니다. 잘 키운 자식으로 생각하죠.

박 : 사실 오늘 청강대가 주 건물인데, 저 공장을 함께 이야기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름이 특이 한데요. 무슨 공장인가요?

신 : 손으로 작동하는 전동공구를 만드는 업체의 공장입니다. 국내에서는 계양 다음으로 큰 공구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 영어의 약자입니다. 이 건물의 프로그램은 공장, 사무동, 복지동으로 되어있고, 배치도를 보면, 넓은 면적이 공장이고, 전면에 있는 것이 사무동, 옆에 있는 것이 복지 후생동입니다. 옆의 인근 대지는 돼지사료 공장인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창을 낼 수 없었고, 단절하는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납품할 때는 하나의 매스로 만들었다가, 수정을 통하여 사무동과 복지동을 나누고 그곳에 외부공간을 도입하였죠. 폭이 4m 밖에 되지 않아서 아임삭 밸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 혹시 이 공장을 신축하고 나서, 아임삭 공장에 큰 부가가치가 발생한 내용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주식가격이 올랐다던가 아니면 대지가격이 올랐다던가? 간접적으로는 직원들의 능률이 좋아졌다던가? 애사심이 더 좋아졌다던가? 뭐 이런 결과들을 아시는 게 있나요?

신 : 최근에 사세가 많이 확장되었다고 하고 오송에도 추가로 공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장건축의 설계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상장된 회사가 아니어서 정량적으로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 드리면, 복지동은 1층에 식당과 휴게공간, 2층에 체력 단련실이 주기능이고, 사무동은 1층에 대회의실과 접견실이, 2,3층이 각각 사무실과 연구실 기능을 갖습니다. 손님을 사무실로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공장 내에 체력단련실을 두는 것과 사장실이 사무공간과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한 직원들 덕분에 체력단련일 대신에 사장실이 복지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장께서 주중에는 거의 숙식을 공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유 : 몇 년도에 준공되었죠? 또 공사비 단가는 얼마였나요?

신 : 2008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평당 2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 : 상당히 낮은 공사비인데 그 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신 : 사실 사무실의 바닥 마감을 에폭시 코팅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료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저렴하죠. 그런데 겨울철 공사이기도 해서 바닥 난방을 했는데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모두 크랙이 발생하는 거였어요. 세 번 정도 시공을 다시 해봤는데 안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비닐 타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장에는 외벽에 일부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채광을 작업공간에 극대화하고 야간에는 건물자체가 조명박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사용했는데 직원들이 적응을 못해 내부에 필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2008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민관부분 대통령상을 받게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 저 폴리카보네이트가 방화구획이 아닌 부분에 사용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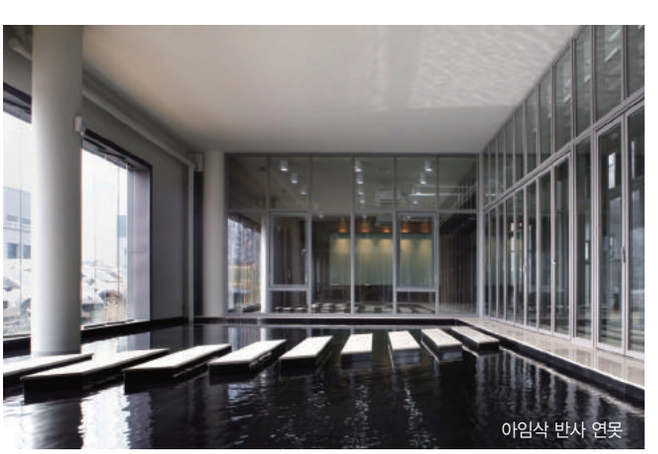
신 : 네 40mm 두께이고, 방화가 필요 없는 외벽에만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 : 근데 공장이 두 개 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신 : 네. 아래층은 제품창고 이고 상부 층은 공장입니다.

유 : 소음관계는 어떤가요?

아임삭 밸리


아임삭 반사 연못

청강문화산업대학 창작마을 전경

신 : 그래서 매스를 분리한 것입니다. 물론 소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지만, 건물이 분리되어 있으니, 소리가 많이 차단됩니다. 공장도 4개의 섹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폴리카보네이트가 햇살을 많이 들여보내니,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더라고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별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못 참고 필름을 붙이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현장에 방문을 잘 못합니다. 마음 아파서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공장 앞부분에 억새풀을 심었습니다. 칼라강판의 무거운 색상과 대조적이어서 상당히 보기에 좋았고 아주 멋있었어요. 건축문화대상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도 좋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사장이 정리 좀 하라고 경비에게 이야기 하였는데, 그냥 모두 싹 잘라버렸어요. 참 아쉽습니다.

박 : 그럼 청강문화산업대에 대해 이야길 좀 하지요. 이 학교가 어디에 있나요?

신 : 덕평에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덕평 IC에서 나가면 지산 리조트 근처입니다.

유 : 오래된 학교인가요?

신 : 아니요, 13년 된 학교입니다. 그다지 오래된 학교는 아니죠. 마스터플랜이 13년 전에 만들어졌고 남양 알로에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참 학풍과 교육이념이 좋은 학교입니다.

유 : 어떤 과들이 있나요?

신 : 문화산업대이므로 도자기과, 공예과, 무대미술과, 만화창작과, 의상디자인, 애니메이션과 등이 있고, 특성화에 성공한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대부분 건물의 재료가 붉은 벽돌이었지요. 저는 건축주로부터 좀 색다른 건물을 주문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붉은 벽돌과는 다른 산업재료를 이용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었죠. **기분 좋은 것이 모 기업에서 돈을 벌어 허튼 곳에 쓰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참 좋은 학교라는 생각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구된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강의실, 기숙사, 창작공간, 다목적 홀, 그리고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준공식 행사에서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를 초청하지 않아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저는 늘 서열 3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언제나 행사와 공연에는 제가 초대받아 3번째로 앉습니다. 이사장, 학장, 그리고 제가 앉게 됩니다. 참 좋은 건축주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축주입니다.**

유 : 건설회사는 어디였나요?

신 : 강산이라는 회사이고, 서울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건축문화대상 심사 때 좀 당황한 일이 있었어요. 한 심사위원께서 현장실사를 오셔서 "이런 마감에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나요?"라고 제게 물었고, 제가 "평당 28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더니, 사기 치는 것 아니냐고 하셨어요. 물론 웃으시면서 그런 거죠. 그 분의 경우, 국내 모 대학에서 비슷한 시설을 하는데 평당 450만원으로 공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알려지면 자기가 큰일 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중 심사평에 "공사비를 아주 저렴하게 했다는데,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쓰신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죠. 그냥 농담 하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유 : 그러니까 **저렴한 재료를 고급스럽게 사용한 것에 대해 모르시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 : **사실 제가 공사비를 언급한 것은 '참 고생해서 어렵게 이런 품질을 얻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였는데 건축계 선배께서 고생했다는 격려 말씀보다는 불신을 갖고 대하시니 조금 난감했었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 이고…, 이 건물은 경사지에 지어져서 상당히 다양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2층까지 모든 층이 외기에 접하고 또 외부공간을 갖고 있어요. 참 좋은 조건이죠. 건축허가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주계단을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개방하여 두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방화구획이었는데, 모든 층이 외기에 면하고 탈출이 가능한 조건이므로, 땅속에 묻힌 것과 같은 조건을 대입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과 한동안 갑론을박 하다가 방화구획을 제외하기로 하였어요. 담당공무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 잘 정리되었네요.

유 : 그렇게 소신 있게 결정해 주면 참 고맙죠. 공무원이 참 고민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신 :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대행검사를 받다가 생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손스침에 관한 내용인데요. 노인시설은 일정크기의 둥그런 손스침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교육연구시설은 손스침을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업무대행 건축사가 와서 손스침이 없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법을 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가서 따졌죠. 하지만 학사일정으로 사용승인 취득이 급하여, 업무대행건축사의 지적대로 일단은 부분 설치했어요. 국토해양부에 유권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행령과 지침의 정합이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법의 취지를 이해하며 업무를 봐야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박 :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신 : 관련된 모든 분 들이 고생하셨어요. 건축주도 고생하고, 건설사도 매우 고생했어요. 특히 공사비가 쪼들린 상태에서 참 고생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참 잘 쓰고 있어 매우 흐뭇합니다. 각 공간을 창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학생들 작품도 전시하고, 교수들 작품도 전시하고, 보기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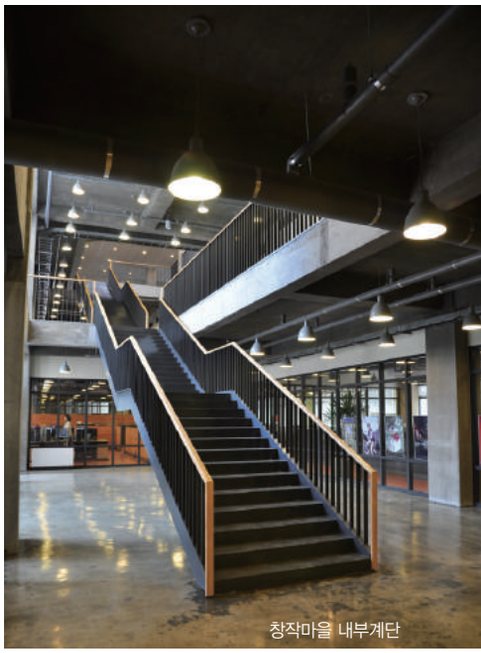
유 : 벽체는 시멘트 블록을 사용하셨네요. 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학교에서는 참 유용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신 : 네. 요즘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의외로 설득하기가 참 힘들어요. 흔히 그 위에 페인트칠하거나 아예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박 : 이제 좀 다른 부분으로 간다면, 신 건축사님은 또 대한건축사협회의 이사님이시니까 협회에 관한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신 : 선거철이라서… 조심스러운데요.

창작마을 중정


창작마을 내부계단

박 : 조심스러운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신 : 벌써 회장이 3대째 이어지도록 제가 국제담당 위원장과 이사를 하고 있지요. 회장님이 나오실 때 마다 협회에 건의하는 내용을 제가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우리 스스로는 건축사 단일 집단이라고 착각하는데 우리협회야 말로 의견이 참 다양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당장의 제도 개선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그러면서 서로 힘들어하는 것 보다는 크게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크게 돌아가면서 일반인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식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를 위한 밥그릇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잖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 지난번 3단체 통합이 부결된 이유도 우리 사협회에서 "지금 있는 건축사라는 타이틀과 조직을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합니다. 크게 보면 자신감이 세워지고, 열심히 하면 사회에서 더 좋게 봐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날 텐데 그걸 수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건축사라는 전문 면허는 나라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접을 스스로 받으려고 주장하는 것 보다 대접받을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을 해보니 워낙 서로의 이해가 달라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의 바람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협회가 우리 회원들에게 편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했으면 합니다. 회원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많이 생길수록 회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 「건축사」지를 미국의 'Architectural Record'지 같이, 혹은 국내의 'C3'나 '공간지'처럼 만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배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5,000부는 그렇게 배달하고 나머지 한 3,000부는 서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KIRA 라운지를 만들자고 하고 있어요. 구내서점도 만들고… 사실 지난번 협회건물 2층에 친환경 아카데미 교실을 만들었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3층의 국제회의실을 쓰도록 하고, 다시 이곳에 학생과 일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면 참 좋겠더라고요. 또 구내서점에서는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회원들이 회원가 적용을 받아 2~3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 : 참 좋은 생각입니다. 찬성합니다.

신 : 그런 것이 바로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또, 미국 건축사협회처럼 소품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 건축사가 하시는 것처럼, 공공과 매칭 펀드를 협력투자해서 어려운 곳의 주거를 개선해 준다던지 공공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축구하러 가서 진하항이란 곳을 가보았는데, 해안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동네의 건물들이 너무 난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 건축사들에게 말했어요. 군청의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수립해보자고 필요하면 서울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후에는 설계가 지역의 건축사들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호응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 :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신 : 글쎄요. 출판도 그래요. 좀 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을 우리협회가 주도하여 만들어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정림에서는 건축 매뉴얼 책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내부이견으로 잘 안되니 참으로 안타까워요. **계속 제도만 갖고 싸우면 뭐하나요?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인정은 못 받고 보상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하는 식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 해외건축 제도 연구를 위해 네덜란드의 건축법을 보았는데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인 즉, 도시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이므로, 도시를 다루는 도시계획가, 건축사 및 조경전문가 등은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석을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법이 많다고 일반인들이 더 존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근에 협회장 선거를 시작했는데 회장의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더 실질적인 일들에 관심이 있는 분이 회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 : 국제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신 건축사님은 외국과 한국의 상황을 잘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신 :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대해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 오하이오 주 정도를 좀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뭐 미국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봐 염려되기는 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유 :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드리면 될 수 있겠지요.

박 : 협회에 관한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동업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신 :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힘들다고 힘든 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후배들을 위해 사회봉사를 하고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사회에 건축사로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여 우리 건축사가 존경받는 전문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 : 일반 대중에게 건축사로서 하실 말씀도 있으실 텐데요.

신 : 역시 일반대중보다는 건축사 스스로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의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지 않을는지요. 얼마 전 정기용 선생님의 전시회를 일민미술관에서 했는데요. 아침 주요시간대에 KBS TV 에서 문화보도 시간에 한 문화부 기자가 보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건축이 예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전시회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이 글을 읽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건축이 지식산업이라고 토론회도 하고 또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도 지식산업의 과정을 거쳐 문화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시 등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건축사들이 도시에 대한 비전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몇 사람의 의식 있는 건축사들로는 너무 부족하고 전반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은 너무 큰 규모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2,30년의 생활의 패턴과 흔적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유지해 온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기다 주택을 지어 공급한다는 것은 도시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죠. 제가 출근할 때, 우면동 개발과 광교 등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좋은 경관이 있던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있어요. 꼭 해야 된다면 신중하게 환경을 고려하고 주택 유형을 환경에 맞게 개발해야 할 텐데 지금은 조금도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경관의 변화를 한국에서라면 5년만에라도 바꿀 수 있지만, 한번 개발하고 나면 결코 도로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2000년도에 나온 'New Urbanism Charter' 같은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같이 큰 나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박 : 협회에서 성명서 같은 것도 만들고 좀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협회가 아무런 의견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 : 하지만 그건 협회의 생리상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큰 사무소는 큰 사무소대로, 작은 사무소은 작은 사무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아주 복잡합니다. 협회가 분명한 건축사의 집단으로 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협회 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건축사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협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같은 방향으로 명분을 모으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 이제 끝으로, 옛날로 돌아간 질문 드릴게요. 언제부터 건축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으셨나요? 적어도 관심이 생긴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신 : 사실 어렸을 때는 관심 없었어요. 저는 의대에 가려고 했거든요.

유 : 어쨌든 건축과를 지원하신 것이잖아요.

신 : 의대를 가려 했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이유로 연세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담임선생께서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대 의대에 갈 실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의대나, 우석의대, 충남의대에 가라고 지도 하셨죠. 그런데 전 꼭 연대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네 성격엔 건축과에 가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그 이야길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유 : 그럼 건축학과에 들어가서 언제쯤 건축을 진정으로 좋아하시게 되었나요?

신 : 제가 2학년 때 유경철 교수님 설계수업시간에 교회설계를 배웠는데, 교수님이 제 아이디어를 보고 "야 이것은 국제현상에 나가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 : 그렇군요. 역시 칭찬의 힘이군요.

박 : 그렇죠. 인생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 : 그리고 내가 설계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젊었을 때는 언제나 제 주변에는 저보다 설계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 : 그런 분들이 누구신가요?

신 : 굳이 든다면, 이필훈(정림건축)이나, 고재형(마인건축), 박영수(기오현) 같은 친구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 저희가 이번으로 열한 번째의 인터뷰 하는데요. 신 건축사님은 지금까지 인터뷰 했던 분들과는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과연 참 재미있었습니다. 또 청강대 관련 내용도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지나오신 이야기를 들으니 참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김수근, 김중업 선생 같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신 : 제가 이러한 인터뷰에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유 교수님 멀리 대전에서 오셨는데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유 : 앞으로도 좋은 건물, 또 협회 만드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유 걸

미국(AIA) 건축사(1984년)
1940년 5월 19일 철원 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63년)

내가 본 건축가 유걸

그의 나이가 일흔을 넘었다는 사실을 그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그를 일흔이 넘은 노건축가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의 작품은 싱싱하고 젊고 도발적이기 까지 하다. 젊은 건축가들에게 '너희들 나만큼 할 수 있어' 라고 뽐내는 듯이 말이다. 아마도 그가 미국에서 가구 만들기, 집지어 팔아보기 등의 일반건축가들도 좀처럼 해보기 힘든 영역을 넘나들어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건축가 혼자 사무실을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깨닫고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들과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이미 만들어 낸 것은, 역시 내용 중에 스스럼없이 그가 밝히는 돈을 벌고자하는 목적보다는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하며 건축사무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묘수풀이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기대가 된다.

최동규 편찬위원장

화가인 부친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미술대학보다 건축과를 가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내가 왜 건축과를 지망했나를 마흔 살이 넘었을 때 생각해보니, 고등학교시절에 조각 반에 들어가 여가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각도 하고 했지요. 부친께서 일본 우에노대학을 나오신 화가(유형목)신데 평생 미술선생을 하시면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 탓인지 미술대학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서른 살에 조각만 하겠다고 생각했지요. 1959년에 공대를 입학했는데 건축과가 집짓는 데인지 부동산을 다루는 데인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떼돈을 벌거라고 생각했지요.

다시기억해보니 큰형이 5학년 때 검정고시보고 공대건축과 입학이 안 되어 의대에 지망해서 의사가 되고, 둘째형도 건축과 지망했다가 세브란스의대에 입학하여 의사 되고, 그래서 저더러 건축과 안 되면 의사 되서 삼형제가 병원 차리자고 하셨지요. 의사인 형들은 안정되게 살고계십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는 늘 A학점을 받았다

건축과 다니면서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인데 다른 과에 입학했다면 졸업 못했을 지도 모르지요. 대학교 학점이 전반적으로 형편없었는데 설계학점만은 늘 A를 받고 평균이 C였으니까 다른 분야로 갔으면 졸업 못했을 것 같습니다.

대학졸업 후 무애건축을 거쳐 김수근 선생에게로 가다

63년에 졸업하고 이광노 선생이 하시는 무애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삼년일하다가 공일곤 선생이 무애에 들어왔는데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더러 당신은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요. 당시 저는 김수근 선생 이름도 모르고 그 사무소가 건축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단지 선배가 권하니 그러면 그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지요. 65년에 무애를 그만두고 65년도에 김수근 사무소로 갔지요. 공일곤 선생의 도움이 컸고 윤승중 선생에게 전화해서 김수근 선생에게 저를 추천해주었지요. 거기서 68년 말까지 직원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70년 말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주로 김수근 선생님 일을 많이 했지요. 주로 공간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조영무 선생이 권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70년 초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71년부터 미국 덴버의 설계사무실에서 일하다

덴버에 있는 사무소에 71년 1월부터 75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덴버에서 다른 사무소에 취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건축사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안정이 되니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처남이 가구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해본거지요. 그때 디테일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그때까지 12~13년 동안 설계 사무실에서 작업을 할 때도

대부분의 일들이 계획하는 일 들이 주고 실시설계라든지 상세를 접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계획만하면서 늘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가구 만드는 것이 썩 장사가 잘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80년대에 미국에서 집을 지어 팔았다

80년대에는 미국에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직접현장에서 집을 지을 때 목공일도 손수하고 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을 직접 잘할 수 있습니다. 서너 채 지어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도 지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론은 생각을 하면 생각한대로 집은 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요. 지어 보고나니 계획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집은 좋다. 상상이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하지요. 83~84년까지 단독주택을 지어서 팔아보았는데 그것도 돈을 못 벌더군요. 그때 내가 확인한 것은 돈을 벌려면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한국에 나오기 시작하다.

당시 한국에서는 막 올림픽준비로 84~5년 당시 올림픽관련시설들이 설계경기로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올림픽선수촌이 우규승, 황일인 팀에서 당선되었는데, 우규승 선생이 저더러 같이 하자고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85년부터 서울에 나오게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되었지요. 올림픽 치르는 동안 성북동에 서세옥 선생 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미국가기 전에 내가 설계했던 것들과 비교를 해볼 때 한국에서는 한옥 옆에 집을 지으면 한옥과 조화가 되는 계획안을 생각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히려 대비를 시키자고 생각했고 그대로 되었고 제가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북동 서세옥 선생 댁을 비롯 전주대학교회를 설계하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주대학교 교수가 덴버신학교로 유학을 오시고 한 블록 떨어진 집에 살았는데, 그분이 학교로 돌아간 후에 대학교회 짓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해서 그 일로 서울에 자주 오게 되고 그런 차에 강변교회도 설계하게 되었지요. 그 당시는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고, 그 당시 일하던 분이 현재 파트너로 있는 김정임소장입니다. 그러다가 천안고속철역사를 하게 되었지요. 첫 번째 고속철역사인데 당선이 되었고(건원 합작) 97년도에 IMF 때문에 전부 백지화되고 디자인이 변경되어 많이 축소되고 원안은 실현을 못하게 되었지요. 당시에 콘코스가 협소해지고 고가구조이며 도시는 철도 앞뒤로 다 존재하는데 도심을 관통시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특히 철도로 분리되는 도시를 어떻게 하나로 연결시키는가를 많이 의식했지요.

2000년 경희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초청받다

2000년 경희대학교 조창한 교수가 은퇴하면서 경희대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 더욱 많이 있게 되었지요. 점차 서울 사무실에 인원이 많아지면서 책임도 생기고 오히려 서울에 주로 있으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생활패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김수근 선생의 공간사 시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순수예술 하는 식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나 김 선생이 '나는 이런 거 못 팔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마치 건축을 조각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말 듣고는 너무 창피해서 공간사에서 더는 디자인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과 말할 때는 이유를 정확하게 댈 수 없는 것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직선, 원 등 왜 채택했는지 늘 설명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이 도움이 되어 습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사무실에서 일할 때 미국의 경우 분석이 습관이 되어 있는 나라였지만 자신이 있었고 미국 사무실에서 처음 일할 때 말이 잘 안 통하니 천상 그림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미국 설계사무실에서 건축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강훈련을 하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옐로우페이퍼 트레싱지를 한 덩어리씩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삼 년 하다 보니 비주얼라이즈(visualise)하는 것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건축은 생각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트레이닝이 된 거지요. 미국에 가게 된 동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당시 서울에서는 건축가로 내가 취직할 때가 없었어요. 당시에 내가 사무실을 차린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고 아직도 학생이라는 생각이었고 돈을 받고 설계를 한다는 생각을 서울에서는 못했습니다.

당시는 일본도 못가고 중국도 못가고, 넓은 나라인 미국에 가서 지낸다면 좋을 것 같았고 미국은 큰 나라라 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에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주해서 오는 문화충격은 큰 것인데 설계사무실 들어갔을 때 그들과 내가 생각하는 판단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이 힘들었지요. 내 생각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힘들더군요. 그러면서 나는 한국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당연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건축적으로는 내가 많이 실용적이 되었습니다.

건축주의 니즈(needs)를 해결해주는 실용적인 마인드가 되다

한국에서는 설계할 때 건축가들의 생각이 많은 결정요인이 되었었는데 비해 미국에서 일하면서 건축주의 니즈(needs)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쪽의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건축가 마음대로 구나하는 생각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건축계가 건축가의 낙원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건축은 현실을 토대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디자인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성격도 그렇지만 건축적으로 툭 터진 공간을 좋아하는 것은 덴버에 살면서 만들어진 감각 같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공간감은 좋게 말하면 아기자기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잡하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시원한 힘은 없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있었어도 그런 감각을 유지했을지는 모르지요.

적정 설계비란,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정도가 되어야한다

서세옥 선생 주택 일 이후에도 일이 계속되는데 설계비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덜 받고 많이 해주면 손해보고 많이 받으면 도둑놈이라고 할 텐데 적정선이 어떤 것인지 고민한 거지요. 최종생각은 일을 하는 동안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받으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지요. 그런데 편하

게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이 지불되더라도 다음 일할 때까지 간격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누가 먹여 살리지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겁니다.

나 말고도 과실을 맺는 나무를 생각하며 파트너십 체제로 사무실 조직을 바꾸다

사무실을 만들자고 생각한 것은 나와 또 모두가 같이 과일을 따서 먹는 나무를 만들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즈니스 엔티티(business entity)를 생각한 거지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생산(produce)을 하고 보상(reward)을 받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파트너십으로 운영한지가 7~8년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하기 전에는 내가 주로 일을 만들고 내가 급료를 주고 그랬지요. 아이아크 만들기 전에 인터아키텍트라고 90년 말 2000년 초에 손학식, 조병수, 고주석 박사, 유걸 등 네 명이서 풀(pool)로 장소를 공동 이용하고 현상도 같이하고 그러자는 취지로 이삼년간 장소를 이용하고 그랬는데 어느새 각자 독립해서 일을 할 만하게 되고 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운영하다가 파트너십으로 바꾼 것이지요.

파트너는 일도 수주해 오지만 운영에도 책임을 진다

파트너는 박인수, 김정임, 유걸 이렇게 셋이서 했는데 그다음에 하태석 씨가 합류했지요. 파트너들은 운영에도 책임을 집니다. 수주부터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니 돈 버는 데는 기술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 문제에는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저자신이 그나마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니 설계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나 열심히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운영에 능한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더욱 공동운영하고 모든 것을 같이 협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밀알학교, 배재대학 등의 좋은 건축주를 만나 좋은 결과를 얻다

개업 후 대표적인 일들을 돌아보면, 2002년에 밀알학교를 했습니다. 아이아크에서 한 프로젝트는 중간에 버려진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설계로 시작해서 감리까지로 끝나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러니 내가 설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할 프로젝트가 없다는 말이지요. 저하고 건물에 대한 관계를 볼 때 오히려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기억이 납니다. 밀알학교를 제가 나가다보니 객관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배재대학교의 국제관과 기숙사, 신학관(2010년 준공) 등의 건물이 기억납니다. 배재대학은 참 좋은 건축주입니다. 오너가 없는 대학인데 총장부터 시설과 까지 좋은 분 들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즐기는 편이지요.

트라이 보울로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다

최근에 안중근 기념관 준공식에 건축사가 앉을 자리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배재대학은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건축가를 먼저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건공장(2004년), 강변교회, 경희대학교 강의동, 트라이볼(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아산정책연구원 등입니다.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트라이 보울 이지요. 건축적인 성취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건축적으로 구조설비 등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쓸데없는 것이 전혀 붙어있지 않은 건축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장(statement)이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회사규모는 50명 정도 되구요. 파트너는 저를 포함 신승현, 오서원, 김정임, 하태석 등 5명입니다. 매출이 50억 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저 빼고 다 사십대 초반입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는 70이 넘었지만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이를 생각안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의 자격은 혼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되고 건축주가 믿고 맡길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파트너의 일차적인 능력은 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냥 생산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아크의 파트너는 독립된 건축가의 이미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축가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받느냐와 어떻게 인식되느냐 인데 두 가지를 적당히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축프로세스과정은 만능인을 필요로한다

건축프로세스에서 각자 역할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생산을 많이 하게 되는 데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스페셜라이즈(specialize) 된 팀이 테크놀로지(technology),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lity), 퀄리티 컨트롤(quality control) 등 세 분야를 지원하고 설계를 하는 팀은 제네랄프랙티셔너(general practitioner), 제네랄리스트(generalist), 르네상스맨(renaissance man)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 년에 50억을 벌면 엄청나게 행복하지요. 순수입은 30억 정도입니다. 실시설계 등 모든 것을 사무실내에서 전부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건축가들이 생산성이 낮은 편입니다. 설계과정을 보면 리소스(resource)들을 사장하고 일을 정리 조직하여 적합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아이아크의 강점은 장기적인 변화 단기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면에서 4년 동안 전 사원이 레빗을 사용하여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실제로 짓는 거와 3D로 그리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평면 단면 그리면 세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중에 현재로는 건축설계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을 뿐이다.

사십대 중반에 위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내가 설계를 하려고 사나, 살려고 설계 일을 하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좋은 수단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택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축을 굳이 안 해도 좋다고 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배경에 깔고 있지요. 그런데 마치 건축 때문에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보는데 그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직업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내게 설계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수평관계를 중시한다

나는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대한 생각 에서도 권위주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할 때도 그런 생각이 있고 직위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파트너라고 이름을 붙였고 직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애려고 합니다. 다만 수평관계중심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대내적으로도 익숙하지 못하고 호칭도 문제고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건축주를 만나든지 하면 상대가 직위가 있으니 이쪽도 직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 불편하지요. 수평관계를 어떻게 정착시키는가가 우리사무실의 커다란 이슈중의 하나입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강한 생산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승계 문제는 이미 파트너 중심 수평관계 중심에서 보듯이 오너십 중심의 관습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어떤 오너십 승계의 문화가 더 지속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보다 파트너가 일을 더 많이 따오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건축가라는 전문의식 때문에 본연의 인간성을 잃지 말라

후배건축인 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이 전문 의식 때문에 본연의 인간성을 잊는 때가 많습니다.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걸 자체로 살아가는 것, 건축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 각자 하나의 개인으로 사는 것이 한국문화풍토에서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의 소탈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면서도 정치인이 되면 변신하여 백팔십도 연기자가 되는 것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건축을 잊어버리고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신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나를 보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요. 답답한 것도 싫고 어찌 보면 청개구리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싫습니다. 요는 어느 편에 묶여지는 것이 싫은 것이지요.

내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장래 목표도 없어요. 내가 살아온 것을 보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미국에서 집을 지어본 경험이라든지 나의 삶 모두가 지금 내가 되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데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거든요. 요즘 특강요청을 받으면 열린사회, 열린 건축에 대해 말하는데 사람들이 투명하게 열림 마음으로 사는 세상을 건축화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교회프로젝트가 하나씩은 있는데 천안역 앞에 짓는 교회가 있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강의 동, 카이스트 과학 동 등 대학교 설계를 자주하게 됩니다.

설계할 때 중시하는 것은 공간이 인간보다 우월하게 느껴지지 않게 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설계 시 강조하는 것은 공간이 인간보다 우월하여 사람을 지배 할 수 없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한번 해본 것은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늘 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계의 환경이 열악한 것이 건축주의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건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며 건축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재 한국건축계의 건축 환경이 열악한 것을 다 건축주의 문제로 본다면 오히려 좋은 건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요. 건축설계환경이라는 것은 건축가가 편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면 설계는 잘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건축주가 건축가를 신뢰할 때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데, 건축가가 신뢰를 얻을 일을 못하는 건지 건축주가 신뢰를 주지 않아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것인지 논란을 할 수 있겠지만 건축가의 편에서는 먼저 신뢰를 얻도록 일을 해야겠지요.

건축 환경이 열악한 이유는 건축계 자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라는 전문인 의식 때문에 건축 밖의 세상과 인간적인 소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계도 담으로 막혀있습니다. 건축주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건축계의 합의된 의식을 만들어 내기 전까지는 건축 환경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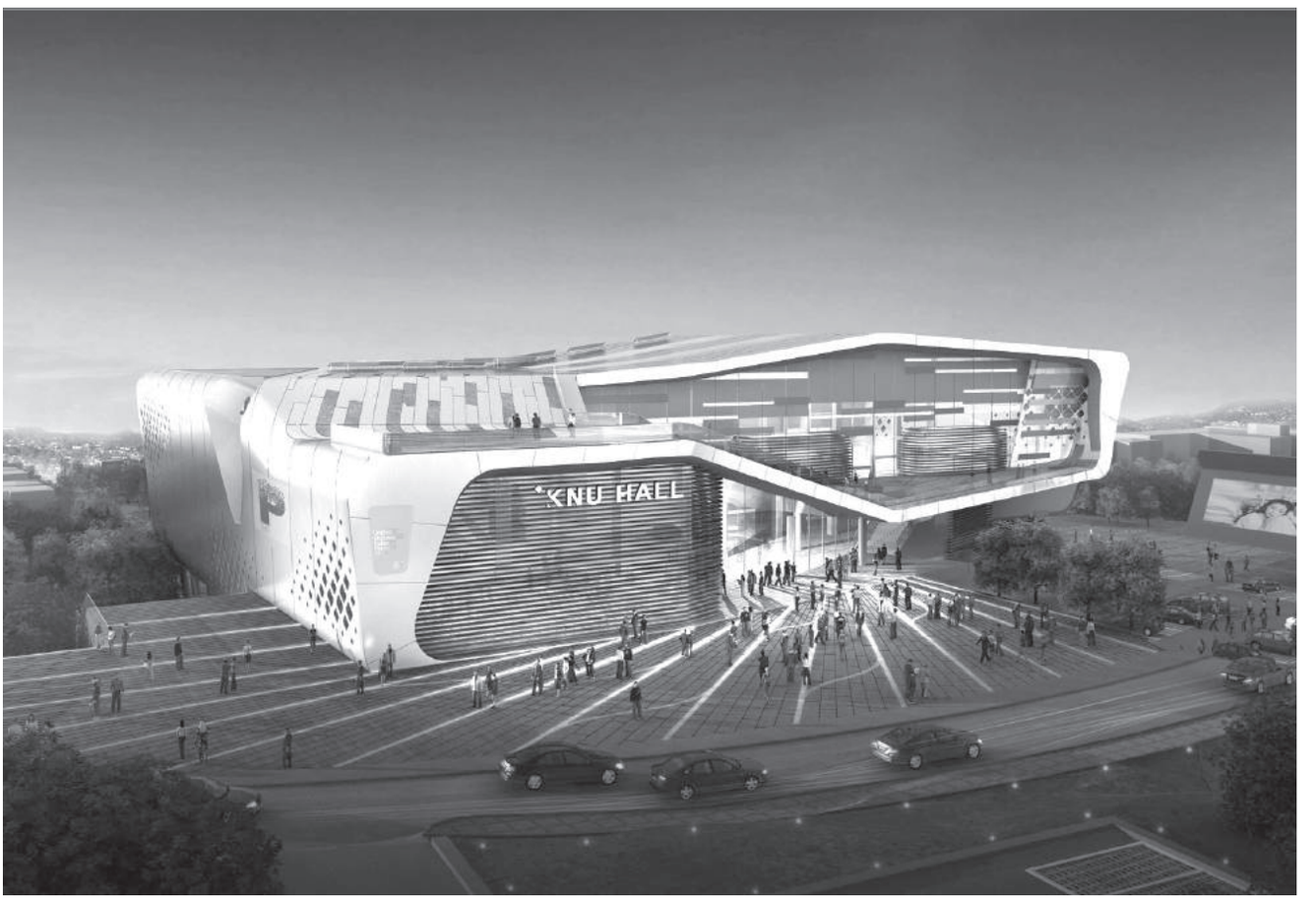
잘사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의식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는 사회의 각 분야가 격리되어 있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계 밖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매스컴인데 건축분야를 잘 다루지 않고 있어 그것도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건축도시의 발전에 기여를 하기 보다는 사업상 설계사무실이 대형화 되어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을 제도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발주되는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건축가를 선정하는 방법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보다는 디자인을 선정하는 거지요. 계획안을 선정하기 보다는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설계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상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축 계획안이 바로 건축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데서 비롯된 거지요. 그런 풍조 때문에 건축가가 소외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단체의 책임이 막중한데 비해 이를 해결하려는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의 합일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일을 건축단체인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학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턴키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현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건축계도 책임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다는 디자인을 만드는 자신의 생각이 보편성을 갖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Health & Sports Education Cent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당선작 _ 강철희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91-1 (강원대학교내)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
대지면적	대장부지 : 9,000㎡ 학교부지 : 802,400.1㎡
건축면적	145,923.90㎡
연 면 적	490,963.70㎡
건 폐 율	18.19%
용 적 률	57.9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트러스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처	강원대학교
설계담당	김상진, 김종무, 김용원, 김노아, 천유진, 김예지, 김보람, 권정태, 김지형, 유무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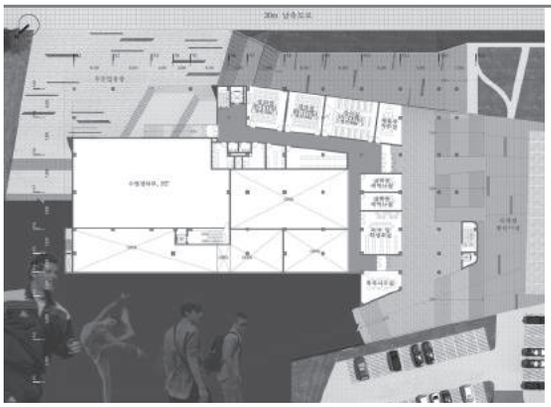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의 동측에 위치한 대지는 조금은 외진 곳에 위치한다. 경사가 급한 대지의 특성에 따라 체육관 수영장 진입 교육연구시설진입을 멀티레벨에 따라 계획하여 다채로운 진입과 이벤트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시설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스포츠센터의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자연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그린 캠퍼스의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향후 유지관리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붕천창 및 전동 창을 이용하여 수영장 결로 문제 해결 및 경기장에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였다.

매력적인 구조물로 흥미를 유발하는 공간과 입체적 데크는 체육시설의 활력을 담아내며 감성적, 창의적 조형은 춘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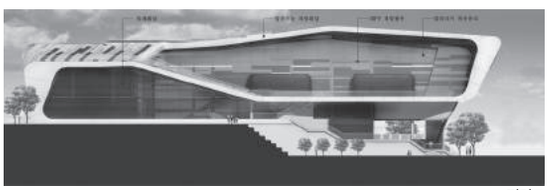
Endless Green Flow는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적 스포츠센터의 개념으로 계획하고 강원대의 지속적, 영원성의 대학이념인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한 뫼비우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다.

단순한 스포츠시설 개념을 넘어 강원대의 혈기와 패기 넘치는 공간의 탄생을 기대하며 춘천의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적, 친환경적 디자인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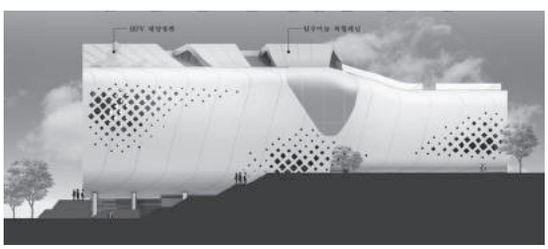


+118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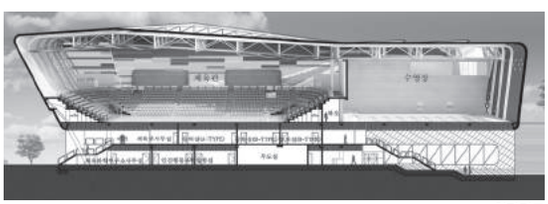
+114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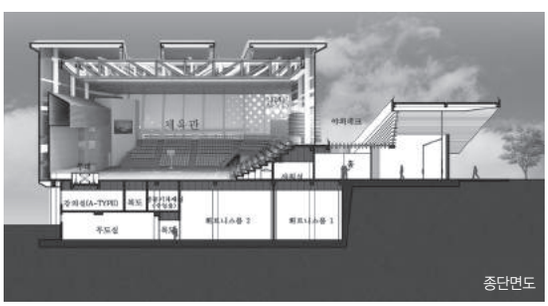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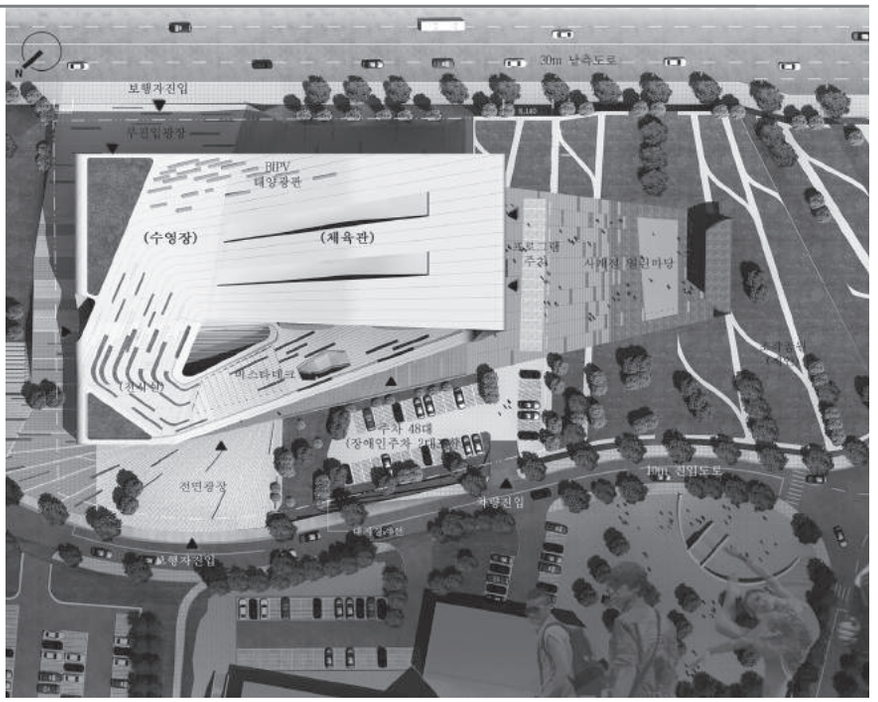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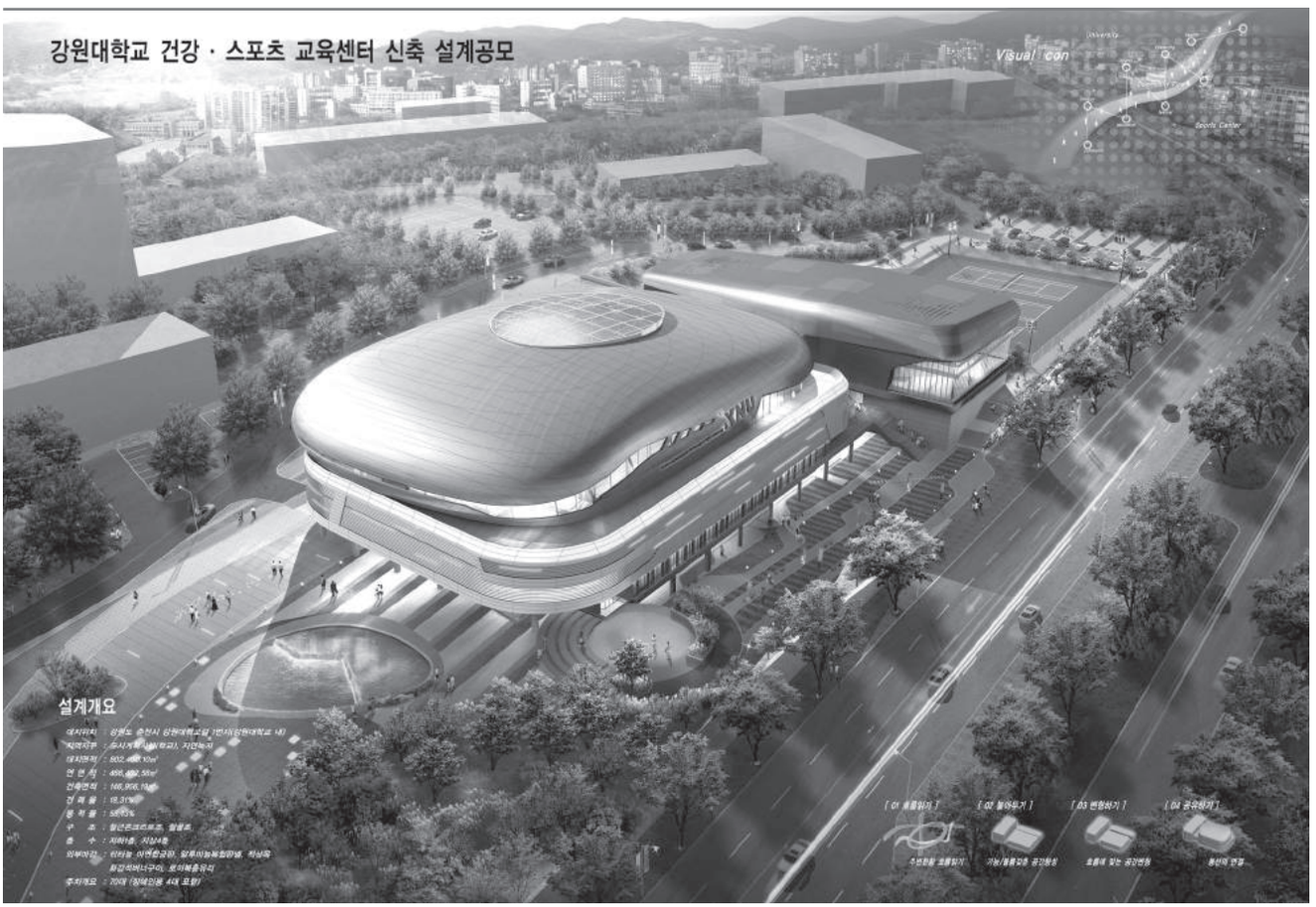


횡단면도



종단면도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Health & Sports Education Cent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우수작 _ 유대현정회원
(주)건양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길 1번지 (강원대학교 내)
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자연녹지
주요용도 체육시설(체육관)
대지면적 802,420.1㎡
건축면적 6,022.39㎡
연 면 적 9,489.68㎡
건 폐 율 18.31%
용 적 률 58.13%
구 조 R.C, S.C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김기옥, 최문섭, 김태용, 김종표

기본개념

주변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캠퍼스의 유기적 요소로 이용하고, 도시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Visual Icon이라는 개념으로 강원대학교 이미지 부각 및 체육활동과 교육의 공간으로써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형태의 체육관을 계획하여, 자연과 캠퍼스, 지역사회와 조화될 미래변화의 흐름을 기존 캠퍼스 교육영역의 흐름과 연계하여 장소성을 부여하였다.

배치계획

대지를 관통하는 Visual Corridor를 통한 캠퍼스와 주변지역과의 시각적 소통 모색하고, 주변지형에 순응하는 다양한 레벨구성을 통한 각 진출입구의 전이로 오픈스페이스의 영역성 확보하며, 주변 맥락에 순응하는 메스 구성으로 신설되어지는 동문에서 진입하는 이용자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광장 및 수공간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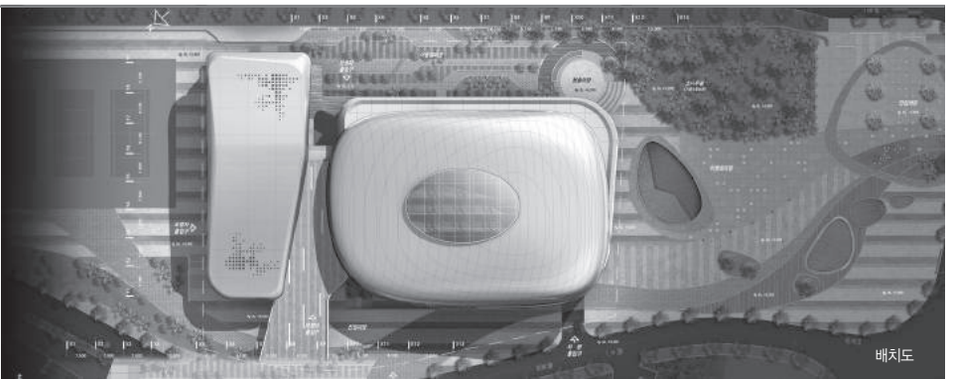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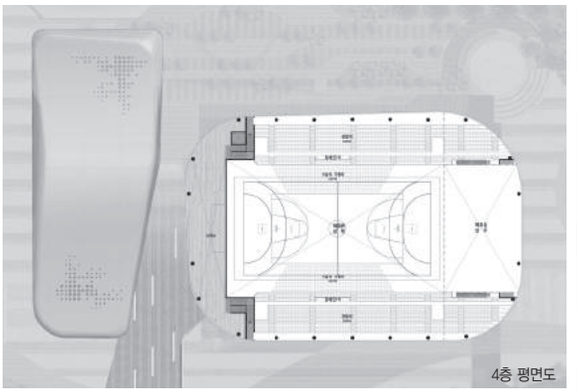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교수연구실 및 강의실의 기능을 홀과 층을 구분함으로써 명확한 기능 및 동선을 분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공간을 통한 내.외부공간의 연계 및 친환경 공간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에 실을 배치하여 사용성을 극대화 하였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고려한 광장 및 주차장, 휴게공간을 제공하였다.
체육관과 체조실의 벽체를 이동식으로 계획함으로써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공간을 확장 또는 축소하여 공연 및 대규모 행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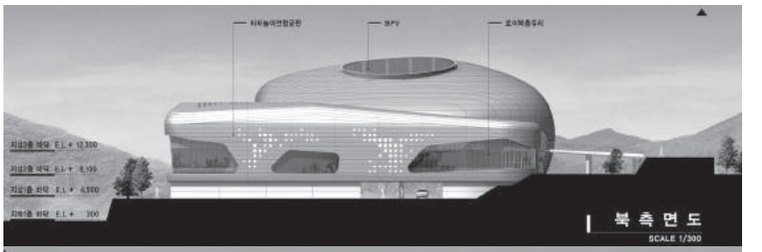
입,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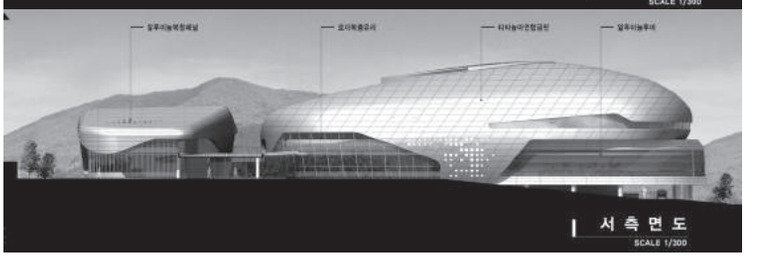
강원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을 표현하는 미래지향적 입면계획으로 유연함, 도약, 포용을 상징하는 유기적 디자인과 자연적 흐름에 순응하는 유선형 디자인,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첨단 미디어 라이트로 계획하였다.
명확한 프로그램 조닝을 통한 효율적 동선체계 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다양한 진입동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며, 유연성 있는 공간계획으로 실의 확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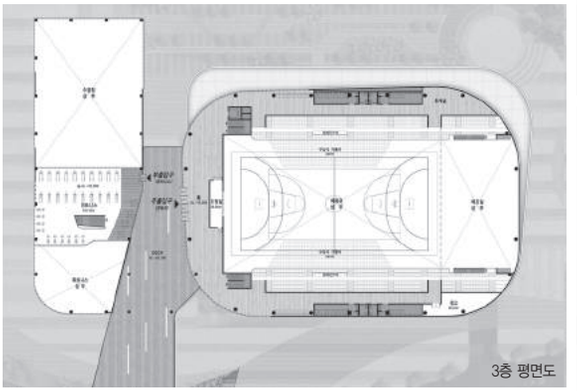
교수연구실 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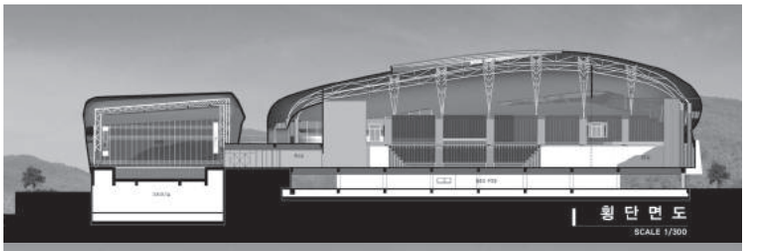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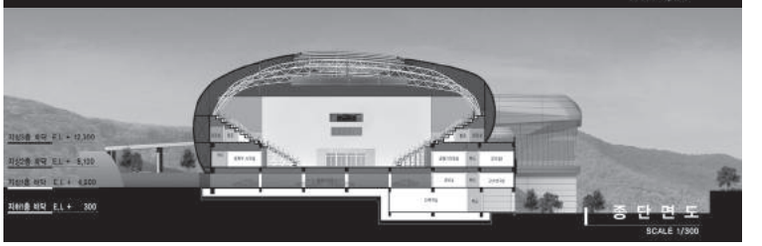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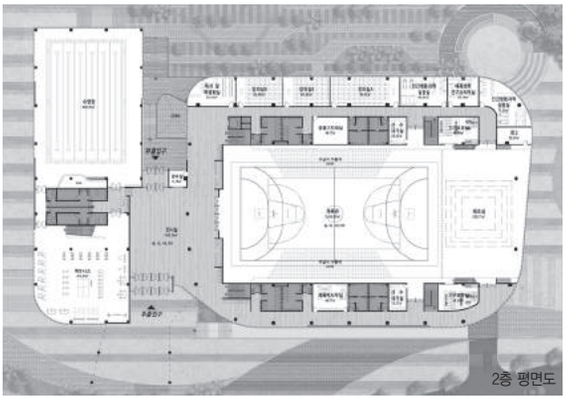

북 측 면 도
SCALE 1/300


서 측 면 도
SCALE 1/300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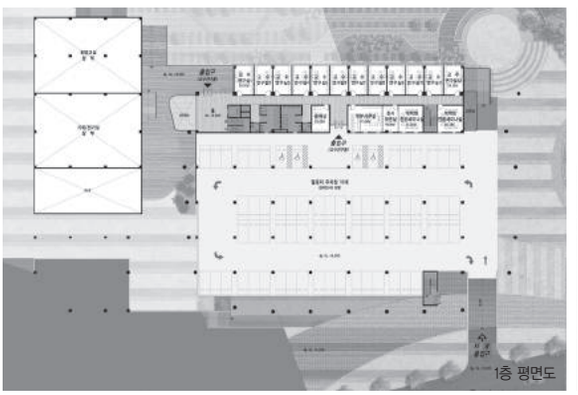

횡 단 면 도
SCALE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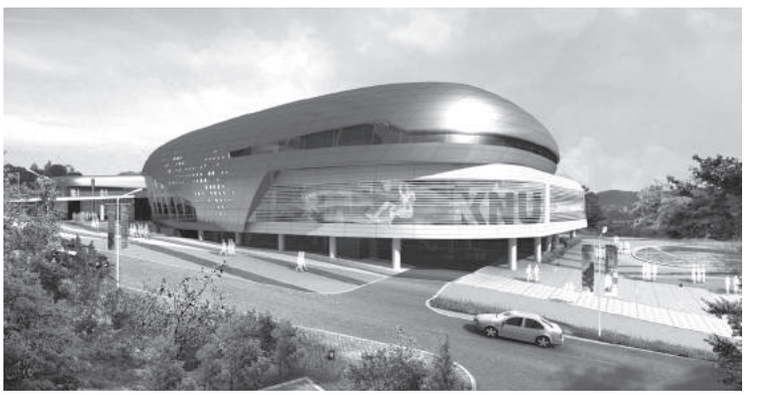

종 단 면 도
SCALE 1/300


2층 평면도

KNU

KNU


1층 평면도


KNU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 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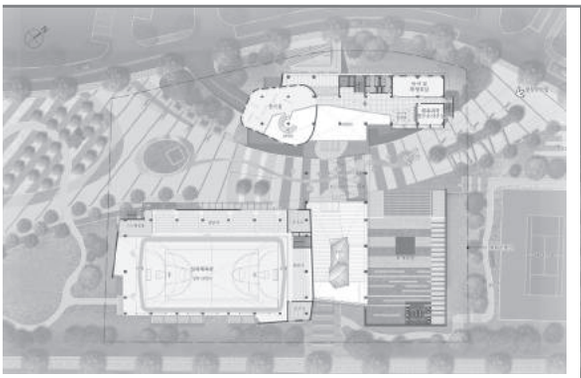
Health & Sports Education Cente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가작 _ 이관표 정회원
(주)엄앤드이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광호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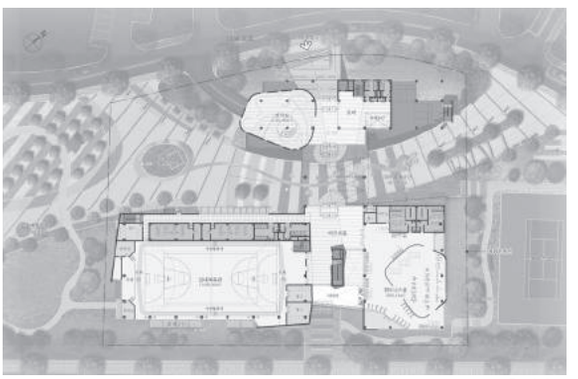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길 1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학교)
대지면적 802,400.10㎡
건축면적 145,694.35㎡
연 면 적 491,023.06㎡
건 폐 율 18.16%
용 적 률 58.08%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엄이건축** : 심재군, 오성진, 임상도, 정지윤, 류승연, 이상현, 이진영, 박준
산 건 축 : 안동한

CONTEXT / 관계맺기 (SITE–CAMPUS–CITY)
강원대학교는 도시 중심의 학교로서 전체 캠퍼스의 면적은 크지만 대부분이 경사지형으로 이루어져 캠퍼스 내 중심공간 및 휴게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계획대지는 남측에 주도로와 주거지, 북측에 캠퍼스내 도로와 강의동, 동서측에 기존 테니스장 및 증축예정부지가 인접해 있으며, 각 4면이 각각의 다른 레벨을 가지고 있는 잡목이 가득한 언덕형상의 대지이다.
본 프로젝트 설계의 초기단계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동문의 신설로 인한 캠퍼스 전체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방안, 동문과 각 도로에서의 상징성, 각 레벨에서의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한 해석이었다.
따라서 동문, 증축예정부지와 기존테니스장의 사이에 놓인 계획대지에 기존의 자연경사를 활용한 주 보행축(Spo–valley)을 설정하여 캠퍼스 전체를 잇는 벨트의 시작점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 보행축은 캠퍼스 내의 순환, 도시와 캠퍼스, 학생과 지역주민간의 '관계맺기'를 개념으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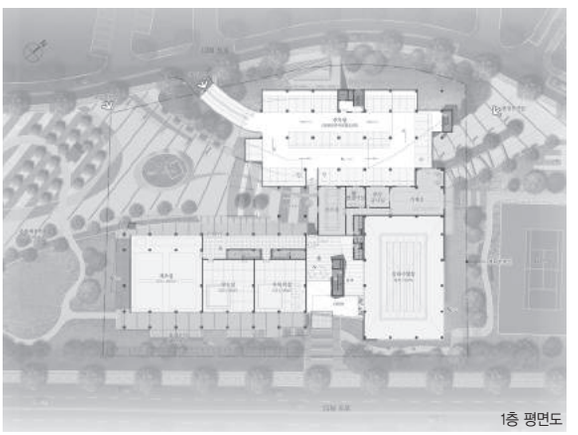
CONCEPT_Spovalley (Sports+Valley) / Sporium (Sports +Atrium)
강원대학교 건강스포츠교육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은 스포츠센터와 강의실, 전시실로 구분되며 주보행축(Spovalley)을 중심으로 정적공간인 강의실과 전시실을 캠퍼스와 접하게 배치하여 학생들의 이용성을 고려하였으며, 동적인 스포츠센터의 기능은 남쪽 도로에 접하게 배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상징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분리된 각 기능은 남북 도로의 진입축에 평행한 친환경 매개공간(Sporium)을 통하여 도시로 향한 조망확보, 각 프로그램의 연계, 자연지형과 조율된 열린 중심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동문에서 진입되는 보행축은 아트리움에서 확장되고 다시 테니스코트로 이어지는 스포츠의 장을 형성한다. 다양한 동선유입으로 각 내외부 공간은 활기찬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주 보행로(Spovalley/Sporium)에서는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하였다.
또한 아트리움은 통합된 로비공간으로 구성되며, 중앙의 코어를 활용한 실내 암벽등반(Landmark Rock)을 통하여 스포츠 공간으로서의 아이콘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강의동 및 체육관은 도로에 평행하게 남향 배치하여 채광 및 환기, 조망을 고려하였으며, 주된 보행축과 수영장 상부의 옥외공간은 도시로의 열린 휴게공간으로서 외부공간의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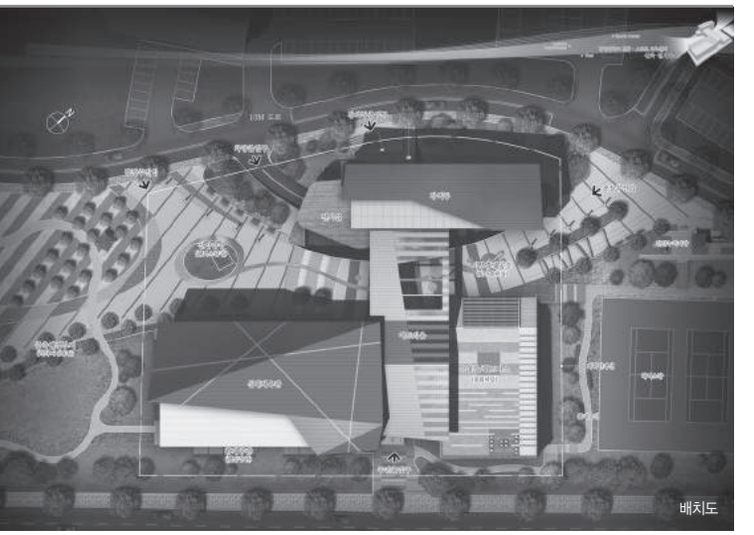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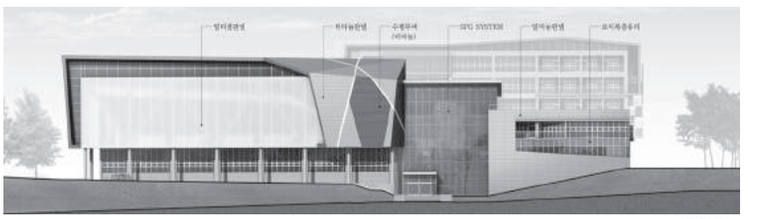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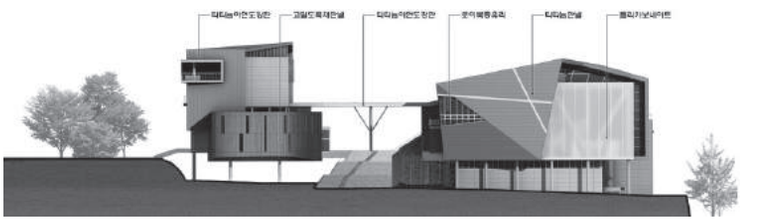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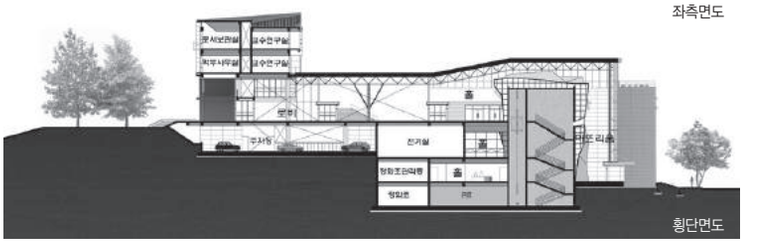
배치도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지상강좌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구의 온난화와 에너지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 번의 오일쇼크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야 친환경으로 모아지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축계에서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명제가 화두가 된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개념과 건축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건축사」지에서는 우리협회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건축강좌"의 내용의 일부를 선정하여 요약, 연재함으로써 친환경건축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목 차

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김광현**	서울대학교
2.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이해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친환경건축정책 및 친환경인증제	**김민철**	국토해양부
3.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이아영**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4. 패시브건축설계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조 한**	홍익대학교
엑티브시스템 건축계획과 설비시스템	**이응직**	세명대학교
5. 고성능 파사드 및 외벽설계	**박기우**	비정형연구소
친환경재료 및 자재적용	**이선영**	서울시립대학교
6. 건축의 재활용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이해욱**	우송대학교

2-1.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이해

필자 : 이윤하
Lee, Yun-ha. Institute for Eco-Architeture

건축사사무소 노듯돌, 생태건축연구소 대표이며 시인이자 건축사이다. 건축, 문학, 북한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 아카데미의 교육부장으로 연구, 교육, 작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 생태환경건축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MBC특강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희대건축대학원, 건국대건축대학원, 우송대, 홍익대, 등에서 친환경건축과 건축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국토해양부 엔지오정책자문위원회, 서울시 주거정책위원회, 친환경건축물인증평가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이사겸 친환경위원장,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이사, 한국친환경건축연구원 이사로 있다.

작품으로는 하늘뜨락(대한민국생태환경대상/설계부문), 물아당(한국목조건축대전본상), 조태일기념관(한국목조건축대전본상), 안양비웅사, 세진당 등 친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아홉건축가 아홉무늬〉, 〈당신에게 좋은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공저), 〈친환경건축설계 가이드북〉(공저), 〈파올로솔레리와 미래도시〉(공역) 등 다수가 있다.

2-2. 친환경건축정책 및 친환경인증제

필자 : 김민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by Kim, Min-cheol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이다.

건축을 전공하였으며, 행정고시 51회로 2008년 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녹색 건축물 활성화 대책), 초고층 건축물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2-1. 친환경건축설계의 개념 및 이해

2-1.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environment-friendly design

들어가며

친환경건축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생태학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리화와 경제성의 가치숭상으로 빚어진 획일화, 비인간화, 생태환경의 파괴의 모순을 초래한 근대이후의 건축양상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건축적 대안의 모색이라 할 수 있다. 데카르트, 뉴턴 등 17세기 자연과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확립된 서구의 자연 정복을 통한 자연 지배관은 세계에 대한 기계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근대 자연관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주거환경의 미래를 예견케 한다. 그것은 인간에 의해 자연지배와 물질의 무한한 이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이론으로서의 자본주의의 막강한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마치 전차군단처럼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몰고 온 이 자연지배관 위에서 진행된 근대화 · 산업화 과정은 일견 인류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왔다는 식의 표피적 성과는 거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류의 환경을 피폐화하면서 전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했다.

한편에서는 '오래된 미래'를 위한 담론을 형성시키는 가운데서도 인류의 욕망의 기차는 인류의 오래된 거처인 지구환경을 돌이킬 수 없으리만치 변화시키고 있다. 동서간의 극한적인 정치적 대립 속에서 잠시 간과해온 인류의 생태와 환경의 심각성이 전면에 대두되고 인류 뿐 아니라 모두 생명체의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모두 지구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1972년 로마클럽은 인류의 보편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현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지구의 성장은 100년 이내의 한계라 예언한 바 있지만, 1992년 리우환경회의를 시작으로 논의의 확산을 가져왔으며 1997년 교토환경회의에서 유엔의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대한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바야흐로 실천단계에 이르렀다.

친환경건축의 인문적 배경

요즈음 생태주의와 생태적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신학적 접목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은 각 생물종에 고유한 먹이를 할당하고 욕망을 제한함으로써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연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고 한 18세기 식물학자 칼 폰 린네(Carl von Linne)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고 지구상의 신의 숭고한 배열의 신묘함에 대한 인간적 겸허한 자각과 다양한 생물들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생태적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진정 버리고 온 인간의 생태주의적 삶과 친환경적 건축에 대한 보급과 수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환경 보존형 건축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건축 분야에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 희망적인 움직임들이라 할 수 있다.

건축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연을 범하고 자연환경을 침해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한 소비적 형태를 갖는다. 현대사회에서의 공해문제나 과소비문제를 언급할 때 산업사회의 상품 생산체계나 생산품의 사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집짓기를 비롯한 건축행위로 인한 본질적 환경소비에 대한 자연파괴의 막대함을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친환경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관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생태사상과 생태주의의 관점이 되는 생태철학을 정초하려는 노력과 동일시하여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갈래에 따라 살펴보자. 그것을 '심층생태주의', '사회생태주의', '환경주의', '환경관리주의', '기술중심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다분히 편의적인 구분인데, 생태주의는 생태계라는 보다 큰 영역을 문제 삼는 데 비해 환경주의는 인간의 생존환경과 관련된 자연을 다루며 환경관리주의는 더 협소하게 대상화된 자연만을 문제 삼는다. 이러한 생태주의적 경향이 현실적 삶으로 투영되어 보다 폭넓게 연구되면서, 친환경건축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의식이 확산되면서 더디나마 진행되고 있다.

표 1. 친환경건축의 사상적 구분

생태주의적 경향	심층생태주의	자연을 위하는 것도 인간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를 위한 것으로 모든 생명이 똑같이 평등하다. 절대이념에서 생명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자는 것.
	사회생태주의	생태문제가 사회 구조의 문제로부터 야기되었다고 본다. 생태적으로 지향된 인간의 이성 속에서 자연의 자기구현이 이루어짐.
환경주의적 경향	환경주의	대부분의 의식중심주의자, 생물(생명)중심주의자들로 응용윤리학의 방법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설명하려 시도하는 경향.
	환경관리주의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의 실제적인 정책, 법, 규칙을 구성하는 일이 환경도덕을 세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함.
친환경적 경향	기술중심주의	친환경건축 요소기술을 이용한 건축디자인 및 시공, 유지관리

이와 같은 인식의 확대와 논의 결과를 모아 보면 ,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주생활 무대인 건축 환경을 자연환경과의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인위적 생태계와 자연적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시도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건축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

폐기물 등의 면에서 충분히 배려하고,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친밀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하여 거주자가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및 그 지역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건축이 일방적인 소비 의존형 경제체계를 가지므로 초래되는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건축자체도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 순환체계 내에 편입시켜 상호간에 유기적 연계를 가지며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간위주의 건축설계방법론의 회의에서 비롯된 대안적 건축은 개별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간의 순환 고리를 찾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재료, 녹지와 더불어 대기와 물의 관계 속에 건축물을 해석함으로써 지구와 외부환경에 부하를 절감하고 공간을 쾌적하게 변화하려는 요구가 대두된다.

친환경건축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과 논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의식이 확산되면서 더디나마 진행되고 있다. 같은 의미로 불리우는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의 개념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워드(Ward)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브룬트란트(Brundtland)는 '다음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였다.

이어 1996년에 이스탄불에서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가 열려 채택한 '헤비타트 아젠다(Ⅱ)'에서 정주지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목표와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이 국내의 경우에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교토의정서 채택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그린라운드가 시작되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할 정부와 민간분야의 실천 방안과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주거지 개발 분야에서도, 세계환경회의에서 마련한 적정주거공급, 토지이용 계획 및 관리 증진, 환경 기초시설 확대 등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토대로 환경과 생태적 개념에 의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즉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감, 대체에너지 개발, 생태환경 오염방지 및 보존, 자원 및 쓰레기 재활용등 지구생태 보존에 대한 대응과 단지 내에서의 녹지공간 확충 및 체계화, 소생물권(Biotop)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질서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생태주의란 생태학의 기본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정신에 입각해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것을 친환경건축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에른스트 헤켈(E. Haeckel)은 생태학을 '자연의 경제에 관한 지식의 총체'로서 정의하며 생물체간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하였다.

20세기 건축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적 융화였으며, 그 속에서 표출된 기계미학적 건축이념이 주류가 되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사실이다.

이러한 기계미학적인 이념은 소위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방법론들, 기술적인 건축재료들, 또 기계생산에 영향을 받으면서 건축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 세계적 건축흐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엄청난 합리주의 세력의 팽창 속에서도 주류에 일탈한 건축이념은 꾸준히 자생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 휴고 해링(Hugo Haring)은 '성공적인 건축물은 하나의 힘찬 조직으로 이해되며, 자연의 원천으로부터 유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의 일선에 나섰다. 1928년 CIAM 창립시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의 라틴적 조형론에 대치되는 게르만적 유기적 건축철학을 주장한 그의 신건축 이론은 -1910년대 독일에 소개된 라이트(F.L Wright)에 영향을 받아- 30년대에는 사린넨(E. Saarinen)등의 건축가들의 작품에 투영되기에 이른다. 당시에 성행하던 기하학적 미학의 강요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통한 상호 병존의 건축적 체계를 확립하고자 시도하였다.

비록 이 경험주의적이고 유기적 건축철학은 대세로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아직도 풍토주의 건축가들은 그 맥락을 유지하며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열린 소통체계를 중시하며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순환을 고려한 친환경건축 설계

기존의 건축어휘와 더불어 인간위주의 건축설계방법론의 회의에서 비롯된 대안건축은 개별건축물과 주변환경과의 상호간의 순환고리를 찾는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와 재료, 녹지와 더불어 대기, 물과의 관계 속에 건축물을 해석함으로써 지구와 외부환경에 부하를 절감하고 인간정주성을 쾌적하게 변화하려는 요구가 대두된다.

표2. 순환체계별 적용기술

순환체계	개요	활용기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여 에너지의 순환을 도모하고, 저소비형 건축계획을 하여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 함.	통합형태양광(BIPV), 태양열난방/급탕, OM 솔라 시스템
건축재료	자연순환적 재료 채택하여 재료생산과 운송에 사용되는 산업에너지를 최소화 함.	흙벽돌, 목재
녹지	소생태계를 구성하여 광역녹지체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경계획이 필요함.	옥상녹화, 벽면녹화, 랜드스케이프 기법
물	빗물과 오수를 분리시켜 재사용하고, 외부공간의 우수는 땅으로 침투를 유도함.	비오톱, 우수활용
대기	대기의 순환은 건축물의 실내외의 공기를 순환하게 하여 쾌적한 정주공간을 가능하게 함.	열회수장치, 온도에 의한 자연환기

에너지순환체계

현재 생산되는 에너지는 대부분은 화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에너지 소비에 의해 수 십 년 내에 화석에너지의 자원은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 화석에너지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에너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전세계가 자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불리는 대안에너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축에서 에너지의 순환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아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에너지 위주로 한 건축계획과 미기후를 이용한 냉난방설계기법 등을 통한 설비계획에 의해 실현되며, 건축구조부의 단열성, 건축공간의 조습성 등 공간의 쾌적성 증대가 요구된다. 화석연료 쓰지 않는 대체에너지로는 요즈음 그 관심이 늘어나 사용이 늘고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을 이용한 태양에너지, 바람을 이용한 풍력 그리고 조력, 파력 등의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대체에너지, 항온성을 가지고 있는 땅을 이용한 지열에너지, 동식물, 미생물 등의 바이오매스 등의 재활용에너지, 소량의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이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재료에 있어서 내재에너지와 운송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향과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건물의 입지조건과 현장의 환경에 맞게 설계 초기부터의 통합적 고려가 요구된다. 프로젝트에 성격과 사용할 에너지의 생애주기비용을 정량화하여 투자회수 기간을 산출한 후에 여건에 맞게 에너지계획을 세운다.

에너지 디자인은 패시브(Passive) 디자인 기법과 엑티브(Active) 디자인 기법으로 나뉜다. 패시브 디자인은 태양열, 태양광 바람 등의 미시기후의 원리를 설계단계에서 디자인에 적용하여 건축물의 냉, 난방 부하를 저감시키며 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이에 반해 엑티브 디자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에너지를 물리적 시스템에 연계하여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일차적으로 패시브 디자인 기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저감시킨 후에 적용 가능한 엑티브 기법을 이용하여 BIPV 등으로 통합적으로 에너지 디자인을 실현한다. 근래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난방에너지량이 15 kwh/㎡.yr 이며, 전체 일차에너지 소비가 120 kwh/㎡.yr, 난방부하는 10W/㎡ 이하를 목표로 하는 파시브하우스(Passivhaus) 등 저에너지형 패시브하우스 기법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단위면적기준으로 총에너지사용량을 적용하는 에너지총량개념이 초기 에너지계획단계에서 시뮬레이션하여 구체화 한다.

건축재료순환체계

건축재료적 측면에서의 순환체계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옛 건축은 흙과 나무 등의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어졌다. 이는 쉽게 자연으로 돌아가기 쉬운 재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철과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들어지는 현대 건축은 재료에서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건축공간의 쾌적성을 저해하며, 최종적으로 건축물 수명이 다한 후에 폐기물이 환경부하를 가중시킨다.

따라서 현재의 건축행위가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목재, 흙과 돌 등의 자연순환적 재료를 선택하거나 재활용 및 재생이 가능한 건축자재를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체에 해가 되는 화학성분이 들어간 재료를 대신하여 무해한 자연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다시말해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지역적, 자연적 재료와 재활용, 재사용 및 재생가능한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디자인 한다. 그러나 현대건축은 자연재료만으로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료가공시 내재에너지 사용 및 일차에너지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함께되어야 한다. 선택할 건축재료는 생산과 운송 및 사용 중에 산업에너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에너지측면에서의 전략도 고려되어야 한다.

녹지순환체계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하는 녹지가 광역녹지와 건축물 사이에서 내외부적으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조성되어야 한다. 녹지체계의 구축은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대지에서 건축물을 제외한 공간을 녹지로 활용하여 구성하는 방법과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물을 녹화하여 연결하는 녹지체계형식이다.

녹지순환은 생태적 조경기법을 통하여 디자인한다. 대상화한 자연이 아니라 생태계의 원리를 이용하여 종의 다양성확보와 미시기후 조절, 주변 환경의 쾌적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녹지체계로서의 일차적 기능과 함께 건물에너지 저감방안, 건물과의 조화성, 경관 디자인적 차원에서 연계된 녹지체계가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건축물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입면과 지붕에 녹화를 하는 것도 녹지순환체계를 이루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로써 내외부의 녹지체계를 통합하고 생태적 순환체계속의 소생태계(Biotop)가 계획된 설계와 주위의 광역녹지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조경계획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후나 지형지세 등의 자연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녹지체계가 순환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하여야 한다.

생태녹지 및 조경의 기능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주변환경의 공기질을 높이는 등 실내외 공기의 정화에 매우 유효하다. 또한 국지적인 증발 및 증산작용으로 열섬화 현상을 제거해서 상대적 온도를 저감, 건물 열환경 개선, 우수유출 조절 효과, 과잉 건조 완화 등에 기여한다.

생태적 녹지체계의 구성은 지붕 및 벽면녹화 기법으로 입체화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며,건축물의 녹화된 외피에 대한 디자인에 관한 생태학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붕의 하중문제를 고려한 인공토양의 개발과 벽면의 덩굴식물 및 관수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해 외피녹화 기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건물의 녹화된 피복은 토양과 연결되어 대지 안에 비오톱을 조성하여 생물종의 다양화와 생태계 순환을 고려한 기법 등이 사용된다. 입체적 녹화 기법은 개별 건축물 뿐 만 아니라 도시경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녹화형태와 파사드 디자인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하며, 관리의 형태(관리형, 저관리형)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수순환체계

물의 순환체계 개설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포장 등의 인공적인 구조물에 의해 수순환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고려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자연상태에서의 우수를 저장하여 재활용하고, 사용한 오수에 대한 정화 후 배출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대지위에 내린 우수를 관리하여 외부에로의 방출을 지극히 제한하여 하수관거와 하천의 환경처리 부하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물에 대한 오염방지와 순환성에 대한 배려이다. 그 중에서 물의 공급과 처리는 자연계의 수순환 체계와 연계되어야 하며 빗물과 오수를 분리시켜 재사용을 위해 설비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외부공간의 우수

는 토양 밑으로 침투를 유도하여 수순환체계를 확립한다. 여기에서 우수저장시설, 수질정화 및 재활용시설 등을 통해 수자원 절약을 도모한다. 특히 수순환 체계는 녹지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오톱과 같이 두 체계가 교집합을 이루기가 쉽다.

수순환체계의 개념을 확장하여 적용하면 도시적, 지구적 차원의 물관리 시스템으로 적용가능하다. 건강한 녹지체계와 우수저장의 효과는 초기 도시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지구적 재앙인 물 부족 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건축적 설계 기법으로서 자연정화시스템, 우수저장시설, 중수도시스템, 사용수절약설비기기 및 시스템 및 우수토양침투를 위한 포장기법 등이 적용된다. 궁극적으로 생태면적율을 높여 토양의 수순환을 활성화하고 우수의 에너지화 등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기순환체계

마지막으로 대기의 순환이 가능한 체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는 크게 지구환경적 차원에서의 공해물질 관리와 실내공기질(IAQ) 개선 등의 쾌적공간 설계로 볼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재료가공, 운송, 시공, 유지관리 부분에서 관리하여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것이며, 실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유해가스에 배출을 억제하여 건강한 실내 거주 조건을 제공하는 목적이다.

인간정주공간에서 공기는 지속적으로 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위해 내외부의 공기가 순환하는 고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최근의 거주공간(특히 도심의 고층아파트)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밀성을 높이는 시공을 한 경우가 많다. 실내 거주공간에서 내외부 공기는 상호 순환하지 못하여 오염 공기화 되며 쾌적성을 저해하게 되는데 따르는 적정한 환기관리가 필요하다.

실내재료 및 마감재에 대한 일차적인 오염원 관리와 실내공기 적정유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일정한 베이크 아웃(Bake-out)이나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부착하여야 한다. 주거공간은 공기질의 쾌적성과 더불어 열적인 쾌적성도 중요하다. 이 두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열회수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의 통풍에 의한 환기로 발생하는 열손실을 보완한 것으로,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의 공기의 열에너지를 교환시켜 열을 회수하고, 실내공간의 공기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절한 환기계획과 지역의 미기후를 측정하여 통풍계획을 수립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적 환기 계획과 기계적 환기시스템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하이브리드 환기 계획을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및 입지에 따라서 쿨튜브(Cool-tube), 열회수용환기시스템, 이중외피(Double-skin) 등의 기술적 적용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본다. 다시 정리하면, 자연과 건축 환경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간의 주 생활무대인 건축환경-예를 들어 주택, 주거단지, 또는 도시-을 하나의 인위적 생태계로 구성하여 이를 자연생태계에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최근 친환경건축의 움직임이다.

친환경건축의 목표와 디자인 원리

친환경건축은 1979년 크루쉐(P. und M. Krusche) 등이 공식 명명한 명칭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자원과 에너지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건강한 주생활 또는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건축'이다. 즉 친환경건축이란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자연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연자원을 활용하며, 환경의 4대 요소(태양, 토양, 공기, 물)로 구성된 자연의 순환체계에 건축이 연계되어 자연생태계와 더불어 인간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상적 목표가 있다.

이런 바탕에서 건축 각 분야에서 친환경건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그림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시 이야기되는 것은 건축에 유입되는 에너지, 자원수요를 최소화와 태양에너지 이용, 자연조건을 이용한 실내기후 조절, 식물을 이용한 외벽 등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집짓기이다, 또한 외부로 배출되는 열과 폐기물, 폐수와 토양 포장을 최소화 등으로 자원절약과 생태계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도모함에 있다. 그리고 대지나 건축물의 주변에 다양한 동물, 식물의 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건축물이라는 인공환경을 주위 생태환경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사람들의 삶을 활기차게 한다. 이에 대한 친환경건축 방법론의 다양한 디자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계획단계

첫번째는 건축물의 계획단계로,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가 정해지면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각 환경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건축할 건축물의 기본계획과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대략적인 건축배치가 정해지는 단계이다. 지역적 기후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토지이용계획이 이뤄지며,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형성 등 사용자중심에 의한 설계가 진행된다.

건설 준비 및 시공단계

두번째는 건설 준비 및 시공단계로, 건설을 위한 재료의 선택, 보관, 운송, 분배 및 가공 단계를 포함하여,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했을 때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원 및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연생태계와 순환체계를 이루며, 친환경재료를 이용한 시공해야 한다.

유지관리단계

세번째는 건축물 유지 관리단계로, 실제로 인간이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 및 에너지가 유입 및 유출이 관련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 이용하는 에너지를 자연과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 방안으로 비오톱형성, 폐열 재활용, 중우수의 재활용 등이 있다. 건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계획, 유지관리 비용 등의 점검과 함께 거주후 평가(POE)가 이루어져야 한다.

폐기 및 재생단계

마지막으로 폐기 및 재생 단계로, 건축물의 기능과 수명 연한이 다하여 폐기되고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건축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표3. 친환경건축의 단계별 디자인 원리

순서	디자인 원리	구체적 내용
1단계 계획단계	최적 입지 선정 및 토지이용 계획	– 지역 기후 특성을 고려한 자연적 입지를 고려. – 일사, 통풍의 이점을 고려한 입지를 선정. – 자연 지형과 미기후의 좋은 점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인간 삶이 반영된 건축물※	– 건축가의 이념보다 사용자의 요구 중심의 설계를 지향. – 설계 및 시공 과정에 거주자가 참여. – 사용자의 생애주기와 건축물의 미래 사용자에 대한 고려. –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형성을 고려
2단계 건설준비 및 시공단계	자원 및 에너지 수요의 최소화	– 공기 및 시공의 합리화로 재료운송 및 시공시간의 최단화. – 사용연한이 길고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사용. – 재활용 가능한 폐건축자재의 재활용 및 규격품 사용.
	지역 자연 생태계와 순환체계의 보존	– 건설로 훼손되는 동식물 생태계의 보상. – 다양한 목초의 식재로 생태계의 균형 유지. – 동물 서식지 마련 및 보호계획. – 지역 미기후 고려한 건물 구체의 형태 및 배치 결정. – 우수의 흡수와 지하수 보존을 위해 투수성 재료로 포장. – 훼손 토양의 보상을 위한 건축물의 녹화.
	기존 대지 중심의 고려	– 기존 지형을 보존하는 배치 및 형태 구성. – 기존 대지의 역사성의 주위환경과의 맥락 고려.
	친환경적인 시공재료의 사용	– 재활용품을 이용한 무독성 천연 재료의 사용. – 지역 특유의 천연 건축재료와 현대적 적용 기술의 개발. – 단열 및 통풍성이 우수한 건축물의 디테일 구성.
3단계 유지관리 단계	자연에너지 이용	– 지역기후 조건을 최대한 고려한 비소비성 자연 에너지원의 활용.
	자연의 순환체계의 효율적 활용	– 건축물의 설비체계를 인공 생태계로 조성. – 오염 물질 방출의 최소화 및 정화 처리와 재활용. – 폐열 교환 및 다단계식 에너지 순환체계 구성. – 중수와 우수의 재활용 순환 시스템 구성.
4단계 폐기 및 재생단계	건축물 및 건자재의 재활용	– 건축물의 리노베이션 등 건축물 재생의 총체적 개념으로 용도 전이 및 재활용. – 타 건축물의 신축과 시기를 맞춰 폐건자재의 재활용. – 폐건자재의 재활용 기술의 개발.
	건축물 및 건자재의 폐기	– 폐기 후 대지 생태계의 복구. – 천연재료의 자연 분해.

※ 인간 삶이 반영된 건축물: 사람들의 개개인적 공동체, 그리고 차후 거주자의 생활을 고려한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표현한 것도 포함.

마치면서

친환경적 사유는 무엇보다 지구 생태계가 부분과 전체, 개체와 환경이 서로 유기적 통일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우리의 새로운 대안으로써의 친환경건축은 건축이 자연을 배려하고,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문명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하며, 자연과 건축이 서로의 위안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맺기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언급된 친환경도시와 친환경건축 실현을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정의와 합의를 위한 나름의 몇 가지를 새로운 관계설정의 선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집중형 지배어휘로써의 거대도시, 도시화 구조를 다방향성이 인정되는 다원주의구조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본, 권력과 탐욕의 집중화가 빚어낸 인간 중심주의적 도시화의 개념은 탈중심적, 다핵구조의 탈주의 언어개념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유기적 관계로 통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의와 풍토성에 대한 주체적 독자성은 국제주의 이념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풍토에 맞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생태가 다양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독창적 환경 속에서 꾸려진 인문적 생태성도 함께 존중되는 가운데에서 풍토주의 친환경건축이 그 내재된 아이덴티티를 획득할 수 있다 다음은, 자연 착취를 통해 취득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 논리는 미래적 가치로 평가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로 이행되는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논리는 구조적 재편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동 위험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가치 창출과 공동선의 가치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철학의 위상을 강화하고 생태사상이 사회적 복원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환경윤리와 기술문명과의 관계를 사회적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대하여 생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순수 생태주의자들과 마르크스적 생태주의자들의 입장, 그리고 슘페터(Schumpeter)와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의 이론적 배경은 관점에 따라 엄청난 차별성이 있어 철학적으로 차용하는데 큰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태주의를 기반으로 건축활동을 하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생태주의적 전일성과 친환경기술의 합리성의 조화로운 접속이 창조적 결합되어 새로운 성격의 과학기술의 출현으로 유도해 나아가야 한다. 이 양자의 화해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와 건축미학의 틀거리를 견인해내야 함이 이 시대의 건축가의 또 다른 책무일 것이다.

지금 우리 건축계 내, 외부적으로 친환경도시 만들기가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동호회, 직능단체, 특정예술집단을 위한 친환경건축이 곳곳에서 진행되면서 '건축의 진보적 사건이다' 라든가 '친환경적 개념으로 포장된 상업주의다'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성의 건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미래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담론으로써의 대안건축으로 친환경건축이 그 자리매김을 새로이 정립해야할 때라 여겨진다.

'도시'와 '건축'이란 고유하고 거대한 살림살이의 장에서 '친환경'이라는 접두어가 덧붙여진 합성어인 '친환경도시', '친환경건축'이 아니라, 우리 사는 도시와 건축의 의미 속에 환경윤리와 생태철학이 함의된 개념으로 창조적으로 해소 될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건축 환경을 위하여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댈 때라 여겨진다.

내일도 우리의 주거공간은 무사할까? 서서히 자연공간을 옥죄어드는 인간은 무사할까? 이제라도 인류 공간의 안녕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간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순환성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하루 새롭게 생태적으로 사유하는 것이야말로,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이 땅을 숨 쉬게 하는 것이다. 다시 이 대지 위에서 이 공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부비며 살 수 있는 생태주의와 친환경에 관한 담론으로 새로 사는 것이다.

2-2.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2-2. Direction for Green-architecture Boom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의 에너지 · 환경 문제는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도전적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은 에너지 효율 개선, 신 · 재생에너지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억7천만 TCO_2(2006년 기준)인 세계 9위의 배출 국가로, 급속한 경제성장[1]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07년까지 113%가 증가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포스트 교토라 일컬어지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의무 감축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2009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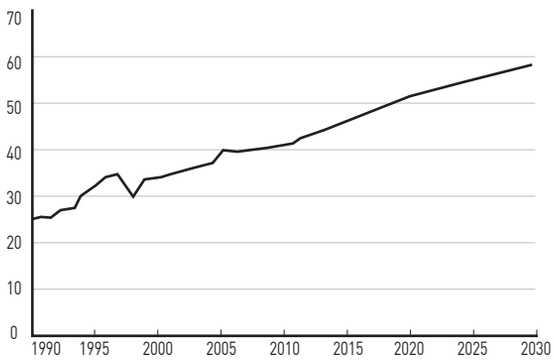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3대 배출분야인 산업(52%), 건물(25%), 교통(17%)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과 교통분야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수출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진국의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효율향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아직 2차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산업과 교통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건물분야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전기 · 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량 증가, 건축물 자체의 물량 증가 등으로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2]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 분야는 향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물 분야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규 허가를 받는 연간 20만동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66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녹색 건축 시장의 형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집중 추진하고자 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추이 예측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현재 건축법에서는 단열기준[3]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통해 건축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사용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고려하여 계획될 수 있도록 허가 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의무화 하고, 현재 부위별 성능기준인 에너지 관련 허가 기준을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 총량을 평가하는 건물종합성능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등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기와 LED, 콘덴싱 보일러 등 친환경 설비나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건축물에 사용되는 설비 등에 의한 외적인 부분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공 건축물과 공공에서 보급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로 우선 보급하고 있다. 공공 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 취득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에서 보급하는 공동주택은 2009년 표준 공동주택 대비 30%이상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킨 주택으로 보급하게 된다.

친환경 건축, 에너지 고효율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소기준의 강화와 함께 유인책을 통한 더 높은 수준의 친환경 건축을 유도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친환경 · 저에너지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등을 실시하

1) 자동차 보급대수가 1990년 350만대에서 2007년 1,600만대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요인이 증가
2) 미국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45%(산업 20%, 교통 35%), 영국은 41%(산업 21%, 교통 38%) 차지
3) 건축법 제66조 –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 · 저에너지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증제도의 대상을 모든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세제(취 · 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감면, 건축기준완화(용적율,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 등)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먼저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공공 건축물은 '10년 10%에너지 절감을 실시하고, 매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권고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에 대해서는 발코니 샤시, 외부창호 · 문, 콘덴싱 보일러 등 6개 항목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하여 단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선이 방안을 제시해 준다.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사업 시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 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CO[4]기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ESCO 사업은 주로 산업시설, 설비교체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건축물 자체의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ESCO 사업범위에 단열공사 등 건축공사도 포함하도록 하여 리모델링 시 ESCO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직 · 간접적 지원 외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건축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거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임대료를 높게 받거나, 매매시 거래가격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개선사업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연간에너지 사용량,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등급 등을 표시한 "에너지 소비증명서"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거래 시 현재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과 함께 첨부하도록 하여 거래하는 사람이 확인토록 할 것이다.

기존 건축물은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사업,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은 대표성과 상징성,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관리하게 된다.

「저탄소 녹색서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다(多) 배출 기업(기관)은 건축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목표관리 대상 기업(관리업체)가 협의하여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투자와 자구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11년 준비기간을 거쳐 '12년부터 총 35개 기업이 목표관리제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와 함께 실천하게 된다.

구 분	판매시설	업무시설	리조트	종합병원	대학교	호텔	공항
개소	8	2	6	5	9	3	2
대표 업체	롯데쇼핑, 이마트	농수산물 공사	에버랜드, 강원랜드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서울대, 고려대	호텔롯데, 워커힐	인천공항, 김포공항

〈목표관리업체 지정현황 : 35개 기업〉

녹색 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녹색 건축이 민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비용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친환경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적용 기술의 단가를 낮추고, 녹색건축 시장을 활성화 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추가비용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진국의 62% 수준인 녹색건축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R&D과제로 열에너지 조절 가능 창호 시스템 개발, 자연친화적 건설 신마감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건축물 녹화기술, 초고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녹색건설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 시장에서 낮은 단가로 기술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되어 있지만, 건축적으로 실용화되지 못해 사용되지 못하는 기술들을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ctive Green Building R&D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설계 · 시공 가이드 라인 등의 개발 · 보급을 통해 국내 기술수준에 맞는 친환경 · 저에너지 건축을 유도하고, 민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력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현재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인력 양성 사업을 09년 하반기부터 전액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과 에너지 성능을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산하여 사람이 기반이 되는 녹색 건축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4)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건축물이나 산업체에 에너지 개선사업을 실시해주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비용을 회수하여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 연간 2.7%의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알림

건축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경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회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며, 불가피하게 회비 장기미납 회원을 제명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협회 정관 제55조에서는 정회원이 월정회비를 12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협회에서는 장기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고충을 감안하여 2010년도 제4회 이사회('10. 4.12)는 월정회비를 36개월 이상 미납한 회원을 제명하기로 하되, 제명대상 회원을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2회 걸쳐 8개월 동안 미납회비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회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 2010년도 제4회 이사회('10. 4.12)
– 제명대상 회원에게 3개월간('10. 6.30)의 미납회비 납부기한 부여

▷ 2010년도 제7회 이사회('10. 7.14)
– 미납회비 납부기한을 '10. 12.31까지 연장 조치

또한, 금년도 제1회 이사회('11. 1.13)에서는 가능한 모든 회원을 구제코자 납부기한 ('11. 1.31)을 3차 연장하였습니다만, 이 납부기한까지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부득이 2011년 2월 1일자로 제명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명처분 현황
– 제명자 188명 (서울 168명, 부산 2명,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1명, 대전 2명, 강원 3명, 충남 1명, 전북 2명, 전남 2명, 경북 2명)

아울러, 2011년도에도 회비를 장기미납한 회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오니, 회비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며, 끝으로 협회에서는 회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제명회원 복권제도 안내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회원이 미납회비를 완납할 경우에는 정관 및 회원신고관리규정에 의거 완납 7일 후부터 제명전 정회원의 권리가 회복됨. 다만, 해당자의 회원 경력산정시 제명일부터 권리 회복직전일까지의 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정회원(월정)회비 장기미납관련 제명자 명단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미납개월수
1	서울	김경필	(주)삼텍 건축사사무소	36
2	서울	김길영	(주)건축사사무소 예술건축	36
3	서울	김대영	(주)삼일에이디 건축사사무소	36
4	서울	노영수	(주)영플랜 건축사사무소	36
5	서울	문영조	(주)화인 건축사사무소	36
6	서울	이현재	(주)시명 종합건축사사무소	36
7	서울	전흥각	다담 건축사사무소	36
8	서울	조재유	에이엔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36
9	서울	최인철	건축사사무소 우정씨앤씨	36
10	서울	추경돈	(주)아이티엠 건축사사무소	36
11	서울	허서구	마을과숲 건축사사무소	36
12	서울	황의열	영화 건축사사무소	36
13	서울	김철균	(주)에이씨엠 종합건축사사무소	38
14	서울	김우영	(주)김이 종합건축사사무소	39
15	서울	박상선	(주)상지모양 건축사사무소	39
16	서울	박충열	(주)코레스엔지니어링 건축사사사무소	39
17	서울	송성호	(주)동이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39
18	서울	안현자	(주)아임 건축사사무소	40
19	서울	유영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소마	40
20	서울	이원호	(주)상지 종합건축사사무소	40
21	서울	이종윤	(주)시명 종합건축사사무소	40
22	서울	한옥현	건축사사무소 위캔	40
23	서울	김성우	탑시엔디 건축사사무소	41
24	서울	박성재	(주)정무 종합건축사사무소	41
25	서울	박영호	(주)공간도시 종합건축사사무소	41
26	서울	안윤정	(주)모건 종합건축사사무소	41
27	서울	여운재	예람 건축사사무소	41
28	서울	오병택	(주)티에이에스 종합건축사사무소	41
29	서울	오세두	(주)한도이십일 종합건축사사무소	41
30	서울	유지현	국원 건축사사무소	41
31	서울	이복만	리뉴 건축사사무소	41
32	서울	이상두	(주)디엔에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41
33	서울	이선무	(주)오일 건축사사무소	41
34	서울	이영우	건축사사무소 이송	41
35	서울	이 원	(주)유앤에이디 건축사사무소	41
36	서울	정례화	에이앤지 건축사사무소	41
37	서울	정병호	종합건축사사무소 NX	41
38	서울	조병욱	(주)건축사사무소 한국포에이그룹	41
39	서울	조재우	경일 종합건축사사무소	41
40	서울	최대욱	건축사사무소 아키피아	41
41	서울	현성섭	건안 건축사사무소	41
42	서울	홍후선	(주)두인 건축사사무소	41
43	서울	남민희	(주)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42
44	서울	이종규	두영 건축사사무소	42
45	서울	유병오	건축사사무소 에이앤에이	44
46	서울	서영균	(주)건축사사무소 매일	45
47	서울	홍흥석	(주)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45
48	서울	김태인	(주)건축사사무소 태광	46
49	서울	박상석	국토 건축사사무소	46
50	서울	남기율	(주)디바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47
51	서울	오동진	(주)트임A&C 건축사사무소	47
52	서울	이원용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스퀘어	47
53	서울	김병기	(주)기궁 건축사사무소	48
54	서울	김상우	(주)건축사사무소 한국에이앤이	48
55	서울	김종기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옴니건축	48
56	서울	김형채	에이엔씨 건축사사무소	48
57	서울	박만용	(주)에이디엠 종합건축사사무소	48
58	서울	박문기	(주)일송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48
59	서울	박창호	건축사사무소 태양건축	48
60	서울	신진수	(주)씨드알에스 건축사사무소	48
61	서울	윤우영	윤우영건축디자인연구소(주)	48
62	서울	이변열	(주)이앤아이 건축사사무소	48
63	서울	이병욱	(주)중일 건축사사무소	48
64	서울	장 근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내 한미파슨스	48
65	서울	정진희	(주)한국도시 건축사사무소	48
66	서울	최광휴	(주)남산에이엔씨 종합건축사사무소	48
67	서울	하준수	건축사사무소 정한건축	48
68	서울	한성운	(주)제파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48
69	서울	한세현	(주)중일 건축사사무소	48
70	서울	한시준	건축사사무소 민성건축	48
71	서울	홍재만	(주)담터조형 건축사사무소	48
72	서울	황성훈	(주)컨설탄트포럼 종합건축사사무소	48
73	서울	김병헌	바자울 건축사사무소	49
74	서울	이종권	(주)예인 종합건축사사무소	49
75	서울	이종칠	새길 건축사사무소	49
76	서울	한태준	건축사사무소 하나그린	49
77	서울	황병혁	아키플러스 건축사사무소	49
78	서울	김봉수	(주)에이비라인 건축사사무소	50
79	서울	안병일	우도 건축사사무소	50
80	서울	조남익	(주)해란 종합건축사사무소	50
81	서울	김종운	예일 종합건축사사무소	51
82	서울	곽재관	건축사사무소 팀투	53
83	서울	김수곤	(주)한가람 종합건축사사무소	53
84	서울	김정태	(주)목원 종합건축사사무소	53
85	서울	김현식	애니 건축사사무소(주)	53
86	서울	양성수	(주)원일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53
87	서울	이종일	(주)예닮 건축사사무소	54
88	서울	조웅기	태일 건축사사무소	54
89	서울	김재현	종합건축사사무소수목에이엔에이(주)	55
90	서울	송준환	명원 종합건축사사무소	55
91	서울	유원식	(주)우리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	55
92	서울	나우천	R.A.C. 건축사사무소	56
93	서울	박종원	(주)건축사사무소 나우	56
94	서울	송재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성건축	56

번호	건축사회	성 명	사무소명	미납개월수
95	서울	주순희	미형건축(주) 건축사사무소	56
96	서울	구민서	재원.민 건축사사무소	57
97	서울	김성배	오채 종합건축사사무소	57
98	서울	박세웅	(주)가우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57
99	서울	황호연	한숲 종합건축사사무소	57
100	서울	김해식	오티엘 종합건축사사무소	58
101	서울	유동재	유래 건축사사무소	58
102	서울	윤영선	(주)단원 종합건축사사무소	58
103	서울	조용구	(주)스탠다드플랜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	58
104	서울	김양성	건축사사무소 무제건축	59
105	서울	김영배	(주)L&K 건축사사무소	60
106	서울	김영호	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60
107	서울	김의정	건축사사무소 제이앤에이	60
108	서울	왕호상	(주)송산 종합건축사사무소	60
109	서울	유장안	(주)예공 종합건축사사무소	60
110	서울	이강호	(주)피아이씨 건축사사무소	60
111	서울	이문기	(주)동도종합건축 건축사사무소	60
112	서울	이병길	(주)머릿돌 건축사사무소	60
113	서울	이석길	건축사사무소 대영	60
114	서울	이성우	건축사사무소 건웅	60
115	서울	이응철	이지 건축사사무소	60
116	서울	이종근	(주)종합건축사사무소청목&씨엠디자인그룹	60
117	서울	이중원	(주)한국 종합건축사사무소	60
118	서울	임기평	(주)엠씨플랜 건축사사무소	60
119	서울	임채영	중앙 종합건축사사무소	60
120	서울	장병규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60
121	서울	조현철	(주)건축사사무소 포에시스	60
122	서울	조형섭	(주)서하 건축사사무소	60
123	서울	조환진	(주)건축사사무소 일공일이엔지	60
124	서울	홍영건	에이앤유 건축사사무소(주)	60
125	서울	황영섭	(주)태하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60
126	서울	김낙민	건축사사무소 동화	61
127	서울	김용화	건축사사무소 이지건축	61
128	서울	박명협	건축사사무소 제가	61
129	서울	이승재	우현 건축사사무소	61
130	서울	이종윤	신구 건축사사무소	61
131	서울	전금섭	이도 건축사사무소	61
132	서울	정승진	광장파트너스 종합건축사사무소	61
133	서울	최수익	(주)건축사사무소 팀오삼일	61
134	서울	김영일	시대 건축사사무소	62
135	서울	김영철	(주)태신 종합건축사사무소	62
136	서울	김용철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62
137	서울	김정수	건축사사무소 마오	62
138	서울	김준영	건축사사무소 다연그룹(주)	62
139	서울	김현수	(주)유앤에이디 건축사사무소	62
140	서울	나승민	(주)협연 종합건축사사무소	62
141	서울	남궁길	민담 건축사사무소	62
142	서울	박민수	(주)협연 종합건축사사무소	62
143	서울	박봉재	트루비젼 건축사사무소	62
144	서울	박의식	(주)아산 건축사사무소	62
145	서울	박흥석	아키샹스 건축사사무소	62
146	서울	신 훈	(주)우현 건축사사무소	62
147	서울	심재부	(주)아키후리씨엠씨 건축사사무소	62
148	서울	오충원	(주) 반도.필 종합건축사사무소	62
149	서울	이봉진	두성종합 건축사사무소	62
150	서울	이상목	상지 건축사사무소	62
151	서울	이성현	(주)건축사사무소 세미	62
152	서울	이정한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62
153	서울	장진만	신 건축사사무소	62
154	서울	정낙헌	라움 건축사사무소	62
155	서울	정동원	터 건축사사무소	62
156	서울	정종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우전.예진	62
157	서울	조재호	원도 건축사사무소	62
158	서울	한동신	(주)건축사사무소 대원아키텍	62
159	서울	허성대	종합건축사사무소 신.명	62
160	서울	강만석	유에이그룹 종합건축사사무소	67
161	서울	최영재	(주)건축사사무소 시공감	68
162	서울	이순학	도심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69
163	서울	이시연	건축사사무소 주영	69
164	서울	한창호	(주)부림 종합건축사사무소	70
165	서울	권익환	정현 종합건축사사무소	72
166	서울	백우철	(주)건축사사무소 진	78
167	서울	김현재	(주)한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92
168	서울	손영만	(주)마나 건축사사무소	97
169	부산	안호형	종합건축사사무소 원형	59
170	부산	하승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원	59
171	대구	우충기	건축사사무소 원형건축	36
172	대구	장재훈	(주)우리 건축사사무소	36
173	인천	김유철	(주)삼지이앤씨 건축사사무소	41
174	인천	고경림	건축사사무소 경림건축	60
175	인천	김종래	(주)삼정 건축사사무소	60
176	광주	임용병	(주)아람 건축사사무소	36
177	대전	이인우	(주)건축사사무소 장명건축	36
178	대전	이종한	한 건축사사무소	48
179	강원	황종욱	(주)한석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6
180	강원	남기영	남기영 건축사사무소	41
181	강원	이완우	이가 건축사사무소	56
182	충남	심제근	모아 건축사사무소	60
183	전북	송창윤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간	38
184	전북	김재수	예담 건축사사무소	61
185	전남	최수안	하나 건축사사무소	48
186	전남	김승범	명보 건축사사무소	56
187	경북	한충국	(주)휴다임 건축사사무소	36
188	경북	이은영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경북건축	41

홈페이지 리뉴얼!!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www.kira.or.kr

◆ 리뉴얼의 대상

디자인과 컨텐츠 개편

◆ 디자인 개편

가. 메인화면 구성

편안한 블루와 회색을 기본 컬러로 자극적인 색감으로부터 눈의 부담을 줄이고 색상을 절제함으로써 통일감과 세련되고 심플함을 강조

나. 서브메뉴의 메인화면 구성

서브메뉴의 메인화면은 기존 홈페이지에 없었던 메뉴로 총 8개의 메뉴로 구성이 되었으며 메인 메뉴의 특성 및 설명, 서브메뉴로의 분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서브화면 구성

1) 8개의 Main menu와 170개의 Sub menu(2depth : 55개, 3depth : 115개) 및 영문 홈페이지, Scrap, 마이 페이지 등 총 204개 메뉴의 Design이 개편되었음
2) Main Design의 가이드를 따르며 navigation과 본문과의 간격을 최소 화하고 게시물의 가로폭을 기존보다 100pixel정도 넓게 표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든 페이지를 통일 시킴

◆ 컨텐츠 개편

가. 개선방향

1) 신속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각계 각층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및 배포
2) 정보의 질 향상 : 각종 법령정보 기술정보 및 법령체크리스트 등 유용한 정보의 확보 및 배포
3)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 정회원 위주의 정보제공에서 범국민적 정보제공 확대
4) 정보 제공방식의 변경 : 일방적인 정보 제공 방식이 아닌 유기적인 정보제공 방식으로 전환
5) 커뮤니티 기능 강화 : 회원상호 간, 회원과 일반인 간에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
6) 새로운 아이템 추가

나. 나만의 메뉴

1) 개요
평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메인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가 자신만의 메뉴를 구성하므로 서 사용상의 편의성 향상시키고 개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홈페이지의 활용도 및 참여도 고취

다. 스크랩기능

1) 개요
각종 게시물을 사용자가 생성한 카테고리 별로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의 Contents
2) 기대효과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체계적인 자원관리 및 활용

라. SMS 답변 기능

1) 개요
민원인들이 상담코너에 질의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자동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답변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도록 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를 하고 협회의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민원인의 협회에 대한 관심 유도 및 협회의 위상제고

마. 문서수발

1) 개요
총 5개의 메뉴(받은문서함, 보낸문서함, 내문서함, 문서작성하기, 친구목록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회원", "회원 ↔직원", "회원 ↔협회", "본회 ↔ 시도건축사회", "직원↔직원" 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Contents
2) 기대효과
기존 이메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문서의 소실, 스팸, 전송지연 및 전송속도 등)을 개선하고 협회내 정보교환 네트워 시스템 구축 및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협회의 위상 제고

바. 파일 멀티업로드

1) 개요
기존 게시판이 게시물당 1개의 파일만을 업로드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사진첩" 에 멀티 업로드 기능을 구현함
2) 기대효과
기존 단일파일 업로드에 따른 불편함 해소를 하고, 동호회 활동상 편의성 제고를 통한 동호회의 활성화 기대도 고취

사. 기술정보서비스

1) 개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자재데이터베이스(www.archidb.com)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사이트 링크방식에서 archidb의 보유 정보 중 시방서와 디테일 일부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Contents
2) 기대효과
본협회 홈페이지의 Contents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건설자재데이터베이스(archidb)의 간접적 홍보를 통한 활성화

아. 회원작품전시관

1) 개요
협회 홈페이지 활성화 및 회원 작품의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을 통하여 회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하고자 함
2) 기대효과
회원작품의 대국민 홍보, 지식정보의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회원 경쟁력 강화 및 협회 위상 제고

자. 그밖의 기능

1) 글씨 돋보기
게시물의 폰트 사이즈를 사용자가 조절토록 하여 게시물에 대한 가독성을 향상
2) 아이디저장
아이디 자동저장 기능을 통하여 홈페이지 활용에 편의성을 제고
3) 방문자카운트
방문자 카운터를 통해 사용자 별 협회 홈페이지 이용 통계 추출 등 활용
4 협회도서
협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구현(현재 8,703권의 자료 등록)

태국건축사협회(ASA) 2011년 컨벤션 참관보고서

Report on ASA 2011 Convention

신춘규 | 본협회 국제 담당이사

"ASA 2011 Convention was held at 'Impact' Convention, Bangkok on 9th thru 13th of February, 2011. President Choi, Young Jeep was invited to be awarded Honorary Membership of ASA and to discuss the further collaboration as the part of MOU which has been established newly in 2010. ASA Convention is an annual event which consists of forums and expositon. Forum has three different categories with Historical Conservation, International and one other forum to focus on current issues(this year, Disaster Relief Forum). ASA Exposition had been very successful in festive moods throughout diverse exhibitions with various exhibitors of building materials, architect firms, related associations, and even schools fo architecture. It was very impressive for me to see many citizens with children and young students and architects."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던 태국건축사협회(ASA)의 컨벤션에 초청을 받아 협회장을 수행하여 참석을 했다. 이번 총회에는 지난해에 우리 협회와 MOU를 체결한 이래 첫 교류로서 최영집 회장을 초청하여 후속 교류를 협의하고 명예회원증을 주기로 했다.
태국건축사협회의 컨벤션은 크게 매년 두 개의 주요행사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건축전시이고, 다른 하나는 포럼이다. 포럼은 세 개의 포럼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데 해마다 열리는 것이 역사보존 포럼(Historical Conservation Forum)과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이고 다른 하나는 그 해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찾아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재해구난 포럼(Disaster Relief Forum)으로 정했다고 한다. 우리를 비롯한 국제대표단은 방문의 특성상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거의 없이 MOU 관련회의와 전시만을 참석할 수 있었다. 협약 체결 후 처음 이루어진 이번 방문을 통해 본 태국의 컨벤션에 계속교육의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오히려 미국총회의 참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참 의외의 결과였다고 느껴진다.
이번 컨벤션에는 아시아 10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석해서 명실 공히 태국이 국제화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는 행사가 되었다고 본다. 참가한 대표단은 아카시아 회장을 비롯 한국 외에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라오스, 홍콩,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마카오 등에서 참석을 했다.

우선 첫날 이루어진 협약에 대한 회의는 센타라 그랜드(Centara Grand

각 국 대표단과 태국협회 대표단

KIRA–ASA 회의

at Central World) 호텔의 회의장에서 열렸으며 태국 측에서는 국제담당 부회장인 사이루트(Sairuth, 일명 누이라고 함), 부회장 샤이랏(Chairat), 국제담당 위원인 용유스(Yongyuth), 월라이폰 교수(Prof. Wallaiporn) 그리고 사무국직원 사릴라(Salila)가 참석을 했다. 두 협회의 협약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제안에 대한 의견이 거론되었다. 우선 협회의 구조에 대한 정보 교환, 협회 주요활동(특히 역사보존, 건축전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및 재해구난을 위한 협회의 역할에 대한 협조 등을 주로 협의했으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각 협회 및 건축 관련 제도 비교표를 만들어 각 협회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협력이 진행되기 전에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영문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통한 활동 및 정보의 공유, 건축사지(최소 5부) 교환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특히 Tri Nation의 한 국가인 싱가포르가 이번 동경 UIA 총회에서 우리와 경쟁국으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한국을 지원해주도록 요청을 하였고 태국협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컨벤션의 전시는 정말 인상적이었다. 컨벤션의 주제는 "버텀 업(Bottom Up)" 으로 정했는데 이는 커뮤니티의 저소득층을 위한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했다고 한다. 컨벤션은 방콕시의 비교적 외곽에 위치한 건설한 지 5년 정도 된 임팩트(Impact)컨벤션에서 개최되었는 데, ASA 전시면적만 4,000㎡에 이르고(원래는 한 층 6,000㎡를 다 빌렸었다고 함) 건축학교의 전시 및 건축사사무소, 건축 자재전시, 협회 북스토어(ASA Bookstore) 등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명실공히 종합전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태국협회의 서점(ASA Bookstore)에서는 다양한 ASA 로고가 들어간 제품(책에서부터 셔츠, 스케치 북, 가방 등 등)들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협회가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 쪽에는 건축학교 부스들을 만들어 학교건축설계의 종합 전시가 되도록 했다. 특히 둘째 날 ASA Night에는 밴드를 불러 공연을 하고 여기에는 학생 등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참석을 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했다. 건축자재 전시도 미국총회의 전시와는 달리 경직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고 센스있는 전시들이 많아 좋았고 판매부스와 비판매부스가 있어 무료로 제공된 비판매부스에서는 자연스럽게 건축학교의 전시 및 비영리건축단체들의 전시, 협회 자체의 전시들이 있어 돋보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 알찬 전시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협회 임원들의 의지를 보며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태국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계속교육을 통해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환영만찬

Tri Nation 회의

전시회 전경(ASA Theatre)

건축사사무소 부스 전경

태국건축사 협회(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의 통계

1. 공식명칭: The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under Royal Patronage)
2. 전체인구: 약 6,600만 명
3. 설립년도: 1,872년
4. 건축사회원수: 약 7,627명
4.1 회원유형별 회원수: 명예(19), 정회원(6,669), 준회원(636), 보조(208), 법인(95)
5. 회장: 타위짓 샨드라사카(Jack Thaweejit Chandrasakha), 임기 2년
6. 등록원: 교육부 산하 태국 건축 등록원ACT(Architect Council of Thailand)
7. 계속교육: 1년에 12유닛요구, ACT에서 계속교육 제공 관리
8. 건축학교: 19개 학교(건축학석사, 5년제만)

ASA 북스토어 전경 1

ASA 북스토어 전경-2

건축학교 전시장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장

행사장 이벤트

유명인사 인터뷰 비디오전시장

건축학교 전시장 전경

전시장 디렉토리

등록 ID

홀 등록대 현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의자겸 놀이기구

휴게공간과 종이접시와 건설자재로 만든 풀리

ASA Night(2월12일) 전경

ASA Night에 참석한 젊은 건축사들과 학생들

소식
NEWS

협회소식

제1회 이사회

2011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과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회관 대지지분 정리방안 합의문 체결 요청의 건,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제도 도입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 협의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2011년도 1~2월 중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건과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
– 정관개정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정관개정(안) 중 아래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45회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건축사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검토 · 보완하여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개정(안)의 문구 조정 등 세부사항은 조성원 이사가 검토 · 확인한 후 시도건축사회장회의의 논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상정

구 분	주 요 골 자
조직 및 사업	•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전문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2항) • 공제조합의 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회원범위 확대	• 정회원 범위 확대 ☞ 업무신고 건축사→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한 자 • 특별회원 자격 변경 ☞ 협회 기여자, 법인→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 법인회원 (신설) ☞정회원인 건축사를 대표로 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
회장 직선제	• 정회원 투표제 신설 (안 제16조의2) ☞회장임기 1월1일 • 회장 직선제 신설 (안 제20조의3)
시도건축사회 관련 조항정비	• 시도건축사회의 운영관련조항을 삭제 (안 제42조~제51조) –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건축사회별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중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재경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고, 건축문화신문의 인터넷신문 전환방안 등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발간사업 예산안 관련
– 회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는 현행대로 지급
– 건축문화신문은 현행대로 개인별로 발송
▷ 시도건축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운영예산 신규계상(600만원)
– 현재 별도로 관리 · 운영되는 서울 · 대구 · 경기건축사회 홈페이지의 통합관리를 위해 시스템 변환 필요
▷ 기타
– 국제사업비 증액건의(약 2,800만원)
– 일반회계 지원금(3억 5천만원)을 축소하고 회관건축자금 차입금을 우선상환
• 제3호 : 대한건축사협회 민간자격제도 도입의 건
– 민간자격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으므로 추진을 유보하고, 건축사 직능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함.
▷다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 보완
• 제4호 : 회관 대지지분 정리방안 합의문 체결 요청의 건
– 법원의 판결내용과 총회 의결사항 등이 모두 유효한 것이므로 합의문을 체결할 사안은 아니며, 총회 의결사항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협의함.
• 제5호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제도 도입의 건
– 특별상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임원 모두가 공감하므로, 행정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좀 더 검토 · 보완한 후에 차기 이사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6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협의의 건
– 선거과열 방지를 위한 규정보완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나 시기적으로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차기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보완을 검토하도록 함.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1년도 1~2월 중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회비 장기미납회원 제명 및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회원제명 대상자(214명)에게 금년 1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하되, 그 기간 이후에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제명하고 해당회원

의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 전남 · 경남건축사회에서 제명처분된 회원(7명)의 본협회 미납회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1회 시 · 도건축사회장 회의

2011년도 제1회 시 · 도건축사회장 회의가 지난 1월 1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 추진방안의 건
– 금번 제45회 정기총회('11.2.25)에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일부 조항만 상정하는 데에 시도건축사회장 모두가 공감함.
– 오늘 상정된 정관개정안 중 법인추천대의원제는 삭제하고 임원 및 대의원 임기를 조정(2년→3년)하며, 부칙조항 등을 좀 더 보완한 후 2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정관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직 및 사업	• 협회에서 별도의 법인 또는 전문협의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3조 제2항) • 공제조합의 의결기구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조직 및 사업	• 정회원 범위 확대 ☞ 업무신고 건축사→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한 자 ※ 기존 협회 정회원은 정관개정안 제7조(회원)의 정회원으로 함. (부칙 제2조) • 특별회원 자격 변경 ☞ 협회 기여자, 법인→교수, 공무원, 기술사 등 • 법인회원 (신설) ☞ 정회원인 건축사를 대표로 하는 법인건축사사무소 • 모든 회원에 대해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부과 (안 제36조의 2)
임원 및 대의원 임기변경	• 대의원 : 2년 → 3년 (안 제14조 제4항) • 임 원 : 2년 → 3년 (안 제22조 제1항)
회장 직선제	• 정회원 투표제 신설 (안 제16조의2) – 정회원 투표 회부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이사 3분의2 이상 찬성 – 정회원 투표 결정방법 : 협회 정회원 과반수 참여, 참여 정회원 과반수 찬성 – 투표결과는 총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 • 회장 직선제 신설 (안 제20조의3) – 협회 정회원 투표 실시 후 최다 득표자로 당선자 결정 – 회장은 임기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출 – 회장은 당선된 다음해 1월1일부터 직무를 개시
시도건축사회 관련 조항정비	• 시도건축사회의 운영관련조항을 삭제(안 제42조~제51조) –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건축사회별로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
추대회원 자격변경	• 정회원 자격 25년이상 유지 만 65세이상→30년이상 유지 만 70세이상

• 제2호 : 2011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건
– 원안에 동의하되, 건축문화신문과 건축산업대전은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1회 건축자재 추천 T/F

제1회 건축자재 추천 T/F 회의가 지난 1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자재 추천 심의의 건
– (주)일신산업의 Low-E(로이)단열재를 심의한 결과 평점 85점으로 추천자재로 적합하다고 판정함.

■ 제1회 건축영화제 T/F

제1회 건축영화제 T/F 회의가 지난 1월 1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시행의 건
–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시기는 잠정적으로 9월에 시행하는 것을 추진함.
– 장소는 1안으로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로 정하며, 대관료 없이 러닝캐런티로 극장 대관 가능한 곳을 조사하기로 함.
– 원활한 스폰서링을 위해 협찬금 외주계약을 추진하기로 함.
– 국토해양부에 국토해양부장관상 1점을 본 영화제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건축UCC공모전, 단편영화경쟁부문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
– 건축영화 선정이 본 위원회 외부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함.
▷ 현재 외부위원들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의사표현을 함.

■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제1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홍보사업' 평가의 건
– 건축영화제를 친환경 · 우수디자인 건축자재 전시회와 같은 부대행사와 함께 개최해 협찬금 협조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함.
– 올해 건축영화제는 예산협조를 서둘러 진행해야 하며, 회원들에게 영화제 개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현재 건축영화제 개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방 및 일부 회원들에게 있음. 제3회 건축영화제에 대한 시간, 장비, 예산 등을 포함하는 올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임 회장 취임 후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보고서를 통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함.
▷ 문화홍보위원회에서 제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계획서를 2월중으로 마련하기로 함.
– 건축영화제 위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회원들을 발굴해 위원회를 보강해야 함. 현재 외부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원사퇴시 행사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은 제2호의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 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건축연구원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장이 검토 요청한 사항을 중점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당해 예산안을 증감 조정함.
– 기타 기금관리운용회계 예산안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예산결산소위원회안을 잠정 결정하고, 201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재경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아울러, 2010년도 결산결과 확정되는 이월금수입을 반영하여 각 회계별 예산안 세입부문 이월금수입과 세출부문 예비비 등을 증감 조정토록 함.

■ 제1회 재경위원회

제1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11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 보완하도록 함.
• 제2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제5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축조 · 심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사업계획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재경위원회안으로 결정(잠정)하여 1월 이사회 및 시도회장회의에 협의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함.
– 아울러, 재경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및 시도회장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회의시 위원회안을 최종 확정키로 함.

■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 201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전표 확인등)은 감사수감결과를 수용키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이사회에 건의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심의함.
• 제2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제3호의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안을 수정 보완토록 함.
• 제3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회 이사회('11. 1.13)의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 · 조정하고, 기타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여 위원회안을 확정한 후, 이를 재경위원회에 제출키로 함.

■ 제2회 재경위원회

제2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1년도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 2010회계년도 수지결산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예산결산소위원회 건의안을 이사회 자료에 명시
• 제2호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완료함.
• 제3호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6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예산결산소위원회 협의결과 및 건의사항 이사회 자료에 명시

■ 제1회 행정위원회

제1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3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 개정(안) 검토의 건
– 제16회 행정위원회('10.10.16) 이후 추진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별도의 논의 없이 이번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대한건축사협회 특별상 운영의 건
– 특별상 운영규정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며,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 ·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1조 목적중 '교육 · 사회활동'을 '교육 · 건축사협회활동 · 사회활동'으로 문구 추가
▷ 제2조(운영위원회) 제2항 삭제, '구성한다'→'둔다'로 수정
▷ 제2조 및 제3조 내용중 '특별상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로, '특별상 내용'→'내용'으로 수정
• 제3호 : 건축문화신문 및 건축사지 발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개정안 제2조 제4항 '회장이 임명'→'회장이 위촉'으로 수정
▷개정안 제3조 제2항 삭제
▷개정안 제8조(광고비 등)는 현행대로 하되, 제2항중 '프레스센터장의 승인'을 '편집위원장의 승인'으로 수정하고, 제3항은 삭제
▷부칙은 사무처에서 내용 확인 후 검토 · 보완

• 제4호 : 건설기술자 회비 및 수수료 부과 · 수납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5호 : 보수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제6호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금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11.1.25)된 대로 정관개정 이후에 근원적으로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의견을 개진함.

협회소식

대한건축사협회–흥국화재보험(주) · 한화손해보험(주), 손해배상공제 업무제휴 체결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최영집)은 지난 1월 18일 오후 15시에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흥국화재보험(주) · 한화손해보험(주)과 손해배상공제업무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조합 최영집 이사장을 비롯하여, 흥국화재보험(주) 김용권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주) 신동진 전무이사 등 보험사 관계자들과 조합이사 및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이번 손해배상공제 업무제휴 협정을 통해 본격적인 공제사업 시행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0년도 건축사지격시험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2010년도 건축사지격시험의 최종 결과가 지난 1월 7일 발표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양교육과 자격증교부식이 개최됐다.
이날 자격증을 수여받게 된 최종합격자는 296명으로 남성 238명(80.4%), 여성 58명(19.6%)이다.
수여식에서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오늘이 있기 까지 그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건축에 대한 열정에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며"대한건축사협회도 건축사 여러분들의 능력개발과 자질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축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로부터 친환경 건축인력 양성사업기관으로 지정되어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를 시행한지 벌써 6기에 이르고 있다."며 "협회는 법 · 제도개선, 시장질서 회복과 확대, 국제환경에 대비한 자격제도 정비, 건축과 건축사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등 건축사 여러분의 권익신장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구심점이자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축사공제조합도 설립되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건축사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자격증 수여식에서는 남녀대표 및 과목별 고득점자 5명이 최영집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대한건축사협회안내 및 소양교육을 끝으로 건축사로서 첫발을 내딛었다.〈2010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296명 명단, 본지 통권 501호(2011년 1월호) 84페이지 참조〉

대전건축사회, 건축디자인자문제도 및 연금제도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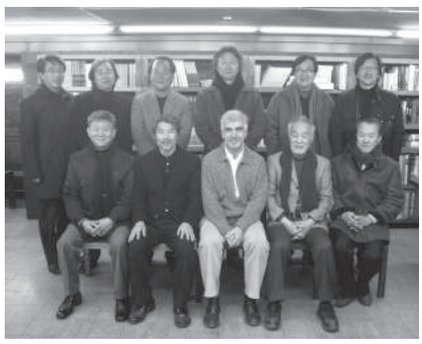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손근익)는 지난 1월 28일 건축디자인자문제도 및 연금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 중에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를 대한건축사협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에 두고 그 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대전건축사회 연금제도의 시행에 앞서 그 재원과 연금관리회 세칙들에 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광수 건축사(대전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는 연금제도는 우리 건축사회 회원의 노후대비와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 뜻을 밝혔다.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건축계소식

UIA Jordi Farrando 사무총장 내한



국제건축사연맹(UIA) Jordi Farrando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Farrando 사무총장은 방문 중에 '2017 UIA 총회' 개최 후보 장소인 COEX를 방문했으며, 서울특별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FIKA 국제위원회는 Farrando 사무총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2017 UIA 총회 유치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 협의했다.

간향미디어랩 '제2기 간향건축저널리즘 워크숍' 개최

간향미디어랩에서는 '2011년 제2기 간향건축저널리즘 워크숍'을 개최한다. 3단계 코스별 강좌로 구성되며 주중 워크숍과 함께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중인 기자, 칼럼니스트, 교수들의 강의와 세미나,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은 저널리스트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지식 뿐 아니라 직접 언론활동에 참여하고 기자의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최종 과정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언론사 취업시 추천서도 받을 수 있다. 워크숍 지원 양식은 네이버카페와 〈와이드 AR〉 저널리즘 워크숍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다.

- 신청기간 : 2011년 2월 28일~3월 12일
- 모집인원 : 10인 내외
- 신청자격 : 대학 3학년 재학생(휴학생 포함) 이상으로서 건축, 도시, 디자인, 조경, 인테리어 관련학과 전공생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신청서류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재(휴)학 증명서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widear@naver.com)
- 워크숍 일정
  - –기본코스 : 4월~6월(3회)
  - –집중코스 : 8월(4회)
  - –심화코스 : 9월~11월(3회)
- 문의 : 070–7715–1960, 02–2235–1960, cafe.naver.com/aqlab

제8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근대건축 활용방안 디자인 공모전인 '제8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이 개최된다.
올 해는 부산의 하야리아 부지를 대상으로 개최하며, 등록기간은 2월 21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공모전 워크숍과 현장공개, 1·2차 질의응답을 거쳐 5월 26일(목) 10시부터 15시까지 경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작품을 접수 받는다. 결과는 5월 31일 도코모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등록 방법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참가비는 1팀당 50,000원이이며, 참가 자격은 역사·도시·문화와 근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심있는 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 문의 : 도코모모코이라 사무국, 070–8224–0502, www.docomomo–korea.org

KCC, '5억불 수출의 탑', '동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2010년 11월 30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7회 '무역의 날' 기념 행사에서 KCC가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으며, 정몽익 대표이사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지식경제부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김황식 국무총리,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역의 날 포상은 무역진흥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의 탑 2가지로 구분된다. 포상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역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앙양을 위해 수여하는 훈장으로 정몽익 대표이사는 차세대 성장동력인 유무기 실리콘사업의 추진, 도료 및 소재 수출확대 등의 사업확장 능력을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출의 탑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동안 수출실적을 달성한 업체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KCC는 선박용, 자동차용 도료, 실리콘 및 유무기 소재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약 18%의 수출이 신장된 5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KC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였으며 향후

수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CC관계자는 "KCC가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새해에도 글로벌 정밀화학 기업으로서의 KCC 역량을 더욱 축적하여 한 단계 진화해나가겠다."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KCC, 창호용 핸들 시리즈 카탈로그 발간

KCC디자인부에서는 창호용 핸들 시리즈를 담은 신규 카탈로그를 발간했다. 핸들뿐 아니라, KCC창호 제품 설명도 같이 수록되어 있으며, 인테리어의 흐름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창호 카탈로그에서 KCC 프리미엄 핸들 시리즈는 스타일별로 구분하여 인테리어와 함께 연출되어 있고, 프레임(GD 수상), 화이트(GD 수상)시리즈와 크로스 시리즈 등 레버핸들뿐 아니라, 프레임-G, 컴팩트 등과 같은 그립형 핸들, 발코니 고정형 핸들 등 다양한 창호용핸들 시리즈를 보여준다.

건설사들의 창호 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BI, CI등의 브랜드 삽입, 주문형 칼라 등의 Needs에 맞춰 KCC에서는 상담을 통해 각 현장 및 인테리어 스타일에 맞는 핸들을 제작하고 있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공간열기(空間列記)

김인철 저 | 324쪽 | 도서출판 동녘

신간 〈공간열기(空間列記)〉는 건축사이자 중앙대학교 교수인 저자가 실무와 강의를 병행하며 전통개념을 어떻게 현대 건축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 결과물이다.

건축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입문부터 개념, 배치, 형태, 형식, 용도, 기능, 공간, 영역, 장소, 설계, 졸업까지 모두 12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건축하기가 건축가만의 짝사랑이 아니라 모두 어울려 예찬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에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서두에 이 땅에서 건축이 영위되었던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긴 시간 동안 변치 않아야 하는 우리의 명제는 '건축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도서출판 동녘 031-955-3014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_다른 생각, 그러나 다투어야 할 생각

이일훈 저 | 328쪽 | 사문난적

신간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저자가 그동안 숲 가꾸기 활동단체 '생명의 숲'을 응원하는 월간지 「숲」에 연재한 글들을 묶어낸 생태환경 에세이집이다. 그는 자신의 주 분야인 건축을 삶으로, 이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변의 환경으로까지 확장시켜 우리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풍경들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 책은 숲의 둘레, 풍경의 둘레, 건축의 둘레로 나누어져 있으며, 숲과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 우리에게 '녹색성장'보다 절실한'녹색철학'의 필요성, 검소한 건축으로 지구환경의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저자는 그동안 '모형속을 걷다' '불편을 위하여' 등의 건축관련 에세이집을 통해 '불편하게 살기, 밖에 살기, 늘려 살기'를 자신의 건축미학과 생활철학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문의 : 사문난적 02-324-5342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90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814-8843 · 마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33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96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영평정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42-389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회장/(042)841-5725 · 청양지역회장/(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5)6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마산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해시건축사회/(055)547-4530 · 창녕시건축사회/(055)532-9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3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1 · 함안시건축사회/(055)585-8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김은미 | Kim, Eunmee | Studio M.Ap

블룸버그 행정부에 의한 뉴욕 공간 변화에 대한 연구

Review : Bloomberg's New York: Class and Governance in the Luxury City by Julian Brash

건축가에 의해 쓰여지지 않은 도시 연구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블름버그의 뉴욕: 럭셔리한 도시의 계층과 통치]는 인류학자인 줄리안 브라쉬에 의해 써졌다. 그래서 이 책은 기존의 다른 도시 연구에 관련된 책들과는 차별되게 '미학'에 기반한 논쟁에 그 흥미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책에서 브라쉬는 다루기가 까다롭고 교묘한 주제인 '계층'과 블룸버그시장과 전 부시장인 다니엘 닥도로프에 의해 홍보가 된 '장소 만들기'라는 주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브라쉬는 계층복지에 대한 그의 주장이 '공간의 생산'과 함께하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뉴욕'이란 책이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에게 읽혀질 가치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블름버그 행정부의 우범지구(Hudson Yards)를 위한 오버스케일의 다양한 계획안들과 닥터로프의 2012년 올림픽유치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브라쉬는 그 계획의 궁극적인 실패는 'Hell's Kitchen Neighborhood Association과 Community Board Four'를 포함한 지역사회 단체들의 능력이 블룸버그 행정부가 뉴욕을 '엘리트'도시로 이상화 하고 광고한 것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Aerial view of Hudson Yards in Manhattan. Julian Brash

누가 '엘리트'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고루한 이슈를 떠나서, 사실상, '럭셔리 시티'는 현실이 되었고, 브라쉬는 현명하게 계층 정치학과 '장소 만들기' 연관시켰다.

우범지구인 'Hudson Yards'를 위한 계획들을 자세하게 연구함으로써, 브라쉬는 어떻게 그가 '초국가적인 자본주의 계층(글로벌한 야심을 지닌 뱅커, 투자자, 디벨로퍼 등)'라고 부르는 '장소성이 없는(placeless)' 그룹의 사람들이 실재적으로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 보여준다. 브라쉬의 통찰력은 진부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버린 '귀족화(gentrification)'라는 개념보다 훨씬 설명적이고 정확하고 매우 분명하며 흥미롭다.

사실상 나는 브라쉬와 그가 말한 '초국가적(transnationals) 인물'들이 실제로 도시공간들을 변화시키고 점유한다는 이야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A 2004 rally supporting a New York Jets stadium in Manhattan. Julian Brash

의도적인 도시적 맥락이 없는 도시점유 방법이 '장소 없음(placelessness)'의 정의라고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블룸버그의 첫 임기(2002~2009)동안 지어진 놀랍도록 대담한 콘도미니엄들은 살기 좋은 곳 이라기보다는 투자하기 좋은 품목으로 선전되어졌다.

그보다 조금 더 화려한 프로젝트들은 완벽하게 도시로부터 격리되어 이웃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광고한다.
"Tsao &McKown's William Beaver House"는 인도어 애완견 산책 코스와, 영화관을 갖추고 있으며, "Annabelle Selldorf's 200 Eleventh Avenue"는 자가용을 본인의 아파트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있다.
블룸버그 행정부 치하에서 뉴욕의 공간들은 일종의 삼차원적 미래형 시장이 되었다.

블룸버그 시장 치하에서 뉴욕은 허드슨강 공원과 브룩클린다리 공원 그리고 하이라인과 같은 새로운 공공공간들의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20년 혹은 그 보다 조금 전인 '지나간 좋은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진 않는다. 그 시절의 뉴욕에는 1990년 한 해 동안 2,60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뉴욕커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강도에게 주기 위한 $100짜리 지폐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
그러나 지난 십년간, 도시가 모노컬쳐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덜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한 것 또한 사실이다.

브라쉬는 뉴욕의 경제적 다양성의 부족을 그러한 현상에 대한 핵심 요소로 지적하고, 이것을 '블룸버그식 방법론'에 대항하는 그의 주장이다.

'창조적인 계층(creative class)'을 위해 과도하게 지어진 사무실, 콘도미니엄, 그리고 세련된 식당들은 실제로 '창조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다.
내가 15년 전 처음으로 브루클린의 'Cobble Hill'로 이사를 갔을 때, 거기에는 아직 가구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콘도미니엄으로 변했다.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전에 있었던 경공업 공장들을 상상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산업지역들은 보통 모두 부티크나 술집으로 바뀌었다.

실제적으로 허드슨 광장에 있던 산업시설들의 죽음을 이끌었던 피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1999년에 우리는 아직 인쇄소가 있던 지역에 살았지만, 우리는 그 지역이 경공업지역에서 창조적인 일을 해내는 사무실로 바뀌는 걸 목격했고 이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이다." '흥분'이라…나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무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엘리트'들을 위해 세워진 도시들은 그들이 쇠망하게 될 때 그 도시도 같이 쇠망하게 될 것이다.

Fran Leadon
Fran Leadon is an architect and co-author, with Norval White, of the fifth edition of the AIA Guide to New York City.

위의 글은 Fran Leadon 이란 건축가가 Architect's Newspaper 에 기고한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대도시 개발 논리와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는 필자만은 아닐 듯하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11월 말

구분 / 건축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359	5,359	100	200	8	24	5,467	5,583	1,662	1,662	241	482	62	186	26	104	25	163	2,016	2,597	7,483	8,180
서울	902	902	27	54	2	6	931	962	892	892	141	282	40	120	12	48	15	88	1,100	1,430	2,031	2,392
부산	471	471	16	32	2	6	489	509	97	97	18	36	3	9	0	0	3	22	121	164	610	673
대구	425	425	19	38	3	9	447	472	66	66	18	36	3	9	3	12	2	10	92	133	529	605
인천	269	269	2	4	0	0	271	273	63	63	7	14	0	0	1	4	0	0	71	81	342	354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40	40	7	14	3	9	2	8	0	0	52	71	254	274
대전	224	224	4	8	1	3	249	255	35	35	9	18	3	9	1	4	1	16	49	82	298	337
울산	117	117	5	10	0	0	182	187	17	17	2	4	1	3	0	0	0	0	20	24	202	211
경기	736	736	2	4	0	0	738	740	235	235	18	36	3	9	2	8	1	5	259	293	997	1,033
강원	173	173	2	4	0	0	175	177	26	26	2	4	0	0	1	4	0	0	29	34	204	211
충북	210	210	4	8	0	0	214	218	30	30	5	10	1	3	1	4	2	15	39	62	253	280
충남	243	243	1	2	0	0	244	245	44	44	5	10	2	6	2	8	0	0	53	68	297	313
전북	240	240	4	8	0	0	244	248	22	22	2	4	2	6	0	0	0	0	26	32	270	280
전남	193	193	1	2	0	0	194	195	19	19	1	2	0	0	0	0	1	7	21	28	215	223
경북	357	357	5	10	0	0	362	367	37	37	3	6	0	0	1	4	0	0	41	47	403	414
경남	403	403	7	14	0	0	410	417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42	452
제주	115	115	0	0	0	0	115	115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6	128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 건축사회	회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계	8,180	10	8,190	100%	23
서울	2,392	3	2,395	33.9%	10
부산	673	1	374	7.9%	9
대구	605	0	605	7.7%	0
인천	354	0	354	3.8%	0
광주	274	0	274	3.7%	0
대전	337	1	338	3.7%	0
울산	211	0	211	2.6%	0
경기	1,033	2	1,035	12.2%	2
강원	211	0	211	2.6%	0
충북	280	0	208	3.0%	0
충남	313	3	316	3.1%	0
전북	280	0	280	3.0%	0
전남	223	0	223	1.9%	0
경북	414	0	414	4.6%	1
경남	452	0	452	5.0%	1
제주	128	0	128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입미처리	합계	비고
회원수	5,583	2,597	–	8,180	
비율	68.5%	31.75%	–	100%	
사무소수	5,467	2,016	–	7,483	
비율	73.06%	29.94%	–	100%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SAMHYUB
construction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국건축가협회상 5회 수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2회 수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0-7 홍성빌딩 4층 | TEL.02.575.9767 | FAX.02.562.0712 | http//:www.samhyub.kr